



11

주 체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11 호

(루계 제 613 호)



◆◆◆◆◆◆◆◆◆◆ 차 례 ◆◆◆◆◆◆◆◆◆◆

병사의 환호	4
장군님의 야전차 달리네	4
김일성 민족의 태양위업송가	5
사향산의 달밤에	11
장군님의 리상	12
헌시	13
백두산 달맞이(외1편)	14
기다리는 만경대	15
승고한 애국의 의지를 지니시고	16
명언해설	17
군민의 노래	18
군민일치사상 만세!.....	21
뒤집혀진 땅크	22
내 조국의 시간	26
향도의 자욱을 따라 6천리	27
병사들이 열어가는 길	28
양평땅의 새 주인	29

노을과 청춘	35
동창생	36
언제나 백승일세	44
생의 부름	45
병사의 휘파람	52
사랑과 위훈	53
영웅들 앞에서	61
내가 안고 걸으리	61
한마음	62
《리로운 봉변》	64
넋을 찾으라	65
조국과 더불어	76
시대와 생활을 대하는 작가의 탐구적 자세를 두고	78
《새 배나무집》 이야기	80

병사의 환호

정렬

만세 만세-
추대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이 시각
전호가 병사들 높이 든 손과 손엔
총, 번쩍이는 총대

온 나라 거리거리에
환희의 꽃물결이 설레이고
손에 손에 꽃을 든 인민들
경축의 광장에 파도처럼 설레이 때
아, 초소와 초소마다 설레이는
총, 만탄창한 총대의 숲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이 시각
마디 굽은 손마다 총대를 높이 추켜든
병사의 환호여

이 총대로 찾은 조국이어서
이 총대로 지키는 조국이어서
강성대국의 부강번영도 담보하는
놓을수 없는 총이어서

행복과 기쁨에
가슴벅차게 끓어오르는 이 순간
병사들 심장의 환호로 받들어 올린것은
다만 총, 이 총이여라

온 나라 온 누리에
환희의 꽃물결이 물결칠 때
조국이며, 인민이며 닦하지 마시라
전호가 병사의 손에
꽃을 들지 못했다고

총대로 시작한 우리 혁명
총대로 완성할 승리가 있어
신념과 의지가 번쩍이고
백승의 기상이 넘치여라

아, 우리 장군님
제일로 사랑하시고
크나큰 믿음이 어리어
무적의 용맹이 빛날치고
온 나라의 꽃물결도 지키고
통일의 꽃보라도 펼칠
성스러운 혁명의 총대이거니

필승의 기상과 신심이
천백배로 용솟는 력사의 이 순간에
더더욱 무거워진 총이어서
더더욱 귀중해진 총이어서
가슴속 맹세와 신념은 터치는
병사의 환호도 너와 함께 있어라

가사

장군님의 야전차 달리네

오재일

아침 노을 차창가에 담아실고서
쉬임없이 달려가는 야전차소리
뜨는 해도 지는 해도 모두 안고서
전선길에 이어지는 야전차소리
아 병사들 찾아
장군님의 야전차 달리고달리네

전화의 날 림진강의 철교우로
수령님 몰아가시던 야전차인가
굽이굽이 벼랑길도 에돌면서

전선길에 이어지는 야전차소리
아 병사들 찾아
장군님의 야전차 달리고달리네

뜨는 달도 지는 별도 모두 실고서
쉬임없이 달려가는 야전차 불빛
영원한 승리의 진격로 열며
내 조국의 전선길을 오늘도 달리네
아 병사들 찾아
장군님의 야전차 달리고달리네

김일성민족의 태양위업송가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에 대하여-

뜻깊은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발사한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김정일장군의 노래》선물이 우주공간을 꽉 채우며 울려 퍼지고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지금 비상한 전인력으로 파급되어 민족과 겨레의 심장을 환희와 격정에 끓게 하고있으며 도래할 새 세계의 태양송가로 세계를 진감하고있다.

희망찬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있는 력사의 전환점에서 불멸의 혁명송가가 높이 울리는것은 태양민족의 영예이고 자랑이며 우리 시대가 받아 안은 특전이다.

1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신운호 작사, 설명순 작곡)는 시대와 력사의 의지와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담은 김일성민족의 태양위업송가, 만고절세의 위인찬가이다.

불멸의 송가는 우리 인민이 오랜 기간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있던 절절한 념원의 실현이였고 력사가 갈망하여마지 않던 위인에 대한 칭송이였다.

그것은 반세기전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태양의 위업으로 한몸에 안으시고 수십년간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생활과 현실로 체득하고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축적되고 체험된 감정의 분출이다.

불멸의 혁명송가에서 집약되어 노래된 인민의 령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은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권위는 일찌기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속에서 공인되었고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배와 신뢰는 절대적인것으로 되였다. 혁명송가에 뜨겁게 젖어있는 숭배와 신뢰의 감정은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깊이 내린 신념과 의지, 량심과 도덕, 념원과 지향의 총체, 최고권화이다.

우리 인민은 일찌기 만경대의 해돋이에서 민족의 태양을 맞이하였고 정일봉의 해돋이를 맞이하여 마침내 태양위업의 영원무궁함을 확신하였다.

아, 백두광명성 솟아 민족의 대통운이 났다고

희열에 넘쳐 천년 푸르른 백두의 거목에 신념의 글발을 새겨넣은 혁명의 첫 세대들의 심장에서 벌써 김일성민족의 태양위업송가는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우주에 태양을 대신할 행성이 없듯이 태양위업은 오직 태양에 의해서만 빛나게 이어질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뇌부로 모신 때로부터 태양으로 절대화하고 신격화한 조선혁명의 1세대들은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태양위업의 빛나는 계승의 봄빛으로 심장에 따스하게 받아안았다. 하여 백두산 대장수와 항일의 녀장수에 대한 신기한 전설과 함께 천지조화와 풍운조화를 다 지니고계시는 백두산 새 장수에 대한 가지가지의 전설을 엮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위업의 영원한 해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것은 마침내 풍랑사나운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과 함께 절대불변의 민족적감정으로 시대와 력사의 확고한 의지로 되였다. 태양위업송가는 이렇게 민족의 넋과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인민의 의사와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체현하고있는 선대수령에 의하여 그 품모와 자질이 완벽하게 칭송된 후대 수령에 대한 전인민적, 전인류적 시대감정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광명성찬가》를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 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탄생 50돐을 맞으면서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그를 찬양하는 송시를 썼습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송시는 수령의 특출한 품모와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이끄시여 세기에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숭축의 최고정화이며 태양위업송가의 핵이고 원형이고 본체이다. 여기로부터 인류의 자주위업과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위대하고 격동적인 사변을 맞이하여 마침내 전민족적인 감정과 시대의 지향의 폭발로 혁명송가가 탄생하였다.

원래 위인송가는 력사의 격류속에서 창조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가장 어려운 시련에 부닥쳐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 구원자를 바라는 당대의 념원을 반영하여 지나간 력사의 갈피속에 있는 영웅들을 찬미하여 영웅송가가 나왔다. 인류의 첫 영웅서사시 작가로 전해지는 앞못보는 호머가 손더듬으로 인류의 첫 영웅송가를 엮은것도 계급사회의 악착한 현실속에서 노예로 유린당하는 불행한 인간의 운명을 구원해줄 영웅에 대한 갈망이었고 고구려의 건국시조 동명왕의 창업공적을 송축한 서사시 《동명왕편》이 나온것도 민족대업을 이끌어줄 영웅호걸의 출현을 고대하는 열원에서 나오게 된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수천년 인류가 념원으로만 그려보며 찬미하던 운명의 수호자를 우리 대에 맞이하였고 높이가 우러러 모시게 되었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5천년민족사에서 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지난 3년간의 몽상기간은 시련많은 우리 혁명의 길에서도 가장 준엄하고 첨예한 때였다. 우리에게 대한 적들의 고립압살책동은 전에없이 횡포하고 극도에 달했으며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이 어려운데다가 해마다 흑심한 자연피해까지 입었다.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 타락분자, 동요분자들이 나와 우리 혁명은 내외적으로 총포성없는 가렬처절한 전쟁을 하였다.

류레없이 간고한 이 혁명의 난국을 어떻게 뚫고나아가는가 하는 여기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의 전도도 달려있었다. 바로 이 준엄한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의 모든 중하들 한몸에 걸머지시고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몸소 진두에서 엄혹한 시련을 헤쳐나가시며 최악의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화를 복으로 만드는 력사적기적을 이룩하시였다.

참말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무한대의 실력을 지닌 위인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위인이시다. 그이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사회주의의 운영, 오늘들의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혁명송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곡절많은 급세기를 이끌어줄 령수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전인류적인 감정을 반영하여 고고성을 터치였다. 이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광명성찬가》에서 뜨겁게 송축된 《만민칭송 제동심, 환호성고 진천지》의 시대적, 력사적 대변이다. 만고에 빛나는 위인의 업적을 받아안고 우리는 시대와 력사의 영예가 그대로 문학예술의 영예로 되는것이 아니다. 시대의 영예가 문학예술의 영예로 되려면 위인이 이룩한 업적의 위대함을 감수할수 있는 심장이 있어야 한다. 시대의 위인송가는두뇌의 산물이기전에 심장의 노래이다. 그 심장은 위인에 대한 순정으로만 연소되어야 한다. 그러한 심장만이 먼 후날 단두대에 올라서서 목에 칼이 들어오고 가슴에 날창이 박혀도 이 노래는 위인에게

매혹된 나의 심장이 량심과 도덕과 의리로 더친 신념의 찬가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문학과 심장의 철학이며 작가와 작품의 가치관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탄생과 정은 우리가 주장하는 문학과 심장의 철학, 작가와 작품의 존재관의 진리성을 생동하게 확증하였다.

위인찬가는 서방세계의 영향력있는 언론보도매체들이 놀라움과 감동의 청높은 소리로 말하듯이 최고사령관동지를 신처럼 믿고있는 제일근위병들의 심장에서 장중하게 울려나왔다. 주체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필승불패의 조선인민군대에서 시대의 위인송가가 나왔다는것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신심넘친 사실인가.

오늘 총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당과 조국, 인민의 행복을 지켜나가고있는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운명의 신으로 전적으로 믿고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함이라면 불속도 물속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되었다. 결사옹위의 심장은 방아쇠를 당기면 목표를 향하여 어김없이 나가는 탄알과 같이 어떤 광풍과 회오리바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배신과 변절을 모르며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해서만 높이뛰며 불탄다. 당도 정권도 부강조국도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은 혁명의 진리이다. 지금도 풍운의 자욱력력한 대성산 옛성터에 서면 무사들의 요란한 말발굽소리와 비발치는 화살과 번쩍이는 장검우에 동방의 천년강성대국으로 위용떨친 고구려의 위상이 우렷이 안겨오지 않는다. 하기에 우리는 혁명의 변함없는 벗이고 무기인 총대를 쥐고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근위대오의 심장에서 혁명송가 나오는데 대하여 높은 긍지와 신심을 가지고 특별히 자랑한다.

참으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구름 몰아치고 시련의 바람 불어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과녁을 향해 그 어떤 사소한 편차도 없이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식의 혁명송가, 주체형의 위인찬가이며 장군님을 천겹만겹 에워싸고 결사옹위하며 전진 투쟁, 투쟁 또 전진하는 무적필승의 천만대오, 제일근위병들의 우람찬 진군가이다.

2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사상에서도 제일이시고 령도력과 령도풍모에서도 제일이시며 업적에서도 으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청사와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한 전인민적송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장구한 인류문화사와 유구한 민족사에는 력사와 더불어 송가로 칭송되는 위인들의 공적이 전해지고있다. 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운 위인을 건국영웅으로 칭송하였고 인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헌신한 영웅을 세기의 위인으로 칭송하여 전해왔다. 위인송가의 감화력과 생명력은 위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데 의하여 담보된다. 동시대뿐아니라 먼 후세에까지도 전해지며 칭송되는 위인찬가는 그의 업적과 함께 청사에 길이 빛난다. 송가의 불후성은 업적의 위대성의 빛나는 산아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태양위업의 령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첫 위인상도 우리 장군님이시고 **김일성**조국의 무궁번영을 말할 때 안겨오는 첫 영상도 우리 장군님이시며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열망할 때 우러르는 첫 모습도 우리 장군님이다.

혁명송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의 위대성에 적응하게 가사형상의 범위가 넓고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구도 밑에 창작되었으며 하나의 표현에 세계가 비끼는 여운적이며 웅심깊은 시어의 활용으로 짧은 시단속에 폭넓고 신축성있는 깊은 뜻을 담고있다.

혁명송가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태양위업의 탁월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환희의 감정과 태양위업을 충효일심으로 빛내신 장군님의 위인상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불멸의 혁명송가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태양위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 만민의 열화같은 격정이 충만되어있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로 형상된 혁명송가의 명구절을 되새기느라 먼 그 거창한 시적의미가 숨엄히 떠오르고 그것을 빛내신 령도자의 거룩한 위인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태양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 위업이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20대에 벌써 통탄산마루에 서시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고 시대와 력사앞에 엄숙히 선포하신것이 아닌가. 이 장엄한 선언은 수령에 대한 충효의 가장 고결한 발현인것으로 하여 주체위업의 승승장구성을 상징하는 시대의 의지로 되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효는 필승의 보검이며 혁명의 만능무기이다. 태양의 위업을

빛내이는 근본비결이 철두철미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효에 있다는것,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때 보다 서거하신후 태양위업을 빛내는것이 진짜 충효라는것, 바로 이것이 력사앞에 장엄히 밝히신 우리 장군님의 충효관이다.

김일성민족의 민족적우수성에서 핵을 이루는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필생의 지론이며 좌우명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김일성**민족의 민족적우수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정화하고 계시는 화신이시며 최고전형이며 최고대표자이다.

혁명송가는 위대한 장군님은 절대의 충효관을 지니시고 태양의 위업을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이시라는것을 천만마디의 말대신 간명하고 심오한 시적형상으로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수십성상의 령도력사는 태양의 위업을 빛내신 충효의 최고발현력사이다. 충효, 이는 우리 장군님의 인간상이고 위인상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충효의 폭과 깊이, 높이와 용적, 순결무구성을 보여주는 주옥같은 명언이 여기에 있으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이 집무의 실참에 무렵없이 장군님의 좌우명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의 좌우명은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의 태양이시고, **김정일**은 태양의 전사라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자신을 오로지 태양의 위업과만 결부시키시는 장군님의 금옥같은 좌우명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보다 더 충실히 혁명위업을 빛내어나가자,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림없는 충효자세이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영원히 오직 태양의 위업만을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충효선언이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우리의 장군님이시기에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얼마후 아직도 온 나라가 오열을 터뜨리고있을 때 우리 인민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안겨주시였으며 금수산지구에 주체의 최고성지를 숭엄하게 꾸리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하기에 수령님께서 생전에 기뻐하신 일, 생각하고계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해아리시고 혁명도 건설도 수령님께서 바라신대로 한치의 드림없이 해나가시며 태양의 뜻을 빛내이시는데 심혈과 로고를 깡그리 바쳐가시는것이다.

참으로 혁명송가는 고결한 충효로 태양의 위업을 빛내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의 아버지

시며 령도자이시라는것을 웅건한 정서속에 감명 깊게 칭송하고 있다.

불멸의 혁명송가는 또한 주체의 락원을 가꾸신 장군님의 빛나는 령도업적과 우리 인민을 크나큰 사랑에 한품에 안아키우신 덕망에 대한 감사의 정을 감명깊게 칭송하고있다.

혁명송가를 음미할수록 한평생 주체의 락원을 가꾸신 위대한 장군님의 창조적로고가 가슴뿌듯이 안겨오며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신 장군님의 그렇듯 숭고한 애민관이 폐부에 마쳐와 가슴뜨거워온다. 인민의 락원건설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헌신분투하시는데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 최고의 창조활동원칙이다.

인민을 위해 이룩하신 업적 하늘에 닿고 베푸신 은정 대지에 넘치건만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는것이 자신의 활동신념이라고 하시면서 한생을 바쳐오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락원건설을 모든 사업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로선과 정책작성의 기초로 삼으시고 철두철미 정치의 중심에 인민의 행복을 내세우신다.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언제나 최상의 요구, 최상의 수준, 먼 후날에 가셔도 손색이 없을 리상적이고 완성된 경지의것을 창조하시는데가 우리장군님의 창조기풍이다. 조국땅 한치한치를 다 밟으시며 행복의 락원으로 가꾸시기에 찬이슬과 눈비에 옷깃 적시시며 사철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는 우리 장군님 가꾸신 인민의 락원에서 살며 일하는 보람과 행복, 영예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망국노의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장군님께서 준엄한 난국을 헤치고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 몸소 나서시였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혁명적인생관도 주시고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는 배심과 담력도 안겨주시며 **《고난의 행군》**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신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여 피눈물속에 영영 주저앉을번했던 우리 인민이 용감하게 떨쳐일어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다그치고 오늘도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것은 이렇듯 가장 뜨거운 애민관을 지니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가 낳은 역사적기적이다. 참으로 인민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로고에는 한계가 없으시여 우리는 한평생 인민위해 복무하시며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는 우리 장군님을 저 하늘의 태양이시라고 노래에 담아 부르며 헤아릴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마음속에 새기는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민을 위함이라면 험산준령도 넘고 헤치며 생사의 길에서 운명을 같이하는 숭고한 동지애로 인민을 따듯이 안아키우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제일 사랑하시는데 노래도 **《동지애의 노래》**인것이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눈물이 많으시고 인정이 깊으시지만 인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원수들앞에서는 그토록 단호하고 무자비하신것이다.

불멸의 혁명송가에서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라는 시적형상은 그 어떤 장편의 글로도 대신할수 없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창조적로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절절한 격찬이다.

불멸의 혁명송가는 또한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속에서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보루인 주체조선의 기상을 세상에 떨치시고 세계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계사적공적을 감동깊이 찬양하고있다.

혁명송가는 또한 력사의 동란속에서 조선의 운명만이 아닌 세계의 운명을 맡아 안으시고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를 지키시여 정의의 수호신으로 솟아 빛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감동깊이 칭송하고있다.

우리가 뜻밖의 대국상을 담하고 온 나라가 최대의 슬픔을 겪고있을 때 제국주의련합세력은 비렬하게도 우리에게 대한 공세와 고립압살책동에 혈안이 되어 미쳐날뛰었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준엄한 결전의 시각 용약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판가리싸움의 진두에 나서신 령장은 강철의 담력을 지니신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사회주의광풍이 몰아칠 때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철의 논리로 확증한 불멸의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집필하시고 우리 인민과 세계인류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보증을 안겨주시였다.

혁명송가는 총을 들고 날치는자들은 총대로 다스리고 **《힘의 정책》**에 매달리는자들은 강경자세로 제압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철의 담력을 열렬히 격찬하고있다.

담력이 없는 지도자는 나라가 아무리 크고 총대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공포에 질려 붉은기가 아니라 흰기를 들기마련이며 사회주의를 수호할수 없다는것, 이것이 혁명송가의 가사형상이 여운으로 안겨주는 교훈적인 진리이다. 위대한 령장의 강철의 담력에서만 백승의 총대가 태어난다.

령장의 담력은 어떤 위협과 강권 앞에서도 겁을 모르고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가며 생사를 가르는 마당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비관이 없이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인간정신, 인간지의의 발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담력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배심, 퇴성병력에도 드물지 않으며 천하대적도
 무색케 하는 영웅정신의 위대한 힘, 위대한 의지
 이다.

그것은 백두산호랑이의 기상과 위엄 그대로 천
 지를 진동하는 정일봉의 우뢰소리로 번개를 일으
 키며 먹구름을 몰아내고 눈사태를 내려 천만대적
 을 혼비백산케 하는 백두산형의 담력이다. 전쟁
 을하여 적을 이기기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이기는것이 몇갑절 더 힘든 법이다. 세상 병법에
 도통한 출중명장이라고 력사에 이름을 남긴 사
 람도 병서에서 지략으로 전쟁을 이기는것은 병법
 의 상등이요 외교로 전쟁을 하는것은 병법의 중
 등이요 명기로 전쟁을 하는것은 병법의 하등이라
 고 력설하였다. 전쟁을 하기전에 적을 항복시키
 려면 선묘한 지략, 비범한 예지와 함께 가차없는
 타격, 타협없는 징벌로 멸적하려는 강철의 담력
 과 탁월한 평군술을 체현한 실력가형의 용장이
 나와야 한다.

희세의 그러한 용장은 빨찌산의 아들로서 일찍
 부터 주체전법에 정통하시고 오랜 나날 평군업적
 에 쌓으신 불세출의 명장 **김정일**장군님 한분뿐이
 다.

세계는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대적을 굴복시키
 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철의
 담력과 력사적공적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동서방의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고 간 선대 명장
 들의 평흔을 다 불러낼수 있다면 그들도 우리 장
 군님의 병법앞에서 경악하여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참으로 혁명송가에 부각된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은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
 주의를 지키시고 백승의 총대로 정의를 수호하신
 세계인류구성의 모습, 21세기 태양의 모습이시
 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창작을
 계기로 우리의 문학예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이것은 희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우리 문학예술이 받아안은 특혜이고 긍지
 이며 인류문학이 누리고있는 영예이며 행운이다.

한편의 시가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불멸의 혁명송가는 주체의 붉은 노을이 지구를
 덮을 력사의 그날까지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길이길이 전하며 적의 심장을 꿰뚫는 천만자루의
 창검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만대
 에 울려퍼질것이다.

3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위대
 한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태양민족의 한
 없는 영예와 긍지를 온 세상에 떨치며 사회주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결의를 환호의 열정과
 락관의 정서속에 격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효심을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태양민족의 숭고한 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결의가 풍만한 민족적정서속에서 신심드높이 울
 려나오고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이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으로
 칭송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
 는것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이다.
 이 충효심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신 높은 긍지와 자부심이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실
 지 체험을 통하여 신념과 의지, 량심과 도덕으로
 굳어진 민족적감정, 정서이다.

혁명송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사
 회주의 보루를 굳건히 지켜 세기의 앞장에 보무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역센 기상과 기개
 를 풍만한 민족적정서와 고유한 민족적선물에 바
 탕을 둔 음악형상으로 노래하고있다.

백두대산줄기가 편편히 뻗어내린 아름다운 삼
 천리금수강산에 7천만겨레와 인류의 미래를 향도
 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
 리 인민의 끝없는 환희가 차넘친다. 대지의 천만
 꽃과 동서해의 푸른 물과 더불어 그이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며 내 나라, 내 조국
 을 온세상에 자랑차게 펼쳐가리라는 숭고한 감정
 속에는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충효
 심이 끓어번지고있다. 여기에는 또한 그이의 두
 리에 굳게 뭉친 높은 단결정신,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고상한 혁명적의리와 동
 지애의 정신으로 승화되는 민족적우수성이 특유
 한 민족적감정과 질은 민족적정서에 조영되어 이
 채롭게 확산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반동들이 세계의 《일체화》론을
 휘두르며 세계를 지배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남조선피괴들이 《세계화》의 간판을 내걸고 민족
 의 뉘를 짓밟고있는 현시점에서 민족자주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성을 고수하며 **김일성**민족의 우수
 성을 만방에 펼쳐나가는것은 사회주의를 옹호고
 수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참으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는 단군겨레의 슬기와 뉘를 자랑차게 이어온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통일된 삼천리강산
 에 꽃피우며 위대한 장군님 한분만을 따라 주체
 의 한길로 드팀없이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투
 철한 신념과 의지를 참신하고 순결한 민족적정기
 와 질은 민족적향취에 담아 장중한 선물로 폭이
 있고 웅심깊게 칭송한 송가중의 송가이다.

불멸의 혁명송가는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랑만적서정을 통하여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노래에 차넘치는 혁명적랑만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통같은 신념과 의지에서 우러나오고있다. 이 신념과 의지는 우리의 시대의 랑관, 우리 시대의 랑만으로 정화되고있다.

우리 시대의 랑만은 행복한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아기의 고르로운 숨소리도 아니며 유보도 강가를 거닐며 로동의 희열과 미래를 언약하는 청춘들의 속삭임도 아니다. 우리 시대의 랑만은 원수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를 력력히 보는 붉은기의 랑만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봉쇄의 광풍이 사나운 격랑을 몰아오는 망망대해우에서 시련의 절정에서 분출된 랑만이다. 이것은 령하 40도들 헤아리는 자연의 횡포와 기아를 씹으며 눈보라천리길을 헤쳐 북대정자로로 진군하던 고난의 행군못지 않는 초포성없는 전쟁, 신념과 의지의 전쟁속에서 격발된 철의 신념이다.

온 조국땅이 추대환호로 들끓던 지난해 9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대와 인민이 드리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시각마저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진 구월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신비로운 절정을 이룬 어느 한 폭포에 이르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바위벽에 씌여진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는 글발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격하신 음성으로 이것이 우리 병사들의 랑만이요, 길지 않은 이 글에 조국의 미래에 대한 우리 병사들의 사랑과 확신이 얼마나 뜨겁게 비껴있습니까라고 말씀하시였다.

고금에 없는 시련을 헤치며 위대한 장군님따라 결사의 싸움의 나날에 실천적진리로 체득된 우리의 랑만이야말로 백두의 랑만, 우리 장군님식 랑만이다. 우리 장군님식 랑만은 지구가 동강나고 천하가 뒤집힌다 해도 추호의 비판이나 동요없이 맞받아 뚫고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웃으며 이겨내는 담력의지, 랑관의지이다.

불멸의 혁명송가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감격과 환호와 격정의 파도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대공에 나래퍼고 사회주의의 기치, 자주주의 기치높이 새 세기를 굽어보며 확실성있게 나아가는 조선의 기상, 장군님의 위상이 거창하고 무한대한 랑만에 실려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돌이켜보면 공상적사회주의리념의 언덕에서 인류의 리상세계를 바라보며 새 세기의 진로를 모색하던 선각인사들의 랑만은 오리무중속에 시대를 역행하는 세파에 밀려 한갓 허망한 공상으로 밖에 남지 않았다. 초가삼간에 랑친을 모셔 복락을 누리려던 소박한 념원도 림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가공한 소원도 수난받던 세월의 눈비에 씻겨 눈물속에 상처만 남기였다. 5천년단군사의 갈피속에 강성대국으로 솟아있던 고구려무사들의 장검에 비낀 승전의 기상과 랑만의 빛발이 세월과 더불어 사라져갈 때 이국의 하늘가에 피를 뿌리며 할복으로 독립을 절규한 우국지사들, 오욕의 국치일을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통탄하며 순국한 의로운 애국자들, 3.1의 애국장거, 6.10만세로 원성을 터치던 불쌍한 백의동포들의 념원은 갈수록 포악한 탄압의 칼부림에 눌리우고 찢기여 망국의 비가만 엮였다. 두만강기슭엔 향방없이 배회하는 사람들의 물결만이 더해가고 빼앗긴 강토우엔 망향의 서글픈 노래만이 처량하게 흘러갔다.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랑탈,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당쟁과 파벌, 사대매국행위로 하여 남달리 수난많은 암흑의 캄캄한 밤길을 걸어야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한줄기 빛을 바라는 념원은 너무나도 소박한 랑만의 색조였다. 하여 울밑에 선 봉선화의 처량한 모양에 비쳐 가련한 순명을 하소하는 그 구슬픈 선물에도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곱게 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결 차린 고향산천을 그리는 애절한 향수에도 한가닥 빛에 대한 그리움이 비졌으니 그것은 불쌍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시대의 영웅, 만백성의 구세주를 바라는 당대의 랑만으로, 정서되였다.

삼천만 인민이 가슴치며 통탄하던 암담한 그 시절 전설의 영웅 **김일성** 장군님께서 해방의 구세주로 높이 솟아오르시고 백두의 녀장수께서 어둠을 몰아내는 충성의 해발이 되시여 민족의 마음에 려명의 밝은 빛이 안겨왔고 조선의 대통령을 **김정일** 장군님의 탄생으로 조선의 앞날은 창창히 밝아왔다. 그때로부터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 세기를 향도할 위대한 태양을 모시고 그 빛발따라 환호의 격정을 터치며 궁지높이 나아가는 우리인민의 이 영광, 이 행복, 이 랑만이 샘솟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우리 시대의 랑만이야말로 세기의 랑만이 루적한 절정우에 높이 솟아난 비약의 총화이며 절대적 정화이다. 21세기의 령장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는 그 어떤 랑풍속에서도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부동한 신념, 랑만이 곧 우리 시대의 랑만이며 불멸의 송가의 가사와 선률속에 뜨겁게 맥박치는 시적열정, 시적정서이다.

오늘 사상의 영재, 령도의 거장이신 려사의 걸출한 위인 **김정일** 장군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민족의 부흥과 후손만대의 무궁번영도 확고히 담보된다는것, 이것이 려사의 진로를 헤쳐오는 과정에 삶의 철학으로 체득된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이며 한결같은 결의이다. 이것은 흥망성쇠로

얼룩진 5천년 단군사의 피의 교훈이며 력사의 시련과 난관을 뚫고 힘있게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총회에서 발산한 시대의 서정이다.

바로 이것이 불멸의 송가가 시대앞에 절절히 토로하는 기본문제성이며 사상정서적주장이다.

×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창작을 계기로 우리 문학예술의 위력은 백방으로 과시되었다.

우리 문학예술은 수령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근본사명에 맞게 그 본색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혁명적원칙에서 단0.001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오직 우리 식대로만 정바르게 나아가는 문학예술의 예술지상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요소와 《개혁》, 《개방》과 같은 황색바람이 조금도 범접할수없는 문학예술이라는것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그것은 회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우리 문학예술이 받아안은 자랑이고 긍지이며 특혜이다.

지금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만민의 폭풍같은 환호성은 그이의 위인상에 매혹된 7천만겨레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심정에서 폭발되어 온 지구를 휘감으며 행성에서 행성으로 높이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문무재덕을 겸비한 50대의 출중한 정치원로, 회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동터오는 새 세기의 령수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21세기의 태양찬가《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하고있는 김일성민족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영광찬 이 길에서 불멸의 혁명송가는 자주위업의 승리의 진군가, 미구에 도래할 21세기, 김정일문예시기의 위대한 서곡으로 장중히 울리게 될것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여, 세찬폭풍이 되고 우리가 되어 지구의 한끝에서 한끝까지 세기와 세기를 넘어 더욱 힘차게 울려가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사향산의 달밤에

김문철

못잊을 추억의 길 환히 비쳐주려
그리도 밝은 빛 뿌리느냐
사향산마루에 등실 솟은 달아

그날도 이렇게 밝았지
간백산을 내리신 우리 수령님
조국땅 북변
이 산마루에 오르셨던 그밤

해방의 날을 눈앞에 두시고
몸소 정하신 조국진격로
마음 먼저 헤쳐보실 때
너는야 밝게 비쳐드렸지

말해다오 등근달아
만세의 합성 터치며 물결쳐가는
그 대오를 그려보시는듯
그 길을 환히 열어주시는듯
언덕넘어 숲을 헤쳐 걷고 걸으시던
뜻깊은 자욱자욱 어데 새겨있느냐

한걸음 또 한걸음
후더운 생각안고 걷는 이 마음엔

보여오누나 이 길 넘어 저 멀리
우리 수령님 사선의 고비를 헤치시며
앞장서 걸으신 오가자와 고유수의 길들이
력사에 류레없는 고난의 행군길이

해방은 되었어도 또다시 걸으신
폐허의 구내길이며
포탄 튀는 전선길이며...
혁명의 대오를 이끄시고
진두에서 헤치신 길 몇천 몇만리던가

아, 그 길의 한구간을 걸으며
뜨거웁에 젖는 마음이며
이렇게 헤치신 불멸의 자욱따라
우리 혁명의 넓은 길이 열리고
행복의 꽃물결은 흐르는것 아닌가

비쳐다오 더 밝게 비쳐다오
걸음걸음 발걸음앞엔
그날의 자욱 비치여주고
가슴속엔 환히
수령님 한생의 길 비치여주는
달아, 사향산의 등근달아



장군님의 리상

인민이라는 이 말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색과 활동의 전세계가 비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지상의 목적에 지향되고있으며 그이께서는 바로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피로도 잊으신다.

주체71(1982)년 6월초순 어느날이었다.

그날저녁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 몇몇 일군들이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업이 바쁘시여 식사를 못하고계시던 그이께서는 마침 잘 왔다고 하시면서 겸손하게 차린 식탁으로 일군들을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손에 먼저 수저를 쥐여주시고서야 자신께서도 수저를 드시며 천천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인민을 생각합니다. 색다른 음식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민들을 잘먹이고 잘입히고 잘살게 하는것이 나의 리상입니다.》

그러시고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계속하시였다.

《간부들은 언제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인민들을 생각하여야 하며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차례지게 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색다른 음식을 먹을줄만 알고 인민들을 생각할줄 모르는 간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시고는 수령님께서 늘 교시하시느바와 같이 간부들은 자기가 배부를 때 인민들이 배고파하지않는가 하는것을 생각하여야 하며 자기가 따뜻하게 지낼 때 인민들이 춥게 지내지 않는가 하는것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간부라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인민의 충족이 될수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순간 한 일군에게는 10여년전에 있었던 한가지 일이 가슴뜨겁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가극혁명의 력사적위업

이 수행되고있던 그 나날의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날 혁명가극 《피바다》의 시연회가 끝난 뒤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가극을 본 감상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저마다 새로운 혁명가극을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의 새로운 혁명가극의 특징에 대하여 여러가지 귀중한 말씀을 하시다가 문득 가극의 한 장면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볼 때마다 주인공인 어머니의 노래를 무심히 듣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올남이와 갑순이에게 범벅을 해먹이는 장면은 생활적으로 잘 형상된 장면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올남이는 아무 생각 없이 범벅을 먹지만 갑순이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범벅을 따로 감추었다 줍니다. 이러한 자식들을 놓고 하루에 밥 한끼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피바다>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범벅조차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파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피바다》의 어머니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그 노래를 부를때마다 우리 일군들은 지난날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오늘을 생각해야 하며 자기가 인민의 충족으로서 인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하여 제대로 일하고있는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당이 인민을 생각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인민이 당을 사랑하게 되여야 우리 당이 진정으로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

님.

진정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시여 고난도 기쁨도 인민과 함께 나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말씀이었다.

한 일군이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을 돌이켜보며 자책감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금 우리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지 못하고 있는것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일군들에게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간부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며 참다운 인민의 심부름꾼

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인민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깊은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수 없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칠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락원의 이 강산에 자신의 숭고한 리상을 더욱 활짝 꽃피우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계신다.

진정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끝이 없듯이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려와 로고에는 끝이 없는것이다.

헌시

알렉산드르 안드리쑤유

공원의 도시 평양에
밝은 햇빛이 찬란히 비치네
평양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안겨
평양에 온 외국손님들 정다운 제 집에 온듯
우리 로므니아사람들도 그리운 제 집에 온듯

심금을 울리며 높이높이 일떠서는 이 아름다움
따뜻하고 평화롭고 인정미 넘쳐흐르는 이 아름다움

이 모든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몸과 마음 온 심혈을 부어
유구한 조선의 땅우에 일떠세우신것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로고를 바치시여
몸소 마련하신 그 기초우에
김정일동지 하늘가득 창조의 기념비를 일떠세우시네

주체의 사상으로 미래를 황금나락같이 가꾸시려고
가장 아름답고 궁지높은 미래를 꽃피우시려고

내 묻노니 이 아름다움 어디서 솟아나는가
천재의 예지를 지니신 세기의 위인
위대한 철학의 거장 **김정일**동지
위대한 철학으로 인민을 령도하시기에
조선은 걸음마다 백전백승 떨치네

창공을 치달아오르는 천리마따라
우리들의 꿈도 끝없이 나래치네
우리들을 귀빈으로 맞아들인 이 땅우에서
백화만발하고 노래 가득찬 이 땅우에서
아 우리들은 마음속에 위대한 태양을 모시네

(필자는 로므니아 시인임)

백두산 달맞이^{외 1 편}

리찬영

달맞이 달맞이
백두산 달맞이는
세상 희한한 밤경치라오

보름달이 솟는 밤에
백두산정에 올라서면
동해바다에서
금방 세수하고 일어서는듯
환한 달이 솟는다오

그러면 백두산 드넓은 벌은
천리만리로 은세계주단 펼쳐지고
그우로 헤엄쳐 오르는듯
달은 훨훨 날아오르오
그러면 그 달빛을 타고
별들은 쏟아져내리는듯

삼라만상이 다 잠든
백두의 고요한 정적속에
옛날 별궁의 선녀들처럼
천만별들 천지물에 내려와 노는듯
자글자글 넘치는 별무리 별무리

그러면 달은
솟아오르다 귀를 기울인다오
별들도 백두광명성 솟은 백두산에 모여

더 반짝이며 속삭이는 소리
다 가슴에 안아보는듯

천하제일 신비경속에
빛나는 백두광명성 빛발
달빛에 다 실어가는 기쁨
그래서 달은 동서만리에
찬란한 빛을 더해가는듯

그 빛 한가득 안아올수록
우리 장군님 모시고 사는 자랑
금지로 기쁨으로 넘쳐
마음은 후련해지오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 달맞이를 봐야
백두산을 다 보았다 말한다오
진정 백두산 달맞이는
한번 보면 일생 행운이라오

아름답다 하기엔
너무나 신비롭고
신비롭다 하기엔
너무나 황홀한
아 백두산 달맞이경치라오

천지호반의 만물상

금강에만
만물상 있다더나
이 나라 상상봉 천지호반에
백두산 만물상 멋이로세

우뢰치던 퇴성벽력도
금시 잠들었는가
고요한 수면우에
불멸의 항일사가 깃들어
불수록 승엄하구나

병풍처럼 둘러선 기암절벽에
아침해돋이 장쾌함이
은보라빛 안개를 걷어올리면
백두산의 제일자랑이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지네

먼나라에서 산다는 락타가

백두산에 와서
절승경개 하도 희한해서
바라보다가 그만 돌로 굳어졌다는
저 락타봉

곰바위아래엔
한여름인데도
백두의 설경속에
그윽한 만병초 금매화가 웃네

봉마다 계곡마다
비낀 천태만상은
내 나라 금수강산 삼천리가
에서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강산이 된줄
다시금 깨우쳐지네

백두산만물상이여
하많은 뜻과 노래속에 실려

나도 바라보다가
그만 굳어질듯

우리 장군님 이룩하신 위업
아름다움으로 길이 전하자고
위대함으로 길이 빛내자고
백두의 상상봉에 솟아난
천지호반의 만물상이여

이 세상 제일 황홀경으로
이 세상 제일 신비경으로
온녘을 다 빼앗누나

아, 그래서 백두산은
명산중의 명산이 아닌가
천하제일경
혁명의 성산이 아닌가

기다리는 만경대

리연희

이밤도
초가이영아래선
기다림에 등잔불도 타고있을듯
사립문가에 다가서면
사르륵 사르륵
정겨운 물레질소리마저 들릴듯

수난의 검은구름 무겁던 그날
이 프락을 나서신 걸음
어느 한분 쉬이 돌아오셨던가
피어린 혈전과 가슴아픈 희생을 넘어 넘어
조국이라는 크나큰 프락을 다 안고 나서신 걸음
이어서

프락의 살구꽃 피고 지고
대동강의 얼음이 얼고 풀릴 때
기어이 오고야 말 그날을 믿어
아들들 손자분들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안고 오고야 말 해방의 날 믿어

잠못드셨다 할머니께선
파발리에 총소리 울린 그날도
풍산을 지나 리원, 홍원을 또 지나
해방의 그날을 안고 여기 만경대로
김형권선생님 들어서실것만 같아
만경대의 자제분들
호호탕탕 웃으며 들어서실것만 같아

오리라고 기어이 돌아오리라고
할머님은 믿으셨다
정갈한 프락도 다시 쓸어놓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
그 억세인 기상을 안아보시며
인민의 마음
온 나라의 마음을 합쳐
사립문마저 닫지 못하신 기다리는 만경대

하기에 선생님도
김형권선생님도 돌아오시였다
철창속 그 살을 지지던 불판도 이기고
시퍼런 못판도 디디고 넘어
수령님의 혁명로선 결사로 받들어
조국해방성전에 한목숨 바치였어도
끝까지 지켜온 신념의 한생으로
이 마음 따라 세워주는 불굴의 한생으로

믿지 않으시였다
서러운해 그 짧은 생으로
김형권선생님은 가실수 없노라고
길이 믿으시였다
돌아오리라 기다리는 만경대로
이 사립문으로 기어이 들어서시리라

그래서 이밤도
할머님은 사립문을 열어놓으신채
온밤 등불을 끄지 못하고
물레질소리마저 저어하시며
이내 발자욱소리에도 귀기울이시는것만 같아

내 선뜻 들어설수 없구나
이 나라의 위대한 아들들
성스러운 자욱으로 이어져야 할 저 프락
돌아오지 못했어도
다진 맹세, 억세인 그 신념을 지킨
그 녀으로 뜨거운 이 프락에
그 어이 선뜻 들어서라

내 걸으리라
이 사립문을 나서신 불멸의 자욱을 따라
조국이 기다리고 인민이 기다리는
빛나는 삶의 길을
끝없이 끝없이

숭고한 애국의 의지를 지니시고

어느덧 단풍계절이 왔다. 이 나라의 산과 들 어디서나 곱게 물든 단풍잎새들이 서늘한 미풍에 가볍게 설레이며 그윽한 정취를 자아내는 단풍계절.

밝은 태양이 눈부신 빛을 뿌리는 저 푸른 하늘, 이 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태양의 빛을 받아 단풍이 불게 타는 이땅.

정녕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름다운 이 강산이 바로 내가 사는 내 나라,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왔고 우리의 후대들이 자자손손 반복을 누리며 살아갈 내 조국이라는 생각에 가슴뿌듯해지고 심장이 후터워진다.

조국과 민족,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으로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이어서 이리도 우리의 심장 뜨거워지고 숨결 또한 높뛰는것 아니라.

세기를 두고 락후와 빈공의 검은 구름만이 무겁게 서리었던 이 땅우에 누구나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세워주시기 위해 생애의 순간순간을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 오신 아버지 수령님의 한생의 자욱자욱이 깃들어있는 내 조국.

아버지수령님의 그 숭고한 애국의지를 그대로 이으시고 수령님의 한생의 유산이 깃든 이 땅우에 더욱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뜨거운 심장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의 자욱으로 빛나는 내 나라, 내조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그러한 장군님이시기에 이 땅에 자라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그저 무심히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번영하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후대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부로 생각하시는것이다.

지난 5월 3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속에서도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고산군의 설봉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명승고적 석왕사를 찾으시였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귀중한 유적의 하나인 석왕사가 위치한 이 일

대는 병치료에 효험이 높은 약수와 수려한 산천 경계로하여 오래전부터 명승지로 알려져오고있다.

봄이 한창 무르녹는 때여서 석왕사는 신록에 묻혀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골짜기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근로자들의 휴양 및 료양지로 더 잘 꾸릴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고나시여 석왕사의 마당에서 잠시 주변의 경치를 부감하시였다.

하늘이 보이지 않게 꼭 들어찬 울창한 나무들이며 여기저기 울긋불긋 피어난 꽃들, 봄바람에 실려오는 유정한 물소리며 온갖 새들의 아름다운 지저귂소리... 참으로 아름다운 절경이였다. 그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청신한 푸른 숲은 유명한 약수와 더불어 석왕사의 자랑이기도 하였다.

《**석왕사에는 이름난 약수가 있을뿐아니라 진귀한 나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인민들이 휴식하기에는 아주 좋은곳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백년은 실히 자랐다는 한그루 느티나무가까이로 다가서시였다. 하늘높이 창창히 가지를 펼친 느티나무는 훈풍에 푸른 잎새를 가볍게 떨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무성하게 자란 느티나무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원래 석왕사에는 느티나무가 많은것이 특징이였다. 느티나무는 보통 30미터씩 자라는데 나무모양이 보기 좋을뿐아니라 나무결과 빛갈이 곱고 단단하여 예로부터 귀중한 가구재와 건축재로 널리 리용되여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석왕사에 느티나무가 많은데 느티나무풀이라고 부를만하다고 하시면서 관상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쓸모가 많은 이 나무의 유익성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해주시였다. 그러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느티나무림을 도처에 조성하면 풍치도 더욱 아름다와지고 나라의 채부도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석왕사의 느티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 씨를 많이 받아 전국각지에 심어 온 나라에 느티나무림이 설레이게 합시다. 그러면 수십년, 100년후에는 우리 후대들이 덕을 보게 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일군들에게 느티나무를 대대적으로 번식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몸소 가르쳐주시었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은 가슴이 확 달아올라 숙연한 심정으로 장군님을 우러렀다.

100년후...

그때는 우리의 먼 후대들의 세기다. 하지만 **김일성** 조선의 무궁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사색과 활동의 전부를 바치고계시기에 한그루의 나무를 보시면서도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시며 후대들의 행복을 설계하시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보이신 아름답고 행복한 래일을 안고 느티나무숲도 기쁨에 설레이는 듯 석왕사곶안에 정다운 숲소리가 은은히 흐르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정겨운 시선으로 느티나무숲을 다시금 바라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는 어디 가나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귀중한 강산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시었습니다. 금수산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꽃피워주시어 우리 조국 강산은 말그대로 금수산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아름다운 산천을 더욱 풍만하게 가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설레이는 느티나무숲을 천천히 걸으시었다.

이제 조국땅 방방곡곡에 뿌리내려지고 무성하여질 새로운 숲을 그려보시는것인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락원으로 꽃핀 조국땅에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갈 먼 후대들의 기쁨을 안아보시는가 석왕사의 온 골안이 환해지도록 밝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이 땅의 모든것을 조국과 민족, 후대들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 밀천으로 보시고 더없이 사랑하시며 귀중히 여기시는분, 우리의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대를 이어 살아왔고 우리의 후대들이 천만년 살아갈 내 조국,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걷는 강행군길, 이 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드팀없는 애국의 의지로 총만된 길이며 **김정일**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이다.

우리는 이 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할것이며 그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 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명언해설

《창조가 없는 웨침은 비없는 우리와 같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어떤 실천적성파도 내놓지 못하면서 말공부나하고 빈구호만 웨치는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우뢰가 울면 비가 오고 비가 와야 오평백과가 푸르싱싱하게 자라게 된다. 우뢰만 울고 와야 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우뢰가 아무리 요란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호만 요란하게 웨치고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한다면 그 구호는 빈말공부

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인간생활은 빈말공부가 아니라 실천투쟁을 요구하며 혁명과 건설은 요란한 구호와 허풍이 아니라 실속있는 성과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빈구호를 웨치며 허풍을 칠것이 아니라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 실제적인 사업성으로 당을 받들어나가는 진짜배기 충신, 효자가 되여야 한다.

시초

군민의 노래

전선

황승명

무연한 벌로 뻗어간 동쪽에
민들레 곱게 피여 반기고
맑은 하늘에 종다리 우짖는
여기를 우리는 전선이라 부른다

인민군대 나팔소리에 이어
농장의 종소리가 울리고
우렁찬 군가에 어울려
프락토르발동소리 퍼져가는 여기

포전마다 웃음소리 높다고
여기를 후방이라 생각지 말라
오곡을 가꾸는 푸른 전야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정예의 사단들이 왔다
철의 군단이 왔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었거나
원췌와 대결한 준엄한 나날에
총잡은 군대가 농사를 지어
인민에게 더 많은 쌀을 주라고
최고사령관이 명령을 내린 나라가

장군님의 그 뜻을 뜨겁게 새기며
우리는 알았다
조국의 강행군길에

총탄보다 가볍지 않은 쌀의 무게를
우리는 알았다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떨치는 군민일치가
그 어디에 뿌리내려져있는가를

아 논머리의 야전전화가
최고사령부에 이어지고
농사일의 하루하루가
전투일보로
위대한 령장에게 보고되는 여기

철령너머의 최전연병사들이
무적의 땅크병들 용맹한 포병들이
철령을 넘어와 푸른 벌을 가꾸며
피처럼 진한 더운 땀을 바쳐가는
여기는 전선
불타는 전선

풍년길을 열어
조국앞에 최후승리의 대통로를 열어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친솔병사들이
푸른 대지를 가꾸는
여기는 우리의 전장
결전의 1211 고지여라

우리의 노래는 군민의 노래

김명철

오는 정 가는 정 노래에 엮여
노래와 함께 푸른 모 옮겨간다
노래가 한줄이면 푸른 이랑 한줄
군민이 함께 풍년가락을 골라
드넓은 농장벌에 푸른 주단 펼친다

병사의 은은한 그 음성 타고 울리는
농장처녀의 노래소리
벌가의 종다리 그 노래 받아 우짖고

숲가의 빼꾸기 그 노래 넘기여 구성진 벌에
군민의 정이 푸른 주단을 짜고 짠다

백리물길 다 열기전에는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던 병사의 그 노래
구월산 칠보산 명승의 봉이마다
새겨온 위훈의 그 시도
푸른 모에 옮겨 이 대지에 수를 놓아간다

수를 놓자 수놓아가자
 처창즈보리밭의 그 설레임
 전승을 불러오던 직동령의 방아소리
 고향의 저 앞산 무명전사묘에
 날마다 들꽃 한송이 정히 놓고가는
 단발머리처녀의 그 진정도

추억도 뜨거워
 생각도 깊어지는 오늘의 저 가락을
 대지에 누벼가리
 동트는 그 새벽 이 별을 찾아주셨던
 수령님의 그 자옥 새겨안으시고
 장군님 오시는 날 풍년가로 펼쳐드리리

그날은 해빛도 따사로우리
 그날은 바람결도 부드러우리

농장별 끝에서 끝까지 걸으시며
 장군님께선 정답게 들어주시리
 군민포전의 풍요한 설레임에서
 끝없이 울려오는 군민의 송가를

군민을 손잡아 이끌어
 한품에 안아주시는 우리의 장군님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군민이 부르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

계절따라 흘러갈 노래가 아니여라
 영원한 이 땅우에 길이 새겨져
 영원한 땅과 함께 대대로 부르며 살
 우리의 진군가여
 시대의 메아리여

병사의 모표에 이삭이 있다

고남철

푸른 들 푸른 별
 밭머리에 앉아
 병사는 땀젖은 군모를 벗어
 모표를 닦네

붉은 별 두리의 금빛벼이삭에
 하늘의 해빛은 눈부시게 내리고
 애젊은 병사의 량불엔
 행복의 웃음이 어리네

환희로우리 환희로우리
 억세게 총을 잡고
 조국을 지키는 병사
 어머니대지 그 천만이랑을 다 가꾸어
 조국에 행복의 금나락을 엮어주는 그대여

오 군모에 빛나는 황금이삭이여
 병사는 그 이삭을
 땀으로 빚어야 한다면 땀으로
 피로 익혀야 한다면 피로 익혀
 대지에 끝없이 펼쳐가나니

그대는 내 조국의 수호자
 이 땅에 부강번영을 안아오는
 락원의 창조자
 그 누가 병사처럼
 이 땅을 사랑하랴

조선인민군 병사의 모표에 이삭이 있다!

시내가에서

리명옥

저녁노을 곱게 물든 시내가에서
 농장의 두 처녀 소곤소곤 이야기하네

-오늘도 밭이랑 돌을 타고 김을 매던
 아니 글썽 그 병사가 중대에선 막내래

돌돌돌 흘러가는 맑은 시내에
 찰랑찰랑 넘치는 처녀들의 이야기

-정말 대단해
 그 병사가 안변의 백리물길도 열었대
 들끝에 저녁해는 활활 불타고
 처녀들의 이야기도 활활 불타오르는데

-그 병사들이 구월산의 절벽에 글발을 새겼대-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 해 1997》이라
 고...

맑은 물 맑은 시내 끝없이 흐르고
도란도란 처녀들의 이야기도 끝이 없네

-우리의 장군님이 아신대
그 병사들이 우리 농장에 왔다누나!...

여름밤의 서정

김정철

앞내벌에 모내기 끝내고
우리는 나란히 동쪽길 걷는다
휘영청 달도 밝은 이밤
병사여 그대와 나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잠 못이룬다

그 어느 전선길에 계실가 우리 장군님
하늘가에 드리운 아득한 령길
내리는 밤안개는 어떻게 헤치실가
우리 마음 그 안개 헤쳐도 보고
가다가다 푸른 강 막아서면
우리 마음 다리가 되어 그 길을 받들고

날과 달을 이으시는 전선길의 차창가에
이 푸른 벌을 펼쳐가고싶어
한순간이라도 즐거움이 되시라
오곡이 우썩우썩 마디를 뽑는
들의 저 설레임소리를 날라가고싶어...

아, 금나락 설레이는 가을을 불러
우리 함께 씨레치고 모를 내며
두령과 두령을 참호처럼 넘으며
만풍년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오늘에
더더욱 그림구나 어버이장군님이

내리는 달빛에도 그리움은 실려온다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에도 그리움이 실려온다
이랑이랑 논고를 넘는 저 물소리처럼
그대의 가슴에 내 가슴에 가득차
한뼘으로 흘러가는 그리움의 그 물소리...

벌써 별들도 퍼그나 머물었다
깊어 깊어가는 들판의 고요
그 고요를 깨치며 문득
장군님 가시던 전선길 에돌아
저기 동구길로 들어서실듯

그리며 따르는 그 마음우에서
이랑마다 푸른 잎들은 우거지고
그대와 나 군민의 뜨거운 정도
탐스런 이삭으로 무르익으리

아, 우리 장군님 우리 아버지
우러르는 한마음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이 땅의 가을은 오거니
여름밤이여!
그리움의 밤이여!

한밤의 소나기

한원희

소나기 소나기 봄소나기
한밤에 내리는 세찬 소나기
논물이 불어나면 어쩔가
종을 쳐서 농장원들 깨울가
분조장처녀의 가슴을 두드리는 소나기

아이참 내 무슨 생각이람
종소리 울리면
마을건너 병사들이 깨여날텐데
군대동무들을 쉬워야 해
군대동무들을 쉬워야 해
처녀는 조용조용 집집의 문을 두드렸네

×

소나기 소나기 봄소나기
중대천막우에도 쏟아지는 소나기
어린 모 떠내려가지 않을가

중대비상나팔을 울릴가
중대장의 결심을 재촉하는 소나기

헛참 내 무슨 생각을
비상나팔소리 울리면
농장원들이 깨어나 종을 치겠지
농장원들을 쉬워야 해

농장원들을 쉬워야 해
중대장은 조용조용 기상명령 내렸네
X
소나기 소나기 한밤의 소나기여
이런날 이런밤이

백날이던가 천날이던가
아 푸른 물 푸른 대지를 가꾸는
군민의 마음속에 해가 솟는다
내 조국의 아침이 밝는다

군민일치사상 만세!

김휘조

푸른 보폭에 올라서니
이 가슴도 넓어지는가
아득한 별을 다 안고 빛발치는 구호
《군민일치사상 만세!》

해빛이 쓰다듬는다
보물도 비껴담고 출렁인다
들너머 저 산너머
안변에 높이 솟은 만년언제가
향산으로 곧추 뻗은 대통령이
저 굴밭을 높이 받들어올렸구나

내 마음 왜 이리도
뜨거웁에 젖느냐!
귀기울이면, 조용히 귀기울이면
멀리 저 멀리 량수천자의 강가에서
우리 수령님 얼음을 깨내시던 도끼소리도 들릴듯
평양의 만수대에술극장 그 무대에서
방선의 군인가족들이 목메여 부르던
그 노래소리도 들려올듯

푸른 이랑 나란히 가꾸어가는
저 병사와 처녀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불속에서도 봄씨앗을 뿌리던
처창즈의 그 발이랑이 보일듯
소담한 첫물딸기 바구니에 따안고
병사들을 찾아가는 저 처녀를 따라가면
탄약상자 이고지고 포연탄우를 헤치던
남강의 푸른 물굽이에 이를듯

우리 걸어온 먼길을 돌아보아도
우리 걸어갈 먼길을 바라보아도
내 나라는 저 구호의 한뜻으로
만난을 이기며 승리한 나라

걸음마다 또 승리할 나라

수령님의 한생의 력사가 어려있고
우리 장군님 오늘도 빛내가시는
군민일치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잃으면 씨뿌릴 땅도
거두어들일 이삭도
내 사랑하는 조국도 없나니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내 나라는 군민일치의 나라
그 뜻으로 산천을 지키고
행복을 굳게 지키는
내 나라는 사회주의 금성철벽

밝은 웃음이 끝없이 피어나는
우리 삶의 웨침이다
그 어떤 핵탄도 이기는
우리 힘의 웨침이다
원썬들의 봉쇄를 짓차며 나가는
우리 혁명의 웨침이다
《군민일치사상 만세!》

백두의 성산에 뿌리내린
그 군민일치는
영원한 우리의 기치
장군님의 기치

내 나라, 내 조국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펼쳐가는
아, 우리의 억센 기상
영원한 승리의 선언이다
《군민일치사상 만세!》

(주체87. 6. 10)

뒤집혀진 땡크

《팀 스피리트》인지 《팀팩》인지 아니면 《독수리》, 《방패》, 《을지-포커스렌즈》인지 군사훈련의 이름도 하도 많아 어느 군사연습때 있는 일인지 딱히는 알수 없다고 한다.

하여간 남조선에서 미군과 피뢰군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던 때 분계선 가까운 서해안 어느 지방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파주군이 아니면 양주군으로 짐작된다.

어느해 마가을, 미군과 남조선피뢰군의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고조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국에서 새로 들어온 신형땡크가 비탈길도 아니요 경사지도 아닌 평탄한 길에서 뒤집혀진 사건이었다.

만전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한 이전 쏘련제 《떼-72》땡크를 눌러놓았다는 미국의 《엠-60 에이 3》땡크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라는 신형땡크가 평지길에서 어떻게 뒤집혀졌을까?

이것은 1916년 영국에서 첫 땡크가 만들어진 이래 오늘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 특이한 사고였다.

지상전에서 땡크를 기본으로 여기였던 히틀러의 본을 닮았는지 미국의 군사자들은 언제부터 가장 위력하고 현대화된 《리상적인 땡크》를 만들 것을 꿈꾸고있었다.

미국방성은 제네랄 다이내믹스, 보잉, 록히드, 뉴포트류스 등 대규모 10대군수산업대독점체들에 이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모든 군수산업이 총동원되어 가장 강력한 땡크로 알려진 이전 쏘련의 《떼-72》와 기동성이 제일 좋다는 도이칠란드의 《에이-4》 그리고 가장 가벼운 땡크인 프랑스의 《이엘씨》의 우점을 모두 합친 최신형땡크를 만들었던 것이다.

미국은 시제품으로 만든 3대의 땡크중에서 1대를 극비밀리에 남조선에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시켰다.

그런데 그 땡크가 뒤집혀졌으니 미국방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그 소식을 듣고 온밤 자지 못한 것은 과연 그럴만한 일이었다.

참으로 복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그러나 극비밀리에 진행된 일이라 보도매체들은 전혀 알수가 없이 세상에 소문이 나지 않았다.

철저한 보도관제속에서 진행된 신형땡크의 시운전이 예상밖의 실패로 돌아가자 국방성은 그 즉시 합동참모본부 장성의 인솔하에 설계자와 총

제작자로 구성된 특별대표단을 남조선에 파견하였다.

땡크설계에서 자기 이상이 없다고 자처하는 스미스와 총제작자 찰스는 비행기좌석에 나란히 앉았으나 서로 말이 없었다. 이따금 서로 마주치는 눈길엔 상대방을 질시하는 빛이 력력히 알려였다.

《찰스, 당신이 설계대로 똑똑히 제작하였다면 왜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겠는가?》

스미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스미스, 당신의 설계에 결함이 없다면 왜 도면대로 만든 땡크가 뒤집혀졌겠는가?》

찰스 역시 자기에게서 결함을 찾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들었다. 현지에서 보내온 뒤집혀진 땡크를 찍은 사진이었다.

멍하니 사진을 들여다보던 찰스는 저도 모르게 흥하고 코웃음이 나왔다. 어이가 없었다.

1 차대전말 첫 땡크전이 진행된 이래 이런 일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그것도 최신형땡크가? 그는 영국이 무한계도식전투차를 전선으로 기동시키면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음료수용탱크라고 허위보도한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어 《땡크》로 불리웠다는 이 전차가 정말로 물탱크라 해도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에 골몰해있는데 얼핏 옆을 스쳐보니 스미스 역시 뒤집혀진 땡크사진을 얼없이 멍한 눈으로 들여다보고있었다.

합동참모본부의 장성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 눈을 감고 까딱하지 않았다.

지루한 시간이 흘러 비행기는 드디어 김포비행장에 착륙하였다.

대통령의 특령을 받고 오는 대표단이어서 현지의 합동군사연습사령관을 비롯하여 참모부의 요직에 있는 장정들과 피뢰국방부의 우두머리와 군종병종 사령관들이 모두 나와 마중하였다.

의례히 력독을 풀기 위한 피로연과 저녁파티가 서울에서 있기로 일정이 되어있으나 현지사고 해명대표단은 그길로 사전현장부터 찾았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스미스와 찰스의 강한 요구였다.

자기들의 명예도 명예려니와 나아가서 미국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 책임이 더 무서워 한가하게 연회락을 마주하고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들은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 넘겨씩워야했는데 그러자면 빨리 사고현장부터 찾아가 실태를

알아보고 제 나갈 구멍수를 찾자는것이 스미스와 찰스의 속심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듣기 좋게 이런 말이 나왔다.

《사령관각하, 우리는 대통령각하의 특령을 받고 온 사절로서 명령을 집행하기전에는 절대로 설수가 없습니다. 어서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의 특별요청을 향해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스미스는 점잖게 말하였다.

《그래도 점심식사야 하셔야지요.》

사령관은 의미있게 웃으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는 비행기안에서 요기를 했습니다. 당장 현장으로 차를 돌려십시오. 정 그러면 나는 차에서 내리겠습니다.》

스미스는 여전히 조용하게 말하였으나 자기 주장은 조금도 굽히지 않을 자세였다.

이때였다. 뒤에서 따라오던 참모장과 함께 탄 찰스의 승용차가 뺑뺑 급한 경적을 울리었다.

그바람에 사령관이 탄 차와 다른 차들도 모두 길에 멈춰섰다.

찰스가 차안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스미스선생, 그래 당신은 연회장부터 갈 차비요. 나는 우리의 활동소식을 기다리고있을 대통령각하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여 순간도 지체할수 없단 말이요. 나는 혼자 걸어가겠소. 참모장각하, 길이나 대주시오.》

찰스도 승용차안에서 스미스와 같이 사건현장에 곧바로 갈것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앞에 달리는 스미스가 의례히 그쪽으로 차를 몰아가게 하려니 생각하고있었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런 발작을 일으킨것이였다.

단장인 합동참모본부 장성도 스미스와 찰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특별대표단은 그길로 군사훈련장에 찾아가게 되었다.

사건현장에 다달으니 실패는 사진을 보기와 또 달랐다. 어쩌면 이렇게 될수 있을까?

운동장과 같이 평탄한 길에서 땅크는 180도로 뒤집혀져있는데 마치 자라를 뒤집어놓은것 같았다. 자라를 뒤집어놓으면 자기 혼자서는 바로 돌지 못해 조그만 네발을 버둥거리다가 죽어버린다고 하더니 이 신행땅크가 바로 그런 꼴이 되었다.

뒤집혀진 땅크를 아무리 살펴봐야 타격을 받은 흔적이란 조금도 없었다.

땅크를 자세히 뜯어보고난 찰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작에는 조금도 손색이 없소. 이 육중한 땅크가 뒤집혀졌으나 파손된대는 하나도 없소. 어디에 조금 우그러든 흔적조차 없단 말이요. 이것은 제작을 완전무결하게 하였다는것을 의미하오. 그러니 제작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단 말이요. 설계타이 분명하오.》

순간 스미스의 얼굴에 비웃듯한 차디찬 랑소가 비끼였다.

《결보기에 파괴된것이 없다고 해서 제작이 완전무결하다고는 볼수 없지 않을까요? 현대적인 무기일수록 결보다 안이 더 중요하다는건 초보적인교육만 받고도 넉넉히 알수 있을텐데요.》

스미스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하였다. 스미스의 이런 여유작작한 태도는 찰스의 속을 더 뒤틀리게 하였다.

《결불안이라고 바깥만 봐도 안을 얼마나 잘했으리라는 짐작이 안간단 말이요?》

찰스는 버럭 성을 내며 리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미스터 찰스, 좀 침착하십시오.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하찮은 일때문에 나는 찰스각하의 귀체에 나쁜 영향이 미칠가봐 진실로 걱정이 되는데요.》

스미스는 상대방의 약을 잔뜩 돈구어주었다.

《사람을 희롱하지 마시오. 누굴 어린애줄 아오?》

퇴역장성인 찰스는 군인성격이 되살아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씩씩 황소숨을 쉬었다.

이때 단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었다.

《그만하십시오. 대통령각하의 특령을 받고온 대표단으로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해명하는것이 급선무인즉 이렇게 책임회피만 하면 되겠는가? 어서 빨리 리성으로 돌아오길 권고하오.》

《글쎄올시다. 우리는 사고의 원인을 해명하려는 대표단이지 범인을 잡으러 온 검찰관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고가 났은즉 설계는 제작이든 그 어디에 잘못되었기 있을터인데 이렇게 감정만 앞세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모든 결함은 자신에게부터 찾는것이 지성인들의 옳은 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완전무결한 리상적인 설계도면을 두고 억지로 결함을 찾을수는 물론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상대를 피로하게 하는 우둔한 행동이지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이상 아무리 설계도면대로 제작했다 하더라도 실수할수야 있지않습니까. 제작자는 이 점을 참작하여야 할것입니다.》

스미스는 참으로 교활하였다. 성 한번 내지 않고 얼굴엔 미소를 띄우고 조용히 말재간을 피우는데 우직한 편인 찰스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단장인 장성도 그의 말에는 뭐라고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찰스가 또 소래기를 질렀다.

《우린 제작을 잘못하지 않았소. 절대로 그럴수 없단 말이요. 설계가 잘못되었소. 설계자가 자기 잘못을 말장난으로 숨기고 제작자에게 넘겨쳐주는것은 대통령각하 앞에 참으로 불손한 행동이요.》

찰스도 만만치 않았다. 국회하원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 막무가내의 우격다짐이 남아다운 성격으로 평가되어 적지 않은 지지자를 얻었던적이 있었다. 그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을 자기의 생활철학으로 여겨오고있었다.

《찰스선생, 그럼 당신의 말이 옳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나는 참으로 우연히 대단한 발명을 한셈이군요. 참 감사합니다. 미스터 찰스.》

스미스의 이 말에 찰스는 물론 장성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발명이라니? 또 무슨 말재주를 피우자는것인가.

두사람은 스미스의 다음말을 일종의 초기심까지 느끼며 기다렸다.

《뉴튼은 과수원에서 자다가 떨어지는 사과에 이마를 맞고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하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부력법칙을 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가지 실수를 통해 우연히 땅크가 전진도중 평지에서 180도 뒤집혀지게 하는 발명을 한셈이 되는구만요. 조금 더 발전시키면 땅크도 비행기가 회전비행하듯 땅우에서 돌면서 전진하게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대단한 착상을 안겨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허허허.》

《허허.》

단장과 찰스는 너무 어이가 없어 허구픈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찰스는 분이 치밀대로 치밀어올랐다.

《뭣이? 어쩌구어쩌? 당장 죽어버리고말테다.》

찰스는 스미스의 먹살을 쥐었다놓더니 옆에 서있는 한 미군사병의 총을 빼앗아들었다.

《당장 쏘죽이고말테다.》

절박 탄알을 재우는 소리가 들렸다. 분위기는 순간에 살벌해졌다. 그러나 스미스는 태연하였다. 단장이 꺾 소리를 질렀다.

《이제 무슨 망둥이요? 찰스, 총을 거두지 못하겠소? 당장 군법에 넘기겠소.》

찰스는 총을 전혀 끔찍 않고 돌리듯처럼 그자리에 가만 서있더니 총을 떨구고 머리를 숙이였다.

《에익- 여우같은놈!》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치며 몸부림을 쳤다. 자신을 이겨내기가 어지간히 힘든 모양이였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진정하고 신형땅크 승무조원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즉시 단장이 승무조원들을 불렀다.

먼저 그들의 말부터 들어보고 사고를 분석하는 것이 리치에 다른것이였으나 서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밖에 없다나니 설계자와 제작자는 으르렁대며 개싸움질만 하였던것이다.

단장은 먼저 조종사에게 물었다.

《신형땅크의 동작상태를 처음부터 자세히 말하라.》

만전쟁때 땅크전에 큰 공을 세웠다는 젊은 조종사는 거침없이 말하였다.

《저는 지금까지 못타본 땅크가 거의 없다싶이 수십종의 땅크를 다 타보았습니다. 우리 미국제는 말할것도 없고 영국과 프랑스, 도이칠란드와 로씨야, 지어 브라질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크를 다 타보고 이 손으로 직접 조종해보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그 어떤 땅크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는 시비를 할수 있는 자격을 뽕뽕이 가지고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만전쟁때의 그 통쾌한 땅크전에서 저는 로씨야의 땅크를 덕대씩이나 파괴하고...》

조종사가 한창 제 자랑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단장이 그의 말을 중지시켰다.

《어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오. 사고가 나게된 동기를 말하란 말이요.》

《예, 우리 미국제 신형땅크는 참으로 나무랄데 없는 훌륭한 땅크입니다. 기동성이 민활하고 명중률이 높고 타격력이 매우 강할뿐아니라 전후좌우를 마음대로 움직이며 산야극복과 도하에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조종실안은 아늑하고 조금도 제동이 느껴지지 않으므로 마치 포드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기분입니다. 그러고...》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땅크가 왜 평지에서 뒤집혀졌는가 그것부터 말하란 말이요.》

단장이 또 재촉하였다. 그러나 스미스와 찰스는 조종사의 말이 싫지 않았다. 그들은 저도 모르게 입이 벅글쎈해졌다.

단장이 그의 말을 중지시킨것이 못마땅한듯 들은 일시에 장성을 돌아보았다.

《예, 알겠습니다. 저와 저의 협력자는 땅크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에는 험한 산이 있었고 그것을 넘으니 강이 있었습니다. 땅크는 산비탈도 단숨에 극복하고 강도 잠수함처럼 물속으로 도하하였는데 한방울의 물도 새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조동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저는 그저 계기들을 감시만 하고있었습니다. 전진하면서 지휘소에서 주는 명령대로 목표에 사격을 하였는데 영낙없이 명중하였습니다. 정말 신바람이 났습니다. 전진속도가 얼마나 빠르니 이리다간 부산까지 눈깜짝할 사이에 가닿을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후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방향을 돌리지 않고 그냥 후진을 하였습니 다. 후진속도도 전진속도에 못지 않게 좋았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돌려 북쪽방향으로 전진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앞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땅크를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땅크가 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차 속도가 떠

지고 덜렁거리는 소리까지 들리었습니다. 어디
고장이 나지않았나 생각하였습니다. 조금 있더니
덜렁 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 땅크의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고장요소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다시
조종칸에 들어가시동을 거니 다시 제대로 땅크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더니 또 같은 현
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조종을 잘못하
는가 생각하였습니다.》

이때였다. 갑자기 찰스의 환성에 가까운 목소
리가 들리었다.

《옳지, 바로 그것ियो. 이번 사고는 두말할것없
이 조종사의 능력부족으로 하여 생긴 사고요.》

스미스도 찰스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찰스선생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땅크의 리
상적인 우점은 조종사를 지나치게 흥분시켰습니
다. 흥분은 리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해
로운것입니다. 특히 현대적인 무기를 첫 시험하
는 이런 중요한 일에서는 흥분이 금물인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 용감한 젊은 장교에게 이번 사
고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앞길
이 창창한 젊은이에게 이번의 이 엄중한 사고를
책임지게 한다는것은 백만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
나 어찌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부정할수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
합니다.》

조종사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 《거룩한》 대
표단 어르신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가?

얼마후에 그들의 속심을 알게 된 조종사는 어
이없어 크게 소리내어 한참 웃음을 터뜨렸다. 특
별대표단성원들은 모두 그가 실성하지 않았나 하
여 눈을 껌벅거리면 서로 마주보았다.

아마 조종사가 자기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그 엄중성을 알고 머리가 돌았다고 생각하는 모
양이었다.

《제 말을 마저 들어주시시오.》

조종사는 말을 계속하였다.

다시 발동이 걸린 땅크는 북쪽을 향해 패속으
로 달리었다.

승조원들은 기분이 좋았다. 그들은 시창으로
밖을 주시하였다.

이때였다. 저 멀리 북쪽하늘 상공에 무엇인가
하얀점이 떠있었는데 그것은 땅크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자세히 보니 비둘기만한 하얀 새였다.

그런데 그 《비둘기》는 당장 마주칠듯 낮게 날
아내리는것이였다.

승조원들은 땅크의 속도를 더 높여었다. 《비둘
기》와 마주쳐보려는 장난기가 살아난것이였다.

《탁!》

땅크와 《비둘기》가 마주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순간이였다. 번쩍하고 번개가 일듯
불꽃이 일어났다.

그후 얼마후에 눈을 떠보니 병원침대에 누워있
었다. 어이된일인가!

《비둘기》와 마주치는 순간 뚜껑이 열리면서 승
조원들은 밖으로 휘뿌러지고 땅크는 무한궤도를
하늘로 향한채 거꾸로 뒤집혀졌던것이다.

조종사의 말을 듣고난 단장이하 특별대표단 성
원들은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비둘기와 마주쳐 땅크가 뒤집히다니 참으로 삶
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구레미가 터질 노릇이였
다.

《저 조종사는 실성하였소. 머리가 돌았던 말이
요. 의사의 검진이 필요하오.》

단장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조종사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함께 탔던 다른
승조원이 불리워왔다. 한데 그의 말도 조종사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는 분명히 흰 비둘기가 날아와 마주친후 땅
크가 뒤집혀졌다고 더 명백히 말하였다.

(이 신형땅크가 승조원들의 머리를 돌게 하는
것이 아닐가? 그렇지 않으면 모두 왜 저런 정신
나간 소리만 하겠는가?)

단장의 머리엔 이런 의문이 떠올랐으나 즉흥적
인 생각을 말할수는 없었다.

《저 젊은이도 역시 병원으로 실어가요.》

단장은 머리가 아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머리를 싸쥐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였으나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단장은 뒤집혀진채로 있는 땅크를 바로 세워놓
고 그안을 다시 검토해봐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자동차기중기를 불러 뒤집혀진 땅크를 바로 세워
놓았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또 생겼다. 바로
땅크밑에서 승조원들의 말을 증명이나 해주듯 새
의 흰 날개깃이 나타난것이였다.

그렇다면 승조원들의 말이 맞는단 말인가? 아
니 도저히 그럴수 없었다. 스미스와 찰스는 신형
땅크의 안을 살살이 살펴보았다.

그 어디에도 이상이 없었다.

찰스는 자신이 조종사가 되어 땅크를 기동시켜
보았다. 땅크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시동이 걸리
었다. 찰스가 하자는대로 땅크는 입안의 허처럼
말을 잘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땅크의 앞머
리가 북쪽으로 향하면 발동이 꺼지거나 덜렁거리
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것이였다.

조사대표단성원들은 눈이 둥그래졌다. 이게 어
떻게 된 일인가?

이때 병원에 실려갔던 승조원들이 정신상태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되돌아왔다.

그들은 사고의 원인을 해명할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씨아이씨에서 보내온 정보자료가 그 실머리를 풀어주었다.

신형땅크가 뒤집힌 사실을 아무리 비밀에 붙였으나 한입건너 두입건너 남조선인민들속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저저마다 이렇게 말하였다.

《그거야 너무도 웅당한 일이지. 이북의 김정일 장군님께서 날려보내신 비둘기가 조화를 부린게 틀림없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의 한 부하가 비둘기처럼 생긴 신형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신형땅크를 뒤집어 놓았다고도 하였다.

씨아이씨도 바로 이런 정보를 보내왔던것이다.

그러면 김정일최고사령관이 날려보낸 비둘기란 말인가?

특별조사단은 더욱더 곤경에 빠지였다. 알지 못할 그 어떤 깊은 심연속으로 굴러떨어지는듯한 환각이 일어났다.

미국방성에서는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독촉이 불갈았다.

조사단은 할수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국방성에 보고하였다.

국방장관이하 군부우두머리들은 특별조사단이 보낸 보고서를 보고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보고서를 그대로 믿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믿을수도 없었다. 머리를 맞대고 종일 토론끝에 이 보고서를 게이. 제이. 아이 연구소(김정일연구소 략칭)에 보내기로 하였다.

케이. 제이. 아이 연구소에서 즉시로 회보가 왔다.

《북조선의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의지와 담력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다. 특히 지략은 력사에 유명한 모든 군사가들의 지략을 다 합친것보다 더 특출하여 상상하기 어렵다. <남한>의 항간에 떠도는 말이 사실임을 부인할수 없다. 신형땅크 전복사건은 김정일장군의 의지와 지략의 산물이다.》

미국방성은 이 회보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기하였다.

미국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보고 비명을 올렸다 《아이구, 김정일최고사령관과는 맞서지 않는것이 현명한 처사로구나. 북조선이 하자는데로 하지않을수 없다.》

그때부터 미국은 회담장에 나타나 우리 나라가 하자는데로 했다고 한다.

남조선항간에서 도는 말에 의하면 언젠가 미국 군사대표단이 북조선에 갔던적이 있는데 그중에는 맥아더의 동생도 있었다고 한다.

그 군사대표단은 어느 한 군부대를 방문하여 인민군병사의 사격솜씨를 보고 넋을 잃었다고 한다. 두명의 전사들이 작은 휴대용무기를 설치하고 한방 갈겼는데 5리밖에 있는 바위섬이 온데간데 없어진것이였다.

이 사실이 보고되어 미국대통령이 골치를 앓고 있던 때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니 어찌 미국이 조선을 만만하게 보겠는가.

미국관리들이 회담장에서 우리 나라를 초대국이라고 부른것은 당연한 일인즉 그것은 바로 강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이 계시기때문임을 더 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김우경

내 조국의 시간

최명철

천리 또 천리 대양을 넘어
한밤중에 닳을 내린 이국의 항구-
머언 수평선이 희승이 밝아온다
이제야 날이 새는가보다

내 조국엔 벌써 해뜰지 오렸으련만
너무도 뒤늦구나 여기 아침은
낮설구나 시간조차
저 하늘처럼 저 물빛처럼

어찌하랴 철남아
저 선실벽 시계바늘을 돌리자
잠시나마 여기 낮과 밤을
자고 일며 일해야 할 우리 아니냐

그래 돌려라 한바퀴
또 한바퀴...

그러나 마음속 우리의 시간
조국의 시간을 돌리지는 말자

그것은 축복받은 우리의 삶이
태어나 자라고 꽃피은 시간
어머니얼굴처럼 흐르는 피처럼
몸에 젖어 흐르며 익혀온 시간

내 조국의 시간은
아버이장군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사랑의 시간이다
우리를 지펴주시는 믿음의 시간이다

돌려라 돌려도 우리의 시간은
심장에 새기자 그 맥박에
내 조국의 시간은 주체년호로
온 세상이 사는 태양의 시간이다!

향도의 자욱을 따라 6 천리

김대성

여기는 공산주의리상촌

장강읍에서 얼마쯤 올라가느라 하면 북천으로 흘러드는 작은 시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덕천이다. 거기에는 장강농업전문학교에서 통나무로 언제를 쌓아 건설한 소형수력발전소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자그마한 발전소에도 들리시어 통나무로 언제를 쌓고 통나무로 발전기실도 잘 지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이런 식으로하면 어디서나 세멘트를 쓰지 않고도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토목식으로 건설한 이 발전소들 돌아보고나서 북천을 따라 내려오던 우리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탄성을 올렸다.

저기 아래쪽에는 또하나의 언제가 있어 그우엔 넓은 호수가 생겨났는데 그 기슭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1동1세대짜리 새 살림집들이 들어선 모습은 그야말로 선경이었던것이다.

산골에서는 집집마다 마당 한쪽켠에 장작더미를 높이 쌓아놓고있는데 여기에 있는 새 문화주택들은 장작더미도 없거니와 굴뚝조차 없으니 휴양각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어느 집을 보아도 울타리를 곱게 두른 마당엔 티검볼 하나 없는 데 과일나무들을 보기 좋게 심었다. 벽은 연한 장미색을 섞어서 회칠을 산뜻하게 했는데 유리창은 어찌도 맑은지 때 한점 안묻고 연기 한점 그슬린데 없어서 옥돌에나 비겨야 할런지 어쨌든 지어놓은것이라기보다 그려놓은것 같았다.

뒤에는 기묘한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늘어섰고 앞에는 커다란 거울같은 산중의 바다이다.

갑문식으로 일떠세운 발전소언제와 물고기떼 뛰노는 호수 그리고 호수가에 나란히 서있는 살림집들은 산촌에 차넘치는 맑은 공기와 더불어 떼여낼수 없는 화폭으로 서로 어울려 그야말로 리상적인 신비경을 이루는것이였다.

저것이 바로 전기난방이 된 55동 살림집들이였다.

야! 여기서 살고싶구나!

그저 이런 생각이, 아니 욕심이 부러움과 함께 굴뚝처럼 솟구치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산촌의 면모를 이렇게 일신시킨 《주인공》인즉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작년봄에 착공하여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한 장강2호발전소였다.

우리와 만난 군중소형발전소건설사업소 지배인 동무는 힘겨웠지만 보람찼던 건설의 나날을 궁지높이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발전소를 건설할 때 군당책임비서동지를 비롯한 군당일군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웨치며 앞장에 섰고 군내 모든 기관, 기업소가 다 떨쳐나섰습니다.

우리는 착공식을 한 그날에 언제가물막이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전기난방식살림집 55동의 기초를 다 파제했습니다. 며칠후 금요일로동일에는 시오리가 넘는 산에 가서 언제건설에 필요한 나무를 수백립방이나 찍어서 그날로 다 운반해왔습니다. 강계역에 세멘트방통이 들어오면 군에 있는 운수수단을 총동원하여 그날로 실어들이군했습니다. 이 기간에 매일 평균 600명에 달하는 지원로력이 투입되어 발전소도 건설하고 살림집들도 짓고 주변정리도 했습니다.

발전기조립에서 제기되는 난 문제도 우리의 지혜로 풀었습니다. 발전소언제를 쌓으니 저렇게 호수가 생겨났지요. 양어장이 저절로 생겨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호수에 잉어와 붕어, 칠색송어를 수만여마리나 잡아넣었습니다. 그 다음엔 새집들이를 했지요.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난방식살림집들을 지을 때 제일 수고를 한건 간부들인데 그 덕을 보는 사람들은 전병로병들과 공로자들 그리고 로동자들과 읍농장 농장원들이랍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북천 건너편에 있는 읍소재지를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이런 참된 일군들이 있기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두메산골이 공산주의리상촌으로 꽃피난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일군들이 앞장에

설때 주저할 사람이 어데 있으랴.

이런 충신들이 바란것은 무엇이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와 전기를 풍족하게 쓰고있는 인민들의 생활을 보여드리고싶은 애로라지 그 소원뿐이였다. 하기에 언제를 쌓아도 최상의 수준으로,집을 한채 지어도 최상의 수준으로, 거리와 마을을 꾸러도 최상의 수준으로 해냈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작년도에 농사는 농사대로 하면서도 발전소들을 건설한것이 얼마나 기특한가, 장강2호발전소는 그 모양이 꼭 수풍발전소축소판이라고, 일군들이 앞장서서 큰일을 해제졌다고, 자강도가 통이 크다고 거둢 값높은 치하를 해주시였다.

그날도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새로 생긴 호수의 얼음판우에서는 겨울방학을 즐기는 아이들이 스케르타기에 여념이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아이들이 스케르트를 타는걸 보니 기쁘다고, 여름이면 저애들이 호수에서 뽀트놀이를 하게 될테니 얼마나 좋은가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기난방이 된 살림집에도 허물없이 들어가시여 부엌에서 전기로 밥을 짓는것도 보시고 따스한 장판방도 끌고루 짚어보시면서 이처럼 추운 겨울에도 전기로 밥을 하고 방을 덥히고 텔레비존도 보니 이게 얼마나 좋은가, 내가 하자는 전기화는 바로 이런것이라고, 전기난방이 된 새집들에는 천연색텔레비존과 랭동기,전기밥가마를 보내주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하자고, 그래야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 의욕이 생길거라고 말씀하시였다.

발전소마을을 떠나기 아쉬우시여 다시한번 정

답게 바라보시던 우리 장군님께서는 여기가 바로 공산주의 리상촌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오매에도 뵈고싶던 어버이장군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온몸에 세멘트가루를 뒤집어쓰고 사람들의 앞장에 서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치열한 격전의 날들을 보낸 이곳 일군들은 덧쌓인 피로가 순간에 가셔지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북받쳐올라 억센 가슴을 들먹이였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군당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올해에 우리는 3호발전소와 4호발전소를 새로 착공하여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며 무덕리를 비롯한 모든 리들에서도 소형발전소를 하나씩 다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전기를 풍족하게 쓰기도 남는 답니다.》

우리는 간단히 속셈을 해보았다.

우리 나라의 모든 시, 군들에서 모두 장강군처럼 한다면 수백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이 조성될것이다. 바로 이 엄청난 수자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중소형발전소들을 도처에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풀려는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1호발전소우에 새로 착공한 3호발전소만 놓고 보아도 언제를 쌓아 원평천을 막고 380메터의 물길굴을 뚫어야 합니다. 아릅찬 공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해낼것입니다.》

리정수동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호응하듯이 저 멀리 북천상류의 3호발전소 물길굴공사장에서 쿵! 쿵! 말파소리가 울려왔다.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서 첫 토론을 한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군당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것이였다.

벽시

병사들이 열어나가는 길

황성하

순안부터
금수산기념궁전까지 수십키로메터
이 길을 병사들은
자갈과 모래와 세멘트로가 아니라
피더운 심장으로 열어갔다

걸음으로는 다 켤수 없는 그 먼길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둘도 없는 청춘을 다 바치여
불뽕는 화점향해 나아가간
리수복의 열다섯발자욱처럼!

양평땅의 새 주인

로정법

단천 남대천은 두루산의 서쪽비탈면인 허천군의 북동부 샘골에서 시작되어 남서방향으로 흐르다가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단천앞바다로 흘러든다.

이 강에는 허천강의 물을 거꾸로 돌려 전기를 일구는 허천강발전소들이 계단식으로 건설되어있다.

얼었던 강물이 녹고 깎아지른듯한 강벼랑가에 진달래꽃이 만발할무렵이면 강상류에서는 때목이 내리는 장쾌한 광경이 펼쳐진다.

크지 않은 강이지만 이 류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강을 더없이 사랑한다. 평양사람들이 대동강을 어머니강으로 사랑하듯이...

이 글의 주인공인 럽성학도 이 강 류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바로 남대천이 바다와 합쳐지는 단천시 신호리이다. 거기서 자라고 배우면서 어른이 되고 일군이 되었다.

분조장, 민청위원장, 작업반장, 세포비서로부터 기사장, 관리위원장에 이르는 동안 일터는 여러 번 바뀌었으나 럽성학은 이 강의 류역만은 벗어나지않고 싶어한다. 그가 지금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단천시 양평농장도 바로 남대천을 옆에 끼고있는 아름다운곳이다.

단천에서 허천으로 올라가는 철길은 시오리가량 도로와 나란히 달리다가 갈라진다. 도로는 남대천을 가로지른 다리를 건너 곧장 고개길로 올라서고 철길은 한동안 강을 끼고 돌다가 허천군 상농구에 이르러 염수언덕을 넘은 큰길과 다시 만난다. 도로와 철길이 갈라졌다 다시 만나며 그려놓는 바로 그 타원안에 양평리가 앉아있다.

2층, 3층, 4층짜리의 아담한 농촌살림집들이 산기슭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들어앉은 마을이다.

마을앞으로는 산과 산이 마주선 사이로 남대천이 바다쪽으로 우물구불 흘러갔는데 키높은 백양나무들이 시원하게 설레이는 방축너머 저 멀리로 단천제련소와 마그네사크링카공장의 웅자가 엮은 운무속에 아름답게 바라보인다.

주체57(1968)년 6월 5일은 양평농장의 새 력사가 시작된 날이다. 이날 마을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농가의 부엌문까지 손수 열어보시면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을 잘해서 앞으로 양평리를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꾸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이 영광의 땅으로 럽성학이 부임되어온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하지만 몇년안팎에 농장의 호주로서, 강행군대오의 앞장에 선 지휘관으로서 그가 해놓은 일은 참으로 많다.

결심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는 잠시 럽성학이 양평농장 관리위원장으로 부임되어오던 때로 돌아간다.

럼성학은 부임지로 가면서 자기의 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되기를 바랬고 그곳 사람들에 자기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일은 정반대로 되었다.

날은 점점 추워오는데 농장에서는 연유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논밭가을갈이를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기름이 없다면서도 건설자재를 실은 트랙토르가 부지런히 지나가기에 세워놓고 물으니 종축작업반을 크게 새로 짓는다고 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큰 길 옆에 사료종합가공실의 벽체를 한창 쌓아올리고 있었다.

럼성학은 첫눈에 종축작업반이 제 앉을 자리에 앉지 못했다는것을 알아보았다.

양지쪽이 못된다는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축산지도원을 불러 왜 하필 능지예다 자리를 정했는가고 물으니 처음에는 우물쭈물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관리위원장도 부채중이고 농장의 전반사업을 백창원이 보았는데 그가 자리를 정했다고 하였다.

해가 잘 들지 않는것이 한가지 흠이기는 해도 물조건이 좋고 화목림지가 가깝고 부지정리에 크게 품을 넣지 않고도 염소우리, 양우리, 소우리, 닭우리, 토끼우리, 돼지우리를 쉽게 앉힐수가 있다. 이것이 백창원의 주장이었다.

열가지 스무가지 유리한 점을 다 들면서도 백창원은 외부사람들과 승용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길옆에다 종축반건물을 번듯하게 앉히고 싶었던 자기의 속심만은 감추었다.

그렇게 되어 건설이 시작되었고 백창원이 직접 나서서 주관하는 바람에 빠르게 진척되었다.

내가 늦었다. 좀더 일찍 왔더라면... 럽성학은 아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더 쓴맛을 보기전에 이제라도 자리를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을 하였다.

1반에서 3반, 3반에서 다시 건설장으로 오가며 렴성학은 혼자 속싸움을 하였다.

이제 방금 와가지고 이곳 농민들이 한달가까이 해오는 일을 중지시킨다는것은 바쁜 일이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가만있기는 더 바쁜 일이었다.

렴성학은 힘든 결심을 하였다. 이리하여 건설은 일단 중지되고 거기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즉시 자기 분조로 돌아가 논밭가을갈이에 나가라는 관리위원회의 지령이 떨어졌다.

농장의 모든 힘을 당면한 논밭가을갈이대로!

렴성학은 맨 먼저 쇠스랑을 들고 논에 들어섰다. 건설자재를 나르던 트랙터들과 농장의 모든 부림소들이 보습을 차고 들로 나오고 신임관리위원장처럼 쇠스랑이나 삽을 든 농민들이 여기에 따라섰다.

양평리에서 쇠스랑으로 논을 푸진다는 소리를 듣고 시에서 일군이 내려왔다.

이게 무슨 전례없는 일인가.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어 내려왔던 일군은 막상 물이 질벽거리는 논판에서 농장원들과 같이 벼그루를 뒤집고있는 관리위원장을 보자 기분이 좋아서 《넌장, 손바닥이 부르르게 나도 한번 두저 보시오.》하며 바지를 걷어올리고 논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가을갈이는 렴성학이 타산했던 날자에 깨끗이 끝을 보았다.

마지막논배미를 뒤집어놓기 바쁘게 땅이 땡땡 열여불었다.

사람들은 새 관리위원장이 오자부터 손으로 땅을 푸지게 한다고 공공대던것도 까맣게 잊고 그가 앞을 정확히 내다본데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삽이라도 들고나섰기에 망정이지 며칠이라도 늦잡았으면 어쩔번 했는가. 앞은 자리에서 7프로의 난알을 거저 잃어버릴번하였다.

가을갈이는 성과적으로 끝이 났지만 종축반건설은 인차 시작되지 않았다.

이미 짓던 건물을 헐어 다른데로 옮기려 한다는것은 누구한테도 비밀이 아니었다.

축산지도원 고병학은 지금까지 자재와 로력이 적지 않게 낭비되었지만 이제라도 건설이 중지된것을 퍼그나 다행으로 생각하였고 신임관리위원장의 용단에 은근히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고병학은 농업대학 축산학부를 나온 기사로서 과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축산에서의 주먹치기를 제일 싫어하였다.

명학은 새 관리위원장의 배짱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가 축산에 매우 깊은 조예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당에서는 지금 풀먹는 집짐승을 비롯하여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라고 요구하고있는데 이

런 일군이 뒤에서 밀어준다면 앞으로 리의 축산이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빠르게 발전하리라는 신심이 생겼기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니라 종축작업반사람들의 심정이였다.

그들은 술한 톨을 들여 쌓던 집을 당장 헐어리겠다는것을 보면 신임관리위원장이 일을 쳐도 크게 칠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하긴 신임관리위원장의 체통을 보니 그런 팔뚝같은 배심이 들어앉아있을만도 하였다. 한창 젊었을 때는 몸무게가 100키로그램만에 거의 갇다는 장사이고 이제 40대에 들어선 호남아였다. 너부족한 얼굴은 혈기로 해서 불긋하고 어글어글한 큰눈에서는 정기라 할지 정열이라 할지 그런것이 내뿜었다. 입술은 두툼하고 목소리는 우렁우렁한 소리였다.

젊었을 때처럼 지금도 체육을 즐긴다고 하였다. 어느해인가 시에서 열렸던 체육대회때에 그가 땅크처럼 내달려 100미터달리기에서 우승하는것을 실지로 본 사람들이 여기 양평에도 있었다.

렴성학이 처음 농장을 돌아볼 때 백창원이 렴성학을 제일먼저 안내해간곳이 바로 종축반건설장이였다. 은근히 자랑을 섞어 이야기를 하는 백창원을 보며 렴성학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하고 자리를 뜨자고 할 무렵에 가서야 렴성학은 종축반자리가 적당치 못한것 같다고 내놓고 말하였다.

렴성학은 남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는 성미가 아니였다.

양지쪽도 많은데 왜 하필 돼지우리를 능지에 앉히겠는가. 여름 한철이라면 몰라도 겨울철 돼지사양관리의 기본은 잘 먹이고 춥지 않게 해주는것이다. 해빛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겨울철 한낮 양지와 능지의 온도차이는 보통 몇℃이다. 그차가 적은것 같아보이지만 30칸짜리 돼지우리 한동에 그만한 열량을 보충해주자면 (렴성학은 전자계산기의 수자 몇개를 인차 눌러보고나서) 하루에 얼마만한 량의 무연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상적으로 해빛을 쬌어야 한다.

신임관리위원장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백창원은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가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미 짓던 건물을 헐어버린다니 말이 되는가.

백창원이 혼자서 지었는가. 농장원들이 모두 달라붙어 짓던것이 아닌가. 그런 건물을 오자바람으로 헐어버리겠다는것은 농장원들에 대한 무시이며 전횡이다.

문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백창원이 시에 오르내린다고 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송사를 했는지 시에서 렴성학을 불렀다.

삽으로 논을 푸진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던 일꾼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련성학을 맞아주었다.

《어떻게 된거요? 관리위원장동무, 가자바람으로 소문을 내면서… 독단이요, 전횡이요 말이 많소. 어떻게 된 문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구려. 벽체까지 쌓아올리던 집은 왜 헐겠다는거요? 그걸 꼭 헐어야만 되겠소?》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있는 련성학을 보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헐어도 좀 차차로 헐면 안되겠소? 난 위원장동무의 그 정열이 겁이 날 때가 많소. 동무가 자기전부터 백창원이 빠심들여 짓던 집을 가자바람으로 헐어버리겠다고 하니 그 사람의 낯이 뭐가 되오? 그도 양평에서 초급일꾼을 오래한 사람인데 위원장동무가 그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소. 그 사람이 다른 농장으로 가겠다고 제기를 했소.》

련성학의 인간됨을 알고있는 그여서 다른 건말은 하지 않았다.

련성학은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백창원이 다른 농장으로 가겠다고까지 제기했다니 그것이 제일 가슴에 걸렸다.

(당신도 일꾼인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모른단 말인가. 나도 인간인데…)

련성학은 백창원의 처사가 매우 서운하였다.

헐어서 옮기자는 결심이 섰을 때 련성학은 그를 조용히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안됐소. 백동무, 동무도 잘하느라 한 일인데 이제와서 이렇게 되고보니 말하는 내 자신도 속이 좋지 않소. 동무는 짓고, 나는 헐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동무도 당원이고 오랜 초급일꾼이니 리해주리라 믿소. 집단의 리익을 놓고 어느 일개인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론할것이 못된다고 보오. 우리가 그 누구한테 잘 보이자고 일하는것이 아니지 않소.》

그렇게 했는데도 백창원이 시에 오르내리다 이제와서는 다른데로 가겠다고까지 한다니 자기의 진심이 먹어들지 않은것이였다. 하긴 쉽게 먹어들지는 못할것이라고 련성학은 다시금 생각하였다.

쇠스랑으로 푸지는 한이 있더라도 논밭가을갈이를 내밀어야겠다고 결심할 때에도 무슨 생각을 안해보았으랴.

부임인사를 하기 바쁘게 쇠스랑을 들고 물이 질적한 논으로 들어서라고 호령을 하면 이곳 농민들이 새로 온 관리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누구보다 안해가 그것을 제일 걱정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농장원들이 새 관리위원장이 어떤 사람일가 하고 신경을 쓰고있는데 오

자바람에 그렇게 하면 당신의 첫인상이 매우 고약해질것 같아 걱정이 돼요. 도섭을 부린다고 할 사람도 있을거구, 된서방을 만났다고 겁내할 사람도 더러 있을거구요. 사람들은 보통 첫인상을 가지고 그 인간의 전반을 평하러 들지요.》

《나도 이렇게 되길 바라지 않았지만 일이 되도록 하자니 별수가 없구려. 이렇게 되고보니 우리 아버지생각이 나오. 당신도 알지만 예순이 다되어서도 아버지 남새분조장을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폭군이였는지 우리 어머니가 배추를 묶다가 손이 시려 좀 일어나 우물거리는 눈치면 《김봉옥이!》 하고 들판이 떠나가게 소리치곤했소. 여기에도 우리 아버지를 아는분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신통히 닮았다고 욕할지 모르겠소.》

련성학은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여보, 시작은 써도 끝이 달면 되는거요. 난 끝장을 보겠소. 소문이야 좀 나겠지. 일없소. 땅을 열거서 큰 소문을 내느니 손으로라도 다 푸졌다는 소문이 좀 듣기가 나을테지.》

리당과 기본적으로 합의를 본 다음에도 련성학은 여러 농장원들을 다시 만나보았다.

쇠스랑으로 한다니 그제 무슨 소린가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농사로 늙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라도 해서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하였다. 련성학은 오랜 농장원들의 의사를 따르리라 결심을 했고 실행했다. 그는 일단 결심이 되고 시작을 한 일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없이 끝장을 보는 성미였다.

이것이 일꾼으로서의 련성학의 장기였다.

일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련성학을 존경하였고 그렇지 못한 회돌이들은 두려워했다.

가을갈이가 진행되는 동안 련성학은 매일 농장원들과 같이 논에서 살았고 항상 첫이랑을 탔다. 농장원들을 일내보내고 뒤에서 우물거리던 작업반장들이 바빠맞아 논으로 달려나왔다.

련성학은 더 추워지기전에 종축반건설도 그렇게 와닥닥 해제끼려 하였다. 그런데 걸림돌이 나타났다. 그것은 설비나 자재에 걸린것이 아니였다. 백창원이 종축반이설을 못마땅하게 여기었던 것이다.

《기어코 헐겠으면 나는 다른데로 가겠수다.》

백창원의 말을 듣고 련성학은 생각했다.

(차라리 그의 요구대로 그를 보이지 않는데로 보내놓고 종축반을 옮기면 간사람도 옮기는 사람도 서로가 마음 편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사람문제를 그렇게 쉽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건설이 중지된 종축반으로 나갔다.

가을비가 내리던 저녁이였다.

쓰다남은 세멘트가 걱정이 되어 나왔겠는지 안

기종로인이 쌀다가만 벽체우에다 비닐박막을 씌우고있었다.

《잘하십니다. 아바이, 같이 씌웁시다.》

그러자 안로인의 얼굴은 대변에 밝아졌다.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됐나?》

《제가 어데 갔댔게요?》

《재관하러 갔다더군. 이 집 때문에...》

《참 빠릅니다.》

렴성학은 껄껄 웃었다.

《빠르다마다... 양평리가 일은 떠두 그 하나는 빠르다네. 김안동에서 켜하면 그 소리가 즉시 산 울림되어 오지. 관리위원장도 외지에서 새로 왔으니 참작하라구. 여기에는 대개가 친척간이여서 누가 어떻다는 소리라도 한마디하면 즉시에 본인의 귀에 들어가는 판이네. 왜 본부락을 김안동이라고 하는줄 아나? 김씨, 안씨, 동씨가 산다해서 그렇다네. 그건 그거구 <재관>에서 이겼나?》

렴성학은 다시 웃었다.

《아바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막을 같이 씌우자는걸 보면 진것 같구... 백창원이를 이기기는 쉽지 않으니까...》

《하하. 그렇습니까. 그럼 졌다고 합시다.》

《아니, 위원장이 순순히 지고말 사람같지는 않네. 종축반을 옮기는거야 임자가 부임되어와서 처음으로 내린 지시인데 그것부터 호지부지되면 앞으로 위원장의 권위가 서겠나.》

《당의 축산정책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저라는 사람의 권위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래서가 아니지요.》

렴성학은 미소했다.

《아바이, 사람들한테서 권위를 얻는 가장 믿을직한 방법은 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것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이 농장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농장원들우에 앉아서 호통이나 치고 크고 맛있는것이 생기면 제일먼저 먹여치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농장에 필요한 사람, 다른데로 간다면 모두가 아쉬워할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시비가 뒤따를줄 알면서도 종축반을 옮기자고 하는것도 그래서이고 힘은 들겠지만 손으로라도 눈을 뒤집어놓자고 한것도 그래서입니다. 벌써 새 위원장에 대한 말이 많지요?》

《죵 있네.》

안로인은 숨기지 않았다.

《허지만 괜찮네. 내가 알고있건데 임잔 우리 농장이 생겨 아홉번째로 온 관리위원장일세.》

소박한 늙은이의 진심의 말에 렴성학은 속이 몽클하였다. 바로 이런 소박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백창원이 가겠다면 내버려두게나. 공연히 속을 썩이지 말고... 그를 돌려세우기는 힘들걸세.》

안로인의 말은 옳았다.

1반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산턱에 종축반 새 부지가 정해져 돌무지를 추어내기 시작하자 백창원은 이사집을 떠실고 처가가 있는 고장으로 가버렸다. 그가 갔다는것을 알자 렴성학은 가슴 한곳이 아프게 찢어움을 느꼈다. 처음부터 얻은것보다. 잃은것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역시 사람부터 생각하는데 습관된 일군이였고 인정에 무른사람이었다.

사색과 정열에 대한 일화

하루는 렴성학이 리당비서를 찾아와 먼저 웃기부터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비서동무, 사람을 속인다는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부위원장령감을 한번 속여넘겨야 일이 되겠는데 비서동무가 눈을 감아주어야겠습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삭바른 렴감이 위원장동무한테 속자고 하겠소?》

사람이 더없이 소탈한 리당비서 김충익은 무슨 내용인지 구태여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웃으며 렴성학과 무조건 공모할 태세로 나왔다.

《속이면 속이는거지 그런 렴감 하나 업어넘기지 못하면 위원장자리를 내놓고말아야지요.》

그리고는 관리일군협의회를 소집해놓았다면서 급히 나가버렸다.

렴성학은 요즘 1작업반지구에 농장자체발전소를 하나 앉히려고 속공리를 하고있었다.

1작업반은 농장에서 제일 웃지대인데 해마다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씨원하게 짓지 못하였다

1만마을 뒤산너머에는 사철 물량이 좋은 세동천이 흘렀다. 그 물은 골짜기를 따라 제멋대로 흘러내려가다 아래지구의 논 몇정보를 적서주기는 그대로 큰 강과 합수되었다. 렴성학은 산길을 뚫어 세동천의 흐름을 아예 1작업반쪽으로 돌려놓으리라 작정하였다. 그렇게 되면 오랜세월 쓸모없이 흘러가던 그 물이 파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1반, 남새반, 2반지구로 차례차례 내려가며 농장포전의 거의 전면적을 적서주는 생명수로 될것이었다.

좋은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

눈짐작으로 대충 타산해도 락차고가 좋아서 이 아래지구로 흘러내려가는 동안 두서너군데에 꽤 많은 크기의 발전기들을 효과적으로 앉힐수가 있었다.

이 착상이 떠올랐을 때부터 렴성학은 남이 알기모르게 현지를 수십번이나 밟으면서 해낼수 있겠는지를 타산하였다.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혁명적인 대책이 서지 않고는 1작업반의 농사가 그식에 장식이라는 생각이 렴성학이로 하여금 그런 착상을 하는데로 사색을 이끌어갔고 기어코 해야 한다는데로 부추겼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농사

를 그렇게 해오는데 습관된 농장의 많은 일꾼들은 다른데서 기사장을 하다가 부임되어온지 이제 두달도 채되지 않는 젊은 관리위원장의 이 효율적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으니 객기를 부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바로 그 주장자가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인품도 있고 사업능력과 작풍도 괜찮아서 그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기사장까지도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형편이었다.

그만 납득시키면 시작이 될것이고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만 하면 끝을 보기마련인데 그때문에 렴성학은 끝을 앓았다. 처음부터 자기의 제기를 지지해주고 어떻게 하나 실현시키자고 애쓰고 있는 리당비서조차도 그를 넘어뜨리는데서는 이렇다할 방조를 주지 못하고있었다.

발전소건설문제를 놓고 열린 협의회에는 현지 측량을 부탁받고 나왔던 탐사대일꾼들도 참가하였다. 먼저 탐사대일꾼이 세동천의 물량도 좋고 발전기를 앉히겠다고 하는 위치도 참 좋아서 해내기만 하면 농장이 앞으로 큰 덕을 보겠지만 농장자체의 힘으로 250여미터의 물길을 뚫기는 험치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농장이 한번 해보겠다면 탐사대에서도 방조를 하겠다는 의향까지 표시하였다.

《250미터라니 그게 분명하오?》

부위원장이 물었다.

《일전에 위원장동무가 나한테 말할 땐 사오백미터가 넘을것 같다고 하지 않았소.》

《그때는 굴위치도 확정이 안됐을 때고 비전문가의 눈짐작이다보니 위원장동무한테 그렇게 보였을겁니다.》

측량수가 렴성학을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250미터라면 크게 무서운것이 아니구만.》

기사장이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전과는 다르게 나오는 기사장의 이런 립장이 부위원장한테 자극이 된것 같았다.

《그렇긴 하오.》

그도 일을 하자는 사람이었다. 표현은 안해도 관리위원장의 발기를 누구보다도 신통하게 여기고있었다. 그저 500미터의 굴을 뚫어야 한다는데 겁을 먹었을뿐이었다.

그는 한참동안 혼자서 속공리를 해보더니 《탐사대에서도 도와주겠다는데 한 3년 계획하구 시작해보는것이 옳지 않을가》 하며 렴성학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세동천물길공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 안가서 부위원장은 실지 뚫어야 할 굴길이가 250미터가 아니라 정확히 475미터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능청스런 관리위원장이 탐사대측량수들과 공모하여 자기를 감쪽같이 속여넘긴것이였다. 여기에 리당비서까지 가담했다

는것을 알고 그는 기분 좋게 껄껄 웃었다.

그는 자기를 속인것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속히운것을 무척 만족스럽게 여겼다.

공사를 방금 시작한가싶는데 벌써 100미터계선을 훨씬 넘어선 깊숙한곳에서 굴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부위원장은 그길로 들어가 집에서 기르던 돼지 한마리를 잡아메쳐가지고 공사장으로 나왔다.

나는 렴성학관리위원장의 가정사진첩에서 《세동천물길공사장입구에서》라고 밑글을 받친 사진 두장을 뽑아들었다.

한장은 착암기를 앞에 놓고 청년농장원들과 찍은것이고 다른 한장은 북통을 멘 관리위원장이 웃으면서 찍은것이였다.

설명은 없어도 많은것을 이야기해주는 사진이였다.

사진에도 있는것처럼 그 나날에 렴성학은 자신이 착암수였고 선동원이였다.

광산에 가서 제일먼저 착암기술을 배워온것도 그였고 트랙도르기관을 압축기로 개조할 안을 내놓고 선참 스파나를 들고 나선것도 그자신이였다. 안해로라기보다 늘 생각이 깊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남편의 사업을 세심하게 뒤받침해주고있는 리죽절은 작가선생이 와서 자기도 오랜만에 사진첩을 들여다보게 되었노라면서 이렇게 회고하였다.

《...솔직한 말로 남편이 당의 의도에 맞는 큰일을 시작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참으로 불안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어서부터는 저도 그렇고 우리 현화아버지도 그렇고 어느 하루 발편자를 자본적이 없어요. 밖에서 현화아버지를 찾는 소리만 들려도 이거 갱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해서 화닥닥 놀라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는 한동안 가슴이 활랑거려 잠을 청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일어나 앉아 새끼를 꼬던가 아이들의 양말뒤축을 깎습니다. 그 나날에 제가 낀 새끼로 치면 몇천발이 잘될거예요. 분조에서 짜는 가마니날은 제가 혼자 보장했으니까요.》

리죽절은 어쭙게 웃었다.

《우리 현화 아버지 한 번 하겠다고 생각한 일에 들어가선 막 미치는 성미인데 젊었으니 무서운것도 모르지요. 저로서는 그게 제일 겁났어요. 그이는 내내 공사장에 나가 사는데 나로서는 꼭 철없는 아이 강퍅에 내보낸 심정이지요.》

녀인은 다시 웃었다.

《당의 신입으로 관리위원장이 된지 두달도 안됐는데 남들이 다 못한다고 머리를 젖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여놓았은즉 인명사고라도 하나 나면 어쩔가, 정말 그때 불안하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제가 늘 그렇게 불안해하자 하루는 남편이 <여보, 그렇게 불안하면 차라리 당신도 갱으로 들어오오. 국수나 한함지씩 해가

지고... 그럼 혁명적군인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이 어떤것인지 눈으로 직접 보게 될것이고 불안한 생각이 짝 없어질거요.>하더군요.

주인의 말이 옳았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녀인들도 갱전설에 한몫했습니다. 공사는 예견했던 기간에 단 한건의 사소한 실수도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답니다.》

거짓을 모르는 소박한 농촌녀인의 진심어린 토로였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위원장동무는 늘 조직사업에서 바늘귀만한 틈이 있으면 집행에서는 황소가 드나들 구멍이 생긴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는분이라는데 어련하겠습니까. 아주머니는 사람들의 신망이 높은 남편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이 싫지는 않은지 녀인은 밝게 웃었다.

사진첩에는 《발전기를 해결한 기쁨으로 국수 두그릇씩》이라고 밑글을 쓴 사진도 있었다.

발전기를 실은 화물자동차를 배경으로 함흥 신흥관주차장에서 운전사와 찍은 사진이었다.

자기보다 발전기가 더 잘 보이라고 자동차의 적재함문짝을 활짝 열어제켰는데 그앞에서 호남아 렘성학이 호합지게 웃으며 서있었다.

그가 웃는 표정을 보고서도, 국수를 두그릇씩 먹었다고 쓴 글을 보고서도 나는 발전기를 해결하기가 여간만 어렵지 않았으며 그래서 기쁨도 그렇게 컸을거라고 생각하였다.

《주인은 발전기를 만드느라 수고하는 동무들에게 쓴다면서 처음에는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아가더니 그다음에는 텔레비존과 재봉기까지 내갔습니다. 남자들과 같이 않아서 솔직히 나는 좀 서운했어요. 왜 그렇지 않겠나요. 한번은 우리 막내가 다른 집에 텔레비존을 보러 갔다가 발을 씻고 오란다며 울며 왔더군요. 하지만 발전소가 완공이되어 맨 먼저 유치원, 탁아소가 전기난방이 되었는데 거기서 한겨울에도 옷동을 벗고 뛰노는 아이들을 보게 되니 서운하던 생각이 씻은듯 없어졌어요. 그후에 인차 텔레비존도 생기지요.》

들어볼수록 녀인은 솔직하기 그지없었다.

아들 하나 딸 일곱되는 집안의 맏이로서 리원녀자인데 렘성학과는 주체63(1974)년도에 결혼했다고 하였다.

처녀총각작에는 서로 몰랐고 친척의 소개로 선을 보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남편될 렘성학은 어렸을 때 주먹이 세고 장난이 얼마나 세찬지 동네에서 못된것이란 못된것은 혼자 돌아가면서 다했고 커서도 그 버릇이 종종 나타난다는 바람에 겁을 먹었겠노라며 웃었다.

보통 위혼자들에 대해 쓸 때에는 어려서 공부도 잘했고 품행도 좋았고 조직생활도 잘했고 하는 등등으로 좋은 말만 골라쓰기마련인데 녀인의 말엔 진실감이 있어서 한결 듣기가 좋았다.

나는 렘성학관리위원장의 있는 그대로를 글에 옮기리라 생각했다. 덜지도 보태지도 않고...

여우바람이라고도 하고 이북어미 죽은 귀신바람이라고도 하는 쌀쌀한 봄바람이 들일에 나선 농민들의 목안으로 불쾌하게 스며들던 어느날이었다.

함흥에서 단천으로 들어오는 도로로 붉은색오토바이 한대가 뽀얗게 먼지를 말아올리며 질풍하였다. 안전모를 쓰고 방한복을 입은 오토바이는 잔등에 돼지를 넣은 배낭을 지고있었다.

40키로그램에 가까운 검은색돼지가 오토바이수의 넘적한 잔등에 편안히 입혀서 배낭아구리로 형체를 쑥 내밀고 언뜻언뜻 스쳐지나가는 바깥세상을 구경했다.

이따금 돼지가 추워서인지 꿀꿀대며 버드럭거렸다. 그럴 때면 오토바이수는 얼러추듯 한손으로 돼지의 엉치를 푹푹 두드려주곤하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좋아라 웃어댔다.

그가 바로 렘성학이었다. 그는 지금 도축산치가 소개해준 목장에서 원종으로 쓸 우량종 암돼지한마리를 가져오는 길이었다.

도축산치장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목장기사가 금방 젖을 땀 새끼돼지를 주겠다는걸 겨우 얼려 중돼지 한마리를 닮은 듯 돌려업었다.

이것을 가져가면 고병학이 제일 기뻐할것이었다.

그동안 여기저기로 뛰어다닌 보람이 있어 고병학이 바라던대로 농장에서도 종축에서의 새 교잡체제를 세울수 있게 되었다.

종축반설비도 남부럽지 않게 꾸려놓았고(높가스생산공정도 완성이 되어 사료가공을 가스로 하고있었다.) 사료전망도 좋았다.

빈땅을 찾아 풀밭과 사료밭을 크게 늘군것도 그렇지만 《정방10호》라 불리우는 발효사료생산설비가 꾸려져 소가 먹다 남긴 강냉이대 하나도 버리지 않게 되었으니 그것도 큰 예비가 아닐수 없었다.

이런 기분좋은 생각에 렘성학은 잔등이 축축하게 젖어든다는것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다 젖은 뒤였다.

렘성학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속까지 질펀하게 젖은 방한복을 벗었다. 돼지는 젖은 배낭에서 꺼내놓았다.

마침 길아래편에 강이 있었다.

렘성학은 언제인가 함흥에서 발전기를 실어오다가 바로 여기서 차를 세우고 달아오른 기관에 물을 길어다 넣던 때를 회고하였다. 그때 큰 고생을 하였다.

공교롭게도 차의 랭각기에 구멍이 나서 100메터 안팎에 차를 세우고 물을 길어다 넣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긴 다리가 뻣뻣해지도록 물을 길러 뛰어가면서도 그때는 발전기를 해결했다는 그

한가지 기쁨에 힘든줄을 몰랐었다.

바로 그와 같은 고생이 오늘에 와서 다시 이 자리에서 반복이 될줄 어이 알았으랴.

배낭에서 나온 돼지가 꿀꿀거리며 점점 멀어지기에 슬금슬금 따라가니 이번엔 냇다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달리는데는 아직 자신이 있어서 속도를 좀 냈더니 바빠맞은 돼지가 침병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 돼지로 하여 련성학은 춘삼월에 하기 싫은 수업을 하게 되었다.

마침 자전거를 탄 사람이 마주 오다 련성학을 도와나섰다. 그가 다름아닌 백창원임을 알았을 때 련성학은 우연이란 참 묘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두사람은 꿀꿀대는 돼지배낭을 옆에 놓고 같이 앉아 묵묵히 담배 한대씩을 피우고는 그대로 헤어졌다. 그후 련성학은 농장에서 열린 도적인 축산일군방식상학에 온 백창원을 다시 만났다. 그때가 바로 평양에서 열린 전국 축산부문모범일군대회에 참가했던 련성학이 농장에 돌아온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련성학은 최근 몇해 사이에 해마다 농장앞에 부과된 고기와 새끼돼지생산계획을 넘쳐하고있는데 대하여, 매해 많은 량의 고기와 알을 인민군대에 보내주어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는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의 토론은 당보와 중앙텔레비죤을 통하여 널리 소개되고 매일과 같이 농장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도적인 축산일군방식상학도 바로 그래서 열린 것이었다.

방식상학에 온 백창원은 련성학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제편에서 먼저 반갑게 손을 내밀며 큰일을 했다고 인사를 해왔고 집에 가서 저녁식사라도 한끼 같이하자는 련성학의 청에 기꺼이 응하였다.

나는 가을갈이가 전부 끝난 들판을 후련한 마음으로 돌리보면서, 염소, 양떼가 구름처럼 하얗게 흐르는 등판과 돼지우리를 흐뭇하게 돌아보았다.

그리고 기세 좋게 돌아가는 농장발전소와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난방화된 유치원, 탁아소, 살림집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평양과 개성을 비롯하여 그 어데 안실려간곳이 없다는 옛날부터 이름있는 양평기와공장과 종이공장, 세멘트공장, 석회로, 식료가공기지와 늑가스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확신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더욱 절감했다.

그렇다! 자력갱생! 이는 오늘의 강행군에서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안아오는 기본열쇠이거니, 우리모두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조국을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노을과 청춘

량송호

나는 좋더라
청춘의 부푼 가슴에
아침노을 안아보는
이런 때가 제일로 좋더라

내 가슴에 끓는 피와
아침노을은 언제나 한빛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네
언제나 나와 한빛으로 불타오르기에

솟아오르는 벽체
달아올리는 창문
창공으로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며
아침노을을 맞는다것은
얼마나 장쾌한것이나

아무리 힘겨운 일을 해도
한밤을 지새우며 아침노을을 맞을 때면

청춘의 활력은 새로이 끓고
청춘의 보람은 가슴에 넘쳐라

얼마나 아름다운것이나
아침노을이며, 나도 너처럼 아름다우리
티없이 깨끗하게
한생을 변함없이

네가 이 조선을 붉게불게 물들이는
기발과 같다면
나는 창조의 열정으로
이 조선에 열기를 보태는 청년돌격대

함께 불타라 함께 불타라
불타는 아침노을이며
너의 불붙는 하늘은 나의것이여라
청춘의것이여라!

동창생

김상현

1

농사를 잘 지은 농장에 현실체험을 나가려고 도농촌경리위원회 농산처에서 농장별실적표를 들여다보던 나는 첫번째순위로 평화농장이 적혀있는것을 보고 금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화농장이라니? 나의 중학동창생 김태석이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는 평화농장이 농사를 제일 잘 지었던 말인가? ! 눈을 밝히고 보고 또 보아도 평화농장이 틀림없었다. 웬일인지 잘 믿어지지 않았다. 대동강상류의 높은 산지대에 자리잡고있어 도적으로 해탈고도 제일 높은 북쪽이여서 농사조건이 가장 불리한 평화농장이 아닌가.

《평화관리위원장이 저의 중학동창생입니다. 김태석 이라고...》

나에게 실적표를 내놓아준 친절하고 상냥스런 녀성지도원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아, 그런 사이예요?! 태석관리위원장이야 진짜 배기 일군이시오. 그럼 동창생한테 가야겠군요. 얼마나 반가와하겠어요. 회포도 나누고... 호호호...》

가볍게 웃어넘기여도 진정이 넘치는 지도원의 말이어서 나도 유쾌한 룡조로 받았다.

《아닌게아니라 이제 귀밑머리가 세여가니 가깝게 지내던. 동창생들 생각이 드문히 납니다. 품농고라도 찾아갈 판인데 더없이 좋은 기회지요. 가면 감자농마국술 싫도록 대접할겁니다. 허허허.》

녀성지도원은 평화농장에 가면 농사를 잘 지은 관리위원장 김태석동무한테 자기의 인사도 전해달라고 말했다. 꼭 좋은 소설을 써달라는 당부를 받으며 나는 농산처에서 나왔다.

김태석이와 함께 보낸 학창시절의 나날들이 떠올랐다. 중학교 3학년 1학기때였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아홉뿔을 맞으면서 군에서 열리는 예술소조경연준비를 하느라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민청위원장인 태석이와 학급반장인 나는 경연준비사업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에 서야 하였다.

그런데 태석이는 집이 멀어서 힘겨워했다. 우리 학교에서 그의 집까지는 20리나 되었다. 집이 먼 동무들은 예술소조에 망라시키지 않았지만 태석이만은 민청위원장이었으므로 빠질수가 없었다. 나는 태석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경연준비기간만이라도 함께 다니고싶었다.

태석이가 응하기만 한다면 둘이 의논하여 공부도 하고 예술소조련습도 하고 민청사업, 학급사업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그러면 태석이가 혼자서 밤길을 걷는 수고도 덜게 되고 피곤에 몰려 입병이 나는 일도 없게 될것이였다. ,

나는 어머니에게 내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듯 말했다.

《태석이가 우리 집에 와있겠다고 하겠냐? 우리 집 형편이 이런데... 더구나 내가 바쁘게 일다니는걸 보구야...》 어머니가 선뜻 내 말을 들어줄줄 알았는데 너무도 뜻밖이여서 나는 입이 얼얼불은듯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가 없는 우리 집이고보니 어머니가 안팎일을 다 보며 사느라 다른 집들보다 잘살지 못하는것은 사실이지만 태석이가 그런것을 탓할 동무로는 결코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태석이는 허물없는 동무여서 제 집식구처럼 여겨도 되니 예술소조련습기간만 같이 와있게 해달라고 다시한번 졸랐다.

어머니는 마지 못해 승인해주는듯싶었다.

《너 좋을대로 하렴. 먹는것도 변변치 못하지. 네가 데려오겠다니 말리진 않겠다.》

이튿날 나의 청을 받은 태석은 이윽도록 나의 얼굴을 지켜보다가야 말했다.

《오늘은 집에 가야 하니까 래일 결심하겠어. 아무튼 네가... 나때문에 그런 궁털 다...》

본시 입이 무거운 태석은 빙싷 웃고는 그이상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도 나처럼 집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야 우리 집에서 다니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며 더 말을 시키지 않았다.

다음날 태석은 싱글벙글 웃으며 우리 집에 가자고 했다. 불임성있는 태석은 그날로 우리집 식구들과 친숙해졌다. 두 동생 창길이와 창옥이는 그를 친형이나 친오빠처럼 따랐다. 내가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동생들에게 떠들지도 말고 옷방에

함부로 올라오지도 말라고 그만큼 엄하게 단속했는데도 저녁상을 물리기만 하면 그애들은 태석이한테 매달리며 옛말을 해달라 노래를 배워달라 하며 졸라댔다. 내가 그애들한테 눈을 부라렸지만 태석은 아랑곳 않고 벌써 이야기관을 펼쳐나가는것이였다. 흥길동이야기, 흥부와 놀부, 토끼와 거북이, 욕심많은 개, 여우와 수탉... 등 실화들과 동화, 우화들을 어찌도 구수하게 엮어나가

는지 동생들은 짹짹 박수를 치며 《또…또…》 하고 자꾸자꾸 듣고 싶어하였다. 놀라운것은 평소엔 것처럼 입이 무겁고 무뚝뚝한것 같은 태석이가 한다 하는 이야기군들 못지 않게 능란한 이야기 솜씨를 가진것이였다.

이제는 노래나 한가지 부르고 태일 또 듣자고 내가 동생들을 달래서야 이야기판이 끝나곤하였다.

동생은 이야기가 끝나는것이 못내 섭섭하여 태석이에게 매달렸다.

《오빠, 농군의 자루에 있던 기장떡이 어떤거나?》

《기장쌀로 만든 노르끼레한 맛있는 떡이다.》

《그럼 그 농군은 기장떡을 맛있게 먹었겠네.》

《창옥이도 공부 잘하면 기장떡이 생겨.》

《아이, 좋아.》

미제원썬들이 불사른 폐허를 복구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던 시기였으나 우리의 식탁이 풍성할리 없었다. 낮게 차렸을 때라야 잡곡밥에 된장국, 양념없이 절인 김치가 고작이였고 미나리나 길경이 같은 산나물을 두고 끓인 밥이나 죽, 범벅으로 끼니를 예울 때가 더 많았다.

태석은 아무 음식이나 달게 먹었고 나와 동생들의 몫이 적어질세라 어른스럽게 양보하곤하였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못내 미안해하면서 태석이 몰래 못마땅한 눈길로 나를 스쳐보곤하였다. 어머니의 그 눈빛은 마치도 《그러게 내 뭐라더냐? 태석이넌 우리보다 좀 나을텐데 공연히 우리 집에 와서 배를 곯게 하잖니?!》라고 나무라는듯싶었다.

식구들이 잠든 밤, 때때로 우리는 나란히 누워서 꿈많은 미래를 속삭였다. 창공을 날것만 같은 희망과 포부로 가슴부풀던 시절이였다. 나는 상급학교에 갈것을 지망하고 있었지만 태석은 생각이는 달랐다.

《난 우선 군대에 나갈테야. 제대되면 고향에서 농살 지어야지.》

나는 태석에게 함께 상급학교에 가자고 권고해 보았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우리 집이야 대대로 농사군집인데 중학을 나오는것만도 나한테 과남하지. 공부 일하면서 차차할테야.》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고 하는 태석의 말임을 깨달은 나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열기띤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조합이 무어졌으니 개인농때보다 우리 농촌이 얼마나 흥성거리니. 우리 문삼에도 목장이 생긴대. 장진국영목장에 가서 양을 백마리나 가져온다지 많아. 앞으로 논을 풀어 흰쌀밥도 먹게 되고 파수나무모, 뽕나무모 같은것도 나라에서 대주어 파수원도 꾸리고 누에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하면 우리가 도시벌방 부럽지 않게 잘살게 된다는거야. 관리위원장 말을 듣구 난 조합에서 일을 할 생각했어.》

졸업을 앞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갈 길도 달라졌다. 하지만 나는 태석을 더 가깝게 느끼었다. 그것은 그가 나를 깊이 이해해주었기때문이었다.

《창호, 넌 꼭 소설가가 되라구. 세상에 이름있는 작가치구 도들 닭지 않은 사람이 없다더라. 누가 뭐라든 뜻을 굽히지 말구 도들 닭아 꼭 성공해야 왜. 최서해, 라도향이랑은 눈물겨운 소설들을 써서 이름이 났지만 창호야, 넌 웃음이 넘치는 좋은 소설을 써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잡길 바란다.》

가슴이 뭉클해진 나는 이불속을 더듬어 태석의 손을 꼭 감싸잡았다.

그럭저럭 예술소조련습기간도 끝나고 태일모래면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60리나 되는 읍으로 떠나갈 날이 왔다. 태석은 옷도 갈아입을겸 아무래도 집에 다녀와야겠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깊숙이 허리굽혀 인사를 했다. 의젓한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나에게 귀속말로 말했다.

《그래야 두살 우라는데 태석인 어찌두 의젓해 보이는지 어른이 다된것 같다.》

다음날 읍에 갈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에 나온 태석이가 목직한 보구레미를 나에게 내밀었다.

《창호, 너희 집 신선풀 많이 졌는데 다르게 생각 말고 받아줘. 명절 쇠라고 우리 어머니가 보내는 거야.》

그동안 태석이를 푸대접한것만 같아 마음 무거워있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말없이 그를 지켜볼뿐이었다.

나는 보구레미를 받을념도 못하고 주눅이 든듯한 볼부는 음성으로 말했다.

《태석이, 친한 동무사이에 신세라는건 또 뭐야? 우리 집에 와서 나물범벅만 먹다 가구선…》

《창호야, 난 그저 별다른 생각없이 명절에 창일이, 창옥이랑 즐겁게 쇠라구… 내가 어린 동생들과 한 약속이야 어떻게 어기겠니? 우리 어머니가 기장쌀을 몇되박 보내는거니 명절에 떡을 해줘.》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아 그를 더는 마주 볼수가 없었다. 이런 동무의 성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죄되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40년 세월이 흘렀어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학창시절의 추억이었다.

2

평화농장소재지마을에 이르러 뺨스에서 내린 나는 댄 고장들에서 볼수 없었던 류다른 풍경에

주의가 끝났다. 산기슭을 따라 줄지어 들어앉은 빨간기와집들, 가장자리의 얼음이 채 녹지 않은 강기슭을 따라 펼쳐진 크지 않은 포전들… 그 때 포전마다에 산더미같은 거름더미들이 쌓였는데 거름더미들에는 굴뚝들이 세워져있고 그 모든 굴뚝들에서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것이 아닌가.

나는 그중 제일 가까운 거름더미로 나가갔다. 곁에 사람이 다가오는줄도 모르고 거름더미곁에서 장작을 패느라고 열중하고있는 농장원에게 나는 말을 건넰었다.

《장작패느라 수고합니다.》

도끼질을 멈추고 나를 마주 보는 그의 역설역실한 눈길에 어리는 묻는 의미를 감촉한 나는 작가동맹에서 왔노라고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러자 그는 반색하며 장작불이 이글거리는 아궁이곁에 토막나무를 놓아주며 자리를 권하는것이였다.

《그럼 작가선생이구만요. 어서 오십시오.》

그의 활발한 성격이 마음에 든 나는 곧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3작업반장 박철린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였다.

두엄이란 쌓아놓으면 저절로 열이 나면서 썩기 마련인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불을 때는가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궁이 미여지게 장작을 밀어넣고난 박철린이 허리를 펴며 말했다.

《부식토에 소두엄이랑 가랑이이랑 많이 넣고 인분물도 꼭 쳐놓아 거름이야 참말 좋지요. 하지만 워낙 기후가 찬 고장이여서 온돌식 속성가마를 걸고 불을 때야 씨불임때까지 잘 썩은 거름을 보장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농사가 썩 더 잘된답니다.》

나는 새로운 눈으로 거름더미를 돌아보게 되었다. 열기가 확확 풍기는듯하고 두엄썩는 독특한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속성퇴비더미는 이전에 내가 고향땅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중의 하나였다.

나는 동창생을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은 충동에 이끌려 김태석관리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박철린은 심중한 낮빛이 되며 한동안 불붙는 아궁이안을 들여다보다가야 눈길을 들어 나를 마주본다. 지금의 그의 얼굴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철린의 눈동자에 한동안이나 깊은 사색이 비껴흐르는것으로 하여 나는 그에게서 매우 심중하고도 내성적인 측면을 엿보았다.

박철린은 생각깊은 음성으로 말하였다.

《농장에서는 사실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이 힘든 직무입니다. 사람들 파반수의 지지만 받아도 그 일군은 괜찮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지요. 다 좋게 해줄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리위원장동지는 백사람중에 아흔

아홉사람이 좋다고 할만큼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관리위원장이 몸을 들이대구 이신작척하니까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속성거름더미 한가지만 봐도 우리 거름더미가 판 농장 거름더미의 두배가 넘습니다. 우리 위원장동진 추운 겨울철에도 꼭꼭 어둑새벽에 일어나 락분 한삼태기씩 줍고 출근한답니다. 모든 관리일군들이 그 모범을 본받고 또 작업반초급일군들도 그렇게 하니까 거름더미가 높아지기마련이 지요…》

박철린의 진중한 음성이 열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나에게에는 벌써 그 말마디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백이면 백사람 다 김태석관리위원장을 좋다고 할줄 알고 찾아왔는데 철린이가 말한것처럼 그중의 한사람은 좋지 않다고 하다니…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평화농장인구가 만약 천명이려면 그중에서 열명이나 관리위원장을 좋지않게 본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마음이 무거워진 나는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박철린이와 헤어졌다.

김태석이네 집은 다른 농장원들의 문화주택과 똑같이 창고를 달아 수수하게 지은 세칸짜리 단층기와집이었다.

나를 알아본 순간 태석은 휘둥그래진 두눈에 놀렘과 기쁨의 빛을 담고 환성을 올리였다.

《어, 이게 누구야, 이 친구가 우리 집엘 다…》

나는 그의 역센 포옹에 몸을 맡기였다.

《자넨 여전하구만… 정열두 넘치구…》

태석은 나의 손을 잡고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설것이를 하고있는 그의 안해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상봉의 첫순간의 대화를 통하여 나와 남편사이가 보통 각별하지 않음을 감촉한듯 너인은 나에게 반기는 미소를 보내고있었다.

귀밑머리는 세고 눈가와 이마의 잔주름은 깊어졌어도 처녀시절에는 무척 예뻐왔을 너인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따듯이 감싸주는 따뜻한 빛으로 밝게 빛나고있었다.

태석은 옷방에서 신문을 읽고있다가 일어선듯한 아들한테도 말했다.

《영호야, 인사해라. 소설 쓰는 작가선생이란다. 학교때 둘도 없는 친구였지.》

작듯이 허리를 굽히는 영호를 보느라니 40여년 전 태석을 만난듯싶었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 여섯상이 벽 한면에 밝고 정중하게 모셔져있었다. 대대로 가보로 전해질 이 사진을 우리러보며 태석이도 그의 안해와 자식들도 충성의 한마음을 가다듬군하였으리라!

방에는 유묘하게 눈에 띄우는 가구비품이란 없

었다. 어느 농가집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수수한 방안이었다. 미색바탕에 흰 꽃무늬가 새겨진 도배지를 새로 발라 방안이 정갈하게 보일뿐이었다.

나는 태석에게 찾아온 사유를 설명했다.

《현실체험 왔네. 지난해 농살 잘해서 일등하지 않았나. 도적으로도... 관리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쓰려고 해. 자넨 원형으로말이야.》

태석은 불현듯 몸을 뒤로 제끼며 꺾꺾 웃었다.

《나를 원형으로 쓴다구? 하하하... 웃기지 말라구. 동창생을 쓴다는 말은 듣다가 침이야. 세상에 어디 그런 소설이 있나?!》

《왜 없어?! 있어두 많지...》 하고 나는 그를 설득시키려고 많은 말을 했다. 그러나 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리 없었다.

《공원한짓이야. 창호, 그런 정열과 시간이 있으면 일 잘하는 우리 농장원들이나 책에 내주게. 그건 나두 반대없네. 그럼 우리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태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백사람중에 아흔아홉사람이 좋다고 할만큼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우리 관리위원장》이라고 하던 박철린의 말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태석이가 농장원들의 백프로지지를 못받고 일하고있다는것을 알고 하는 말이아니겠는가. 나는 알수 없는 중압감에 숨이 가빠져서 입을 다물어버렸다.

《팔백리 먼길을 오느라니 오죽했겠나. 한고뿌하고 오후엔 폭 쉬라구.》

유리고뿌에 《진달래》 소주병을 기울이려는 태석을 만류하며 나는 말했다.

《저녁에 하세. 작업반에 나가야겠네. 자넨 믿었다간 랑패하겠는걸...》,

아무튼 좀 쉬고 나오라며 태석은 농사를 제일 잘 지은 몇몇 분조를 알려주고나서 안해와 함께 먼저 일터로 나갔다.

나는 김태석관리위원장과 오래동안 함께 사업하여온 전쟁로병 박문국로인을 만났다. 그는 70대의 연령치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정정하였다. 동작도 민첩하고 목소리도 담쌌다. 마당가에 새로 걸어놓은 발구며 연장, 후지들만 보아도 그가 분조일을 크게 뒤바라지하고있음을 엿볼수 있었다.

《우리 관리위원장을 책에 내주시겠다니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수. 자, 어서 들어갑시다. 그 사람이야 제가 잘 알구말구요.》

박문국이 어찌도 극진하게 대하여주는지 나는 첫대면에 벌써 허물없는 사이가 된듯 친밀감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농장이 제일 잘사는 농장이 됐지만 태석관리위원장이 처음 왔을 때는 제일 못사는 농장이였지요. 위원장을 만나던 때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날 아침 내가 분조창고를 손질하고자 일손을 잡는데 퇴색한 군대솜옷을 입은 낯선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며 새로 온 관리위원장이라구 자기 소개합니다. 차림새가 하도 수수해서 새로 부임된 관리위원장이라는걸 아직 누구도 모르고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당비서가 군에 가구 없으니... 내 짐작이 맞았습니다. 어디서 묵었는가 물었더니 리합숙에서 잤다구 하더군요. 알아보나마나 합숙에서두 새 위원장인줄 모르구 대접했을것만은 틀림없었지요. 거참 미안하게 됐다구 사과의 말을 하니 우리 위원장이 뭐라구 말했는지아시우.

<나두 분조장아바이랑 같이 일하러 왔지 대접 받으려 오진 않았수다. 합숙이 여복 좋아서요. 괜한 걱정마시구 할 일이나 좀 의논합시다.>

서글서글 웃으며 말하는 그 사람됨이 어찌두 텅텅하구 허물없는지 대변에 확 마음이 끌리구 믿음이 가는게 아니겠수. 그날 태석위원장은 어떻게하면 거름을 많이 받겠는가 저와 의논했지요. 그해 우린 질좋은 두엄을 정보당 서른톤두 썩 넘게 내서 본보기단위가 됐수다.

우리 위원장을 처음 만나던 때 일이 엇그제같은데 벌써 스물다섯해나 지났군요. 하지만 우리 위원장은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자세라우. 위원장이라구 남달리 대해주는건 질색이거든요. 좋은 일엔 언제나 동지들을 내세워주지요. 이번 에두 도적으로 농사를 제일 잘 지었다구 우리 위원장이 도회의 주석단에 앉게 됐었는데 기사장을 보내서 앉게 했구 경험토론까지 시켰지요. 참 쉽지 않은 사람이웨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따르구 품성두 일본새두 본받게 되는가봅니다.》

채 타지 않은 담배꽂초를 재떨이에 비벼끄고 나서 박문국은 실눈을 짓고 말을 잇는다.

《본시 사람은 말이 고운게 아니라 일이 굵다구 했수다. 우리 위원장이 일을 많이 해왔으니 다들 관리위원장을 좋다구 하는거웨다. 하지만 나두 첨엔 위원장을 리해 못했수다. 첫해가 그럭저럭 지난뒤에 다음해부터는 어찌두 일판을 많이 벌려놓는지 기본농사는 다 망쳐먹는가 했었지요. 관리위원장을 고깝게두 생각하구 언쟁까지 한적두 있수다. 위원장이 하는 일이 딱 모험하는것 같기두 하구 농사일에 집중하지 않는것 같아서 제판엔 고집부리다가 비판받은적두 많수다.》

박로인은 추억을 더듬는듯 잠시 말을 끊고 어두운 창밖으로 눈길을 주었다.

3

씨불임을 방금 끝낸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박문국이 방금 소를 메우고 감자밭 후치질을 두고랑째 해나가는데 《아바이, 담배 한대 불이구 하우.》 하는 김태석의 말이 무겁게 들렸다.

오늘아침에 분조마다 두명씩 소밭구를 준비시켜 새땅찾기에 보내면서 작업반장에게 한 말이 관리위원장의 귀에 갔음을 알수 있었다.

《이젠 갑자일이 벌어지는데 후치소를 떼서 보내면 되겠소?! 우리 분조는 오늘 하루나 보내고는 래일부턴 못보낸다구 관리위원회에 말해주.》

이렇게 말했던 박문국은 이왕 이렇게 위원장이 찾아까지 온바에는 배짱을 내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제 새끼를 낳은 당반집 암소는 부리지 못하는거구 여태껏 손꼽히게 부리던 황소가 피통을 쳐서 다리를 절게 됐으니 별수없이 새땅찾기에 후치소를 떼서 보낸것이 아닌가.

나란히 앉아서 담배 한대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도 말이 없던 관리위원장이 무겁게 말을 뱉었다.

《일린이가 돌격대에서 왔대지요?》

전혀 뜻밖의 물음에 문국은 어리둥절해졌다.

《예. 젊은 녀석이 허리를 다쳤대구...》

《가보지 못해서 안됐수다.》

태석은 이 말 한마디를 하고는 일어섰다. 심리적 혼란이 생긴 박문국은 《원 위원장동무두 무슨 말을... 일하다가 몸을 좀 다쳐 온걸 가지구...》 하고는 말끝을 여굴구지 못했다.

관리위원장이 꿈무늬에 찻던 낫을 뽑아 문국에게 내밀며 《분조장아바인 발설이나 치우. 후치질은 제 할테니...》 하고는 성큼 다가가 보탬을 잡았다.

능숙하게 소를 몰아가며 일매지게 흙밥을 번져가는 관리위원장의 솜씨를 흘린듯 바라보며 박문국은 생각이 많아졌다.

발머리에 그늘을 지워 곡식이 자라는데 지장을 주는 잡관목들을 제때에 베어버리지 못하고 관리위원장이 낫을 쥐도록 하다니... 이러한 자책감이 머리를 들었다.

강변 버드나무숲속에서 피콜새소리가 은방울 굴리듯 들려왔다. 구름꽃향기 그윽한 훈훈한 대기속에 울려퍼지는 피콜새의 노래는 류다른 봄의 정취를 안겨주며 가슴부풀게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박문국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공연한 엇드레질이야. 다른 분조장들인들 그런 사정들이 없을라구. 그래도 다 군말없이 고개동 새땅찾기에 소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씨불임을 말끔히 하고 김매기에 들어가기전에 새땅을 많이 찾아내여 한포기라도 더 심어넣어야 알곡수확고를 높일것이 아닌가.)

박문국은 회의때 관리위원장이 하던 말을 생각하며 이렇게 자신을 위우쳤다. 한철참 직심스레 후치질을 하고난 관리위원장이 소를 세우며 말했다.

《아바이, 또 한대 불이구 합시다.》

그는 가셔진 발머리를 흐뭇한 눈길로 돌아보더

니 말을 이었다. 《참 잘해왔수다. 후치군마다 낫을 차고다니며 이렇게 하면 알곡예비도 찾아내구 밭도 멀금해지구...》

관리위원장은 온종일 후치질을 했다. 그러나 박문국이 새땅찾기에 래일부터는 소밭구를 못보내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분명 반영을 들었을텐데도 일언반구 없었다.

박문국은 다음날도 별수 없이 새땅찾기에 소밭구를 보낼수밖에 없었다.

일판을 잔뜩 벌려놓은 태석관리위원장에 대한 불감이 다시금, 머리를 들었다. 새땅을 자꾸만 늘구다나면 일손이 팔려 농사철을 농칠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일육십 많은 관리위원장을 나무람할수도 없고 오늘아침과 같은 불평이 터져나왔던것이다. 박문국이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는데 안해가 전해주는 소식이 그의 부아를 돌구었다.

《여보, 오늘 철린이가 군법무생활위원회에서 왔는데 두달 무보수처분을 받았대요.》

모관관리공이 일을 잘못해서 배추모판 8쪽이나 몽땅 데워죽이고 다시 씨뿌린것때문에 문제가 되었던것이다.

《철린이 이녀석은 어디 갔어?》

《당반집에 종래를 가지러 갔어요...》 하고 대꾸하는 안해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그 불안한 눈길은 마치도 《여보, 그만하기두 다행인들 아세요. 괜히 애를 옥박지르지만 말구 앞으론 그런 실수가없게 잘 타일려주세요.》 라고 말하는듯싶었다.

그러나 일은 안해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았다.

박문국은 아들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귀쌈을 후려갈기며 호되게 꾸짖었다.

《무책임한 녀석같으니라구. 아글타글 일해두 분조일이 잘되지 않아 걱정인데 처벌까지 받다니... 넌 분조장 할 자격 없다. 너같은놈을 분조장으로 뉘두고야 농장이 어떻게 마음놓겠니. 량심이 허락치 않아. 사직해라. 일 잘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너 아니면 분조장 할 사람이 없겠니?!》

무릎을 꿇고앉아 한마디 변명도 못하는 철린이를 눈여겨볼수록 박문국의 가슴은 제구실을 못하는 자식에 대한 노여움과 실망감보다 관리위원장에 대한 불감도 머리를 들었다. 자기의 아래사람을 잘 이끌어주지 못해서 무보수로동까지 시키다니... 심은것만 잘 가꾸두 될텐데 새땅이요 뭐요 일감을 잔뜩 벌려놓다보니 그런 사달까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메돼지를 잡으려 갔다가 집돼지를 놓치는격이지 무엇인가.

박문국의 가슴은 부글부글 피어올랐다.

사흘이 지났다. 박문국이 쪽새밭에서 무우를 심고있는데 김태석위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왔다. 문국은 위원장이 뒤통수에 찌는듯한 더위를 무릅쓰고 심리나 되는 예까지 왔는지 대뜸

집작할수 있었다.

문국을 발머리로 불러내어 담배를 권하는 김태석의 안색은 밝지 못했다. 담배 한대가 다 타도록 침묵을 지키다가야 입을 여는 태석의 음성은 여느때없이 무거웠다.

《분조장아바이, 철린이가 분조장을 그만두겠다고 날 찾아온걸 만나주지 않았수다. 아바이가 아들을 보냈다는걸 왜 모르겠냐요. 두달 무보수처분을 받았으니 아바이 심정이 어떻겠는가 제 모르고온게 아니웨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시우. 당에서 공들여 키운 초급일군을 장기쪽 옮기듯 할수가있나 말이요. 그만한것쯤 잘 아실분이 어찌면 일처릴 그렇게 합니까? 이번 일엔 제 잘못이 큼니다.》

김태석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린듯싶었으나 두눈에서 뿜기는 엄한 질책의 빛을 감출수없었다.

관리위원장이 오죽하면 이 먼 포전에까지 땀을 철철 흘리며 찾아왔겠는가 하는 생각에 문국은 량심이 찔림을 느끼면서도 일단 마음먹었던것인지라 고집스럽게 말했다.

《위원장동무, 이번 기회에 그녀석을 바꿔주시우. 몇년 착실히 일을 시킨 다음에 봅시다. 설익은 녀석을 분조장으로 그냥 뒤흔두고는 내가 잠을 못자겠수다.》

관리위원장이 여러 말로 타일렀으나 박문국은 양보하지 않았다.

하루일을 끝내고 래일 작업조직때문에 몇집에 들리고 오다나니 아홉시가 넘었는데 안해가 여느때없이 류달리 반기는 낮색으로 말했다.

《여보, 영호 엄마(관리위원장의 안해)가 왔다갔어요.》

안해의 낮빛을 가늠 못한 문국은 관리위원장이 보냈으리라는 생각에 속이 불끈해나서 《영호 엄만 뭇하려?! 또 부업에 사람을 내보내라는 기별이겠지?!...》 하고 툭 쏘았다.

안해의 원망에 찬 눈동자에 핑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자 문국은 《아차!》 하고 자기의 실언을 깨달았다. 안해는 한동안 아무말없이 눈물을 흘리었다.

부엌에서 닭소리가 나서 살펴보니 찌리바구니에 발목과 죽지를 노끈으로 처맨 커다란 검정암탉이 담겨져있었다. 안해의 원망에 찬 눈길과 눈물의 의미를 그제야 깨닫게 된 박문국은 죄책감으로 하여 고개를 푹 숙이였다.

《여보, 꼴도 가져왔어요. 일린이 약 써주라구... 저 검정닭이 영호네 종자닭인줄 당신도 아시겠지요?》

안해의 말끝은 성격이 거칠고 의리를 몰라주는 남편에 대한 원망감으로 떨리였다.

박문국은 더욱 고개를 깊이 숙이였다. 아무말

도 할수 없었다. 작은 아들의 보약을 해주라고 종자닭과 꼴까지 보내주는 관리위원장에 대하여 그는 고깝게만 생각했었다.

저도 모르게 핑 어려오는 눈물을 안해한테 보일것만 같아서 문국은 얼른 옷방으로 올라오고말았다.

한달이 지났다. 어느날 저녁 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관리위원장의 목소림을 알고 나갈수가 없었다. 항상 일에 몰려 땀박질하다싶이 달려다니며 일하는 관리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한 일린이를 돌격대에까지 데리고가서 지휘관들을 만나보고 오지 않았는가! 그런 관리위원장인줄은 모르고 불평만 부리다가 이제 와서 고맙다고... 얼마전까지만도 위원장의 말을 안듣고 푸르뎡뎡한 낮으로 대하던 관리위원장을 무슨 려치로 만난단말인가. 대문간으로 마중나가려던 박문국은 죄책감으로 하여 괴롭게 한숨을 쉬며 다시 방에 들어와 담배를 말아불었다.

김태석위원장은 방에 들어서듯마듯 활짝 트인 음성으로 말했다.

《아바이, 한잔 생각나서 왔수다. 좀 있겠지요?》 관리위원장의 인정어린 눈길과 시선이 마주친 문국은 선뜻 입을 열수 없었다. (제구실 못하는애 녀석하나가 뭇이라고 일이 바쁜 사람이 또 시간을 냈단 말인가.)

문국은 가슴이 후터워올랐으나 본의아니게 무뚝뚝한 말이 흘러나왔다.

《위원장 대접할 술은 없수다. 할 말두 없구...》 그러자 김태석은 방안이 떠나갈듯 꺾꺾 웃으며 제잡담 사이문가에 틀고앉았다.

《그럼 좋수다. 제 가져온걸 마실테니 고평나 두어개 주시우.》

바빠맞은 안주인이 눈물이 그렇게서 안주상을 차리느라 서둘렀다. 관리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리라 예상 못한바는 아니였지만 옷사람앞에 허버드러진 말을 내뱉은것으로 하여 문국은 모진 량심가책을 느꼈다.

잔이 몇순배 돌도록 김태석은 말이 없었다. 문국은 자책속에 모대졌다.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종자닭과 꼴까지 보내주며 일린이를 회복시켜 데리고가서 그가 돌격대에 마음을 붙이고 착실하게 일하도록 돌보아주고 온 관리위원장이였다.

그런 관리위원장에 대하여...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줄만 알고 불평만 부리고... 그 따뜻한 인정미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었으니...

부실한 녀석 철린이를 말아 일군으로 키워주려는 그 진정이 얼마나 웅심깊고 뜨거운것인가!

문국은 가슴속 깊은곳에서 불뭉치같은것이 솟구쳐오르며 목구멍을 따갑게 지지는듯하여 입을 열수가 없었다.

입을 실룩거리는 그의 음성은 걱정예 떨리였

다.

《위원장동무, 제 잘못했수나. 애너석을 만나야겠으니 하루만 더 말미를 주시우.》

김태석의 두눈이 확 불타오르는듯 광채를 뿜었다.

《잘 생각했수다. 아바이, 공연한 엇드레질이라느걸 알구 제 이렇게 찾아왔지요.》 그제야 태석은 밝아진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철린이가 받은 처벌이자 곧 제가 받은 처벌이나 같지요. 아바이, 당에서 바라는데로 인민의 심부름꾼, 인민의 총복이 된다는게 말이 쉽지 할한게 아니지요. 아무러면 철린이가 평당포기수를 잘 지켜야 한다고 분조원들한테 똑바로 말해주어야 앓았겠습니까. 아래사람들의 잘못을 책임질줄 모르면 벌써 그런 사람은 책임자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관리위원장이든 작업반장, 분조장이든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책임이 무거운거구 신임이 크게 아닙니까. 어떤 비판이나 처벌두 달게 받을 줄아는 사람이라야 조직과 집단을 책임지고 일할 자격이 있는거지요.》

그는 어제 아들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며 관리위원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문삼에서 작업반장을 할 때였습니다. 한번은 문삼 부위원장과 함께 (그땐 그가 기사장을 할 땐데) 곶을 한마리 썩잡아서 곶고길 나눠줬지요. 얼핏 생각하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일이 어떻게 번져진줄 압니까?! 당조직과 군에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곶잡이를 갖던 오류로해서 우린 당회의는 물론 농장총회에서 호되게 비판받았지요. 기사장은 책벌까지 받을번했구요.

설명절에 작업반원들한테 곶고길 먹이고싶어서 제가 먼저 곶잡일 생각해냈고 일이 바쁜 기사장을 부추겨 데리고 갔던건데 죄없는 기사장을 처벌한다는겁니다. 학교때 상급반에 다니여서 허물없는 사이였지만 기사장을 대하기가 어찌나 죄스럽던지... 절 처벌할 대신 기사장에게 처벌을 주려는것때문에 전 불만이 컸지만 그는 달게 접수하였습니다. 오히려 절 일깨워주더군요. <재미든 골안에 범 난다고 앞으로 관리일군들이나 초급일군들이 우리처럼 제멋대로 곶잡일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할가봐 그러는건데 달게 접수해야 돼. 우리가 사고없이 곶을 잡았지만 미리 당조직에 제기해서 사양조를 무어가지고 떠났더라면 더 좋았을건데... 이번 일을 교훈삼자구. 우리 일군들을 아껴주는 그 사랑이 고맙지 않나. 태석이, 속이 알게 굴지 말라구. 사내대장부라면야 천길 물속갈히 웅심깊은데가 있어야지.> 이렇게 깨우쳐주는 기사장의 말이 모두 옳았지요.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전 기사장을 선행배로서 더 존경하게 되고 그가 조직하고 포치하는 사업들을 더 책

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석은 할 말을 다 한듯 입을 다물었다. 그의 이야기에서 박문국이 받아안은 충격은 저으기 컸다. 분조장사업을 원만히 해오고있다고 남못지않은 자부심을 안고 살아온 문국이였지만 오늘에와서 돌이켜보니 헛나이를 먹었다고 개탄을 금치못하였다. 그는 인민의 총복다운 무게있는 일군이 되리라 마음다지였다.

모진 자책에 모태기던 철린이는 새로 일꾼 분조발을 걸구면서 아예 판사람이 된것 같았다. 새벽이슬을 차며 밭에 나가 돌을 말끔히 추어내며 풀거름을 듬뿍 대느라고 벌을 이고서야 집에 돌아왔다. 분조장이 애쓰니 분조원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을 들인덕에 다음해부터 강냉이 수확고가 쑥 올라갔다.

《그러고보면 제 아들이긴 해두 우리 철린이가 꼭 관리위원장을 닮아가는게 적실하웨다. 군적으로도 농사 잘짓는 분조장이라고 신문에 크게 나자 돌격대에 가있는 일린이도 이제 자기도 한다하는 연공이 됐으니 형한테 못지 않는 혁신자가 되겠다구 장문의 편지가 왔습디다.》

4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꼭 맞는가 보웨다. 제 나이는 태석위원장보다 스무살이나 더 먹었지만 그 사람한테서 참 많은걸 배웠수다. 태석위원장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 뜻을 받들어 참되게 살도록 우릴 이끌어준 생활의 교사이지요.》

박로인의 이야기는 나에게 많은것을 생각해 하였다. 평화농장에 들어서며 만난 첫사람이었던 박철린이 바로 박로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 그러니 어제날 박철린이 자신이 백사람중에서 아흔아홉사람을 제외한 바로 그 한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김태석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있었던 철린이나 그의 아버지까지도 관리위원장을 믿고 따르게 됐으니 이제는 백이면 백이 다 지지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어린 시절추억의 물결속에 실리어오는 김태석의 모습도 훌륭한 모습이였지만 오늘의 그의 모습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가!

태석에 대한 신뢰의 정으로 가슴이 더욱 달아오르는듯 이윽도록 뜨거운 눈길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로인이 말을 이었다.

《처음엔 저두 우리 관리위원장을 잘 몰랐됐수다. 하지만 이제는 잘 알게 돼지요. 성격두, 취미두,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는것까지... 통투무례한 그 체격에 비해서는 식사를 얼마 못하는게 제일 큰 탈이외다. 하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치는지 일하는걸 보면 누구나 혀를 내두르거든요. 일이 사랑이라구 하지만 태석위원장처럼 일 잘하

는 사람을 내세워주구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군을 무섭게 증오하는 일군은 아마 쉽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을 안하고는 못견디게 만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관리위원장 성격이구 제일 큰 장점이지요. 일을 잘해야 나라두 부강해지구 자기자신들두 잘살게 되는게 아닙니까. 이젠 뻔한 리치지만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건 책임일군에 의해 좌우되지요. 관리위원장이 처음 왔을땐 일을 너무 시킨다구 험하게 지내던 사람들 불평두 많았수다. 하지만 이젠 그때 불평불만 부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관리위원장을 더 칭찬합니다. 우리 농장이 제일 잘사는 농장이 됐는데야 왜 안그렇겠습니까!》

이야기는 잠시 동강났다. 로인은 마라초를 두툼하게 말며 한동안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나는 더욱 생각이 깊어지며 박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태석위원장이 우리 로병들을 끔찍이 생각해줍니다. 농장보급실에 새 소설책이 한권 와도 태석위원장은 우리한테 먼저 가져다줍니다.< 아바이, 이 책 좀 읽어보슈. 여기에 아바이가 싸우던 얘기가 써여 있수다.> 위원장이 가져다준 <50년 여름>, <조선의 힘>, <승리> ... 다 읽어봤수다. 칠순이 된령감한테 이런 장편소설들을 읽으라고 가져다주는 관리위원장이 있다면 누구도 잘 끝이듣지 않을거웨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은 진짜로 그랬수다. 그런 책들을 읽느라하면 전쟁때 싸우던 생각이 나서 피가 끓거든요.》

박로인은 물기를 머금은 두눈을 습벅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되새길수록 가슴벅차올랐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리위원장은 한치의 땅을 지켜 피흘려 싸운 전하의 그날처럼 살라고 말없이 이끌어주는것이 아니겠수. 나두 그걸 채심하구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자고 애를 쓰고있수다.》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고 난 박로인은 생각이 깊어지는듯 눈을 쪼프리었다.

《우리 집만이 아니웨다. 우리 마을, 우리 농장의 어느 집 마당에나 우리 관리위원장의 정깊은 발길이 찍혀져있지 않는 집은 없지요. 땅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심되지 않고서야 높은 수확을 바랄수 없지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류다른 감정을 체험하였다. 아무리 허물없는 동창생에 대한 말이어도 여태 들어보지 못하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가.

박로인은 독한 씨레기담배를 두툼하게 붙여물었다. 그는 내가 담배를 그닥 즐기지 않는줄 알았음인지 담배연기를 빼려는듯 방문을 반쯤 열어놓았다. 랑림산계곡을 씻는 개울물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치며 썩- 들려왔다. 4월초라하지만 여기는 아직 물러가지 않은 겨울의 찬바람이런듯 쌀쌀한 기운이 방안에 흘러들었다.

《우리 농장은 농사짓기에 불리하지요. 봄은 늦게 오구 겨울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곡식이 잘 여물지 못하워다. 그런데두 도적으로 농살 제일 잘 지었다는게 큰 자랑이 아니우!》

박로인은 흡족한 미소를 그리며 폭 가라앉은 웅글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장군님 명언에 있지 않수. 믿음은 충신을 낳는다구... 태석관리위원장이 농사 잘한 비결은 바로 그거웨다.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우리 장군님 뜻을 받들어나간거지요. 종자요, 두엄이요, 농사법이요 다 중요하지만 뭐니뭐니해두 땅을 가꾸는 사람들을 믿어주구 이해하는거웨다. 종자두, 두엄두, 농사법두 다 우리 사람들... 우리 농군들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게 아니우.》

밝고 따뜻한 미소로 빛나는 박문국의 영채어린 안광에는 《어떻소? 작가동무,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관리위원장을 꽤 훌륭하게 써낼수 있겠수?》라고 묻는듯한 의미가 실려있었다.

강렬한 창작적충동과 의욕을 느끼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한 나는 조용히 일어서 밖으로 나왔다.

별이 총총하였다. 밤공기는 쌀쌀했지만 후더워진 가슴은 식지 않았다. 반짝이는 별무리들속에 병실병실 웃는 김태석의 둥그스름한 너그러운 얼굴이 어리여오는듯싶었다.

생각이 깊어진 나는 취재수첩을 펼치고 하루동안에 받은 인상을 적어나갔다. 이때 문밖에서 나를 찾는 소리에 나가보니 가방을 멘 영호가 무작정 나의 손을 끌었다.

《선생님, 저의 집으로 갑시다.》

저녁녘에 태석의 집에서 나를 데리려 왔었는데 또 그러나 나는 굳이 사양했다.

《오늘은 예서 묵으면서 박아바이 말을 듣기로 했으니 래일 만나세.》

《사실 우리 아버지 일로 해서 선생님한테 할말이 있어서 그렇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은 듣지 않아도 선생님 말은 들어줄겁니다.》

《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나는 다그쳐 물었다. 허나 그는 어정쩡하게 대답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다시금 부탁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한 마음이 비껴있었다.

《래일은 꼭 가겠네 약속하지... 그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

그는 하는수 없이 걸음을 돌리었다. 그를 대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서던 이집 안주인이 한숨을 내쉬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영호 저 사람이 약을 구해오느라고 대흥까지 갔다왔대요. 아마 관리위원장이 허리증리 또 도

진가 봅시다.》

《관리위원장이 자주 앓습니까?》

《산사때때 심한 타박상을 받은 후유증으로 환절기때마다 앓을 먹지요. 몇년전에 리당에서 관리위원장의 등을 밀어 료양을 보냈었는데 닷새만에 키작은 해바라기씨를 얻어가지고 와서는 온 동네 길설에 심었지요. 그러니 제 병치료야 또 미루었지요.》

《글쎄 다른 사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관리위원장이 왜 제몹은 돌보지 않는지 원.》

박아바이는 말끝을 맺지 못한채 방안으로 들어갔다. 소중히 간직했던 응답을 찾느라고 장농을 뒤지는 주인내외를 지켜보는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친구의 건강이 그런줄도 모르고 앓지 않는가고 한마디 묻지조차 못했으니 친구로서 의리가 없는 나야말로 청맹파니었지.)

나는 스스로 젖어드는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그럴수록 학창시절의 태석의 친근한 모습이 방불하게 그려졌다. 전후의 어려웠던 시기, 넉넉치 못한 살림에도 기장떡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동생들을 위해 애써 기장쌀을 구해가지고 온 태석이, 세상에 이름있는 작가가 되라고 당부하던 태석이.

《최서해, 라도향이랑은 눈물겨운 소설들을 써서 이름이 났지만 장호야, 너는 웃음이 넘치는 좋은소설을 써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잡길 바란다.》라고 고무해주던 그 음성이 귀가에 쟁쟁히 울리는듯만 싶었다. 장하다. 태석이, 너는 학창시절에 지녔던 리상과 희망을 아름다운 현실로 활

짝 꽃피웠구나. 너야말로 나의 참된 동창생이다. 지난 시절 배움의 나날을 함께 보낸 사이더라도 덧없이 흘러보낸 인생으로 하여 뼈아픈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면 무슨 낯으로 서로 만나며 그 누가 동창생이라고 뽀뽀할수 있으랴. 뚜렷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고난과 시련을 뚫고 넘으며 희망의 령마루에 치달아 오른 학우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동창생이라고 자랑차게 말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여태 생각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동창생에 대한 새로운 느낌과 충동으로 하여 격동된 심정에 휩싸였다.

영호가 나에게 곡진하게 할 말이 있다는것은 아버지의 병치료를 넘두에 두었을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동창생이라고 한들 한뼉으로만 정을 쏟아붓는 태석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있으랴.

《영호, 내가 말한다고 병치료를 하겠다고 물러설 아버지가 아니란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포전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밭고랑을 베고 죽더라도 농사일을 그냥 할 아버지이다. 그런 아버지의 신념과 의지를 복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내가 어떻게 너의 아버질 괴롭힐 말을 할수가 있단 말이나?》

나는 이렇게 영호와 마음속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밤 나는 꿈속에서도 학창시절의 태석을 보았다. 나의 동생들인 창길이를, 창옥이에게 노래를 배워주느라고 열성인 태석의 모습이였다. 그런데 동요 《시내물》이 아니라 가요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를 배워주는것이 아닌가. 나는 기타반주를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가사

언제나 백승일세

강래희

지축을 울리며 발걸음 씩씩하게
나가는 우리 군대 저 모습 좀 보소
걸음도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같은
이런 군대 맞설자 세상에 없다오
암 그렇지 여부가 있소
우리 군대 맞설자 세상에 없다오

땅에서 솟았나 하늘서 내려왔나
흐르는 기계군단 볼수록 힘이 솟소
허리띠 졸라매며 땀흘려 일한 보람

무쇠철갑 되어서 세상에 태어났소
암 그렇지 그렇구말구
무쇠철갑 되어서 세상에 태어났소

백두에 날리던 붉은기 휘날리며
나가는 우리 군대 일당백 기상일세
강철의 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진두에 모셨으니 언제나 백승일세
암 그렇지 그렇구말구
장군님을 모셨으니 언제나 백승일세

생의 부름

최양수

먼 산의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비바람소리, 수림의 설레임소리, 골재수의 흐름소리...

컴컴한 동굴안에 자욱히 감도는 내굴안개... 숨막힐듯한 적막... 초조, 불안... 분대장동진 왜 아직 오지 않을까?...

인간세상의 모양에 대해 어렵קות한 표상밖에 가지지 못했던 16살나이때 나의 머리속에 가장 뚜렷이 새겨진것은 사람을 기다리는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리라는것이였다.

나는 눈섭밑에 지긋게 매달리는 줄음을 쫓으며 모닥불에 장작을 던져넣었다. 무수한 불씨들을 확 날리며 피어오르는

고스름연기... 이글거리는 숯불을 줄곧 지켜보느라니 문득 애뜻한 향수의 정이 치밀어오른다. 어슬렁이면 뜬김이 피어오르는 부엌문을 활짝 열고 장난에 빠진 자식들을 불러들이던 어머니들의 정다운 목소리, 그 살뜰한 애무조차 투정질하며 제방뚝아래 모여앉아 새까맣게 타버린 감자로 배를 불러우던 시절... 눈가엔 물기가 펄 고여오른다.

《괴곤하지 않소?》

앞에서 꾸물거리던 거뭇한 형체가 불무지에 터슬터슬한 손을 내민다. 강원도 원산에 고향을 둔 중년의 사람이였다.

《괜찮습니다. 분대장동지랑 언제쯤 돌아오겠는지?...》

《허- 산짐승들도 굶주리고있는 때에 어델 가서 먹을걸 구한다구...원 이런, 울지 않소?》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불밑을 쭈시였다.

《연기때문에... 왜 벌써 깨났습니까?》

《생똥같은 꿈을... 허참!...》

너울거리는 불길에 언뜻언뜻 드러나는 그의 갸릿한 얼굴엔 짙은 수심이 비껴있었다.

저자들에 대한 생각, 진척리나도록 피로왔던 지나간 세월을 더듬을것이다. 해방된 그해 가을 처가집에 찾아갔다가 한많은 인생살이를 원망하며 저승길을 간 장인장모의 무덤우에 눈물을 뿌리고 돌아섰는데 38선이 덜컥 막혀 거치른 남조선땅에서 부평초마냥 떠밀려다녔다는 사나이, 길가의 돌맹이보다 못한 신세에 억울하게 도적루명까지 쓰고 1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전란의 공포가 휩쓴 황량한 거리가 그를 맞이했다고 한다. 생리별을 당한 혈육들이 너무나 그리워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감옥살이에서 쇠약해진

몸때문에 지체하다나니 후퇴하는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급기야 때늦게 북행길에 오른것이다.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물!...》 하는 숨가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일행을 무언지경같은 심산속에 멈춰세운 《대학생》이라는 청년이다.

《원참...자고로 선비치고 약골 아닌 사람이 없다니.》

원산사람은 발뒤축처럼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시뻘겋게 타오르는 참나무숯을 군용밥통안에 넣었다. 《치익-》 하는 소리가 동굴안을 울리였다. 군용밥통뚜껑에 물을 따른 그는 《대학생》이 누워있는곳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한참 부시럭거리던 그는 손더듬, 발더듬을 하며 돌아와앉았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방법인데 차차 오한이 풀릴게요. 사람이 보기하군 다르거든. 저렇게 버들초리같은이가 사상이요 리념이요 하며 병역징집을 기피하고 인민군대를 따라선걸 보면.》

《미국놈들이 미우니까 그랬겠지요 뭐.》

《하긴 그 노랑머리들은 남의 행복을 자기 불행으로 여기는 악한들이야. 제 나라 땅을 뒤두고 멀하려 바다건너 이 먼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불질을 하는지... 입자도 나이를 속이고 군대에 나올땐 그럴만한 연고가 있었을텐데?》

《학교가 불타니까 분해서 군사동원부에 열번이나 갔었습니다.》

《그참!... 전쟁이 무슨 소꿉놀이라구.》

《뭘라구요?!...》 나는 모욕감이 울력 치밀어올라 저도 모르게 목청을 높였다.

원산사람은 흠칠 나았으며 이마를 찌프리고 헛기침을 툇았다. 습관적인 동작으로 갈구리처럼 굵아든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쳐들어 우묵히 패인 볼면을 긁적거렸다.

무료한 침묵이 흘렀다.

격한 마음을 가가스로 진정한 나는 분대장이 항상 입버릇처럼 외우군하던 말을 상기해보았다.

《우리 분대장동진... 이 나라 땅에서 나는 쌀을 먹고 이 나라의 물과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누구나 군대가 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산사람은 묵묵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다른 말을 해도 그는 우울한 얼굴로 짜증이 나리만치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만 했다.

우리의 대화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동굴밖에서는 울스산한 소리가 그치지 않고있

었다.

나는 스르시 눈을 감았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면 벌써 부대를 따라잡았을텐데... 따라잡았을텐데...)

...부대의 전화통신을 보장하고 맨마지막에 후퇴대렬을 따라선 우리가 북행길에 오른 세명의 길손을 만난것은 남강원도 평창계선의 울창한 수림속에서였다.

안쪽으로 두어메터가량 패인 절벽아래에 둘러앉은 그들은 사그라져가는 모닥불을 쪼이고있었다. 얼마나 지치고 굶주렸는지 무장을 한 우리가 나타났는데도 그들의 태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중 원기가 있어보이는 가족잡바옷의 사나이가 얼룩덜룩한 방수포배낭을 궁져들며 경계심어린 시선으로 돌아볼뿐이었다.

분대장이 인기척을 내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권선들을 내려놓은 나는 총가목을 슬그머니 틀어쥐었다. 웬 사람들일가?!...

모닥불앞에서 세사람과 몇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던 분대장이 나에게 손짓을 했다.

채 타지 않은 나무콩다리들을 모아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입바람질을 하던 그는 헐떡거리면서 달려온 나를 향해 허물자리가 난 불을 썰룩하며 빙긋이 웃었다.

《영호, 출처? 옷을 말리고 떠나자구. 이 사람들도 북쪽으로 간다누만.》

불무지에 불길기 확 피어올랐다.

분대장은 《삭정이가 있어야겠는데...》 하며 비박속으로 경충경충 뛰어갔다.

가족잡바옷의 사나이는 여전히 안심치 않은 몸가짐이었다. 곤색코트깃을 올린 청년이 나를 흘깃 스쳐보고는 백목갈은 손가락들을 펼치고 불앞에 바투 다가앉는다. 터덕터덕한 발톱들이 드러난 지하족을 신은 사람이 모아세운 무릎에 꺼칠한 수염을 쓸어문대더니 먼저 말을 걸었다.

《거시기 듣자니까 <공산군>이... 저-인민군대들이 북쪽으로 밀려나우?》

나는 대뜸 기분이 잡쳐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첫 인상을 흐리게 하고싶지는 않았다.

《전략적으로 후퇴합니다. 맥아더와 리승만이 전쟁을 다 이긴것처럼 떠들지만 이제 보십시오. 첫강타엔 썬세길 당했으니가 이번엔 아예 너카우드를 먹지 않나.》

세사람의 얼굴이 대번에 밝아졌다.

말머리를 뗀 사람은 전사령장을 단 나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떠도는 소문이... 부산항에랑 인천항에랑 별난 나라들에서 끌어온 군대들이 수두룩하다던데. 낮판대기가 풀란같은것두 있구 석고같은것두 있구 거뭇 퍼르스름한것두 있다던지. 어드메서 산귀신같은 그런 짐승들이 끌어드느지? 후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었다.

분대장이 삭정이를 한아름 안고,돌아왔을 때에야 어색한 분위기가 다소 풀리었다.

불길기 세차게 타올랐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분대장은 세사람이 몇끼씩 굶으면서 길을 걸었다는것을 알고 서슴없이 자기 배낭을 풀어헤쳤다.

솔직히 우리도 남에게 선의를 베풀만한 여유가 없었다. 점심시간이 켜 지난뒤라 다섯명분의 식사를 위해 내 배낭도 헤치진 않을수 없었다.

군용밥통에 물을 끓이고 건빵과 통줄임통들을 펼쳐놓자 서로 마주보던 세사람이 불안간 일어서는것이였다. 분대장이 지하족을 신은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아 끌어앉히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저- 어서 식사를 하시우. 우린...》

《이러지들 마십시오. 먹는데 량반이 없답니다. 같은 조선사람들끼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분대장이 저춤저춤 물리서는 다른 두사람의 등을 떠밀었으나 가족잡바옷의 사나이만은 딱 뻗치고 선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만... 남의것을 공짜로 어떻게...》

나는 세사람의 심정을 그제야 알수 있었다.

《왜 공짜겠습니까. 우리도 불 쪼인 값을 내야 할게 아닙니까.》

《참 이런... 그거야...》

분대장이 억지를 부리다싶이해서야 가족잡바옷의 사나이를 돌려세울수 있었다.

더운 물을 마시고 음식들이 속에 들어가자 어성버성하던 마음들이 얼마간 누그러들었다. 가족잡바옷의 사나이만이 게름직한 물건을 대하듯 건빵하나를 손에 든채 일견 감때 사나운 인상을 주는 분대장의 얼굴을 흘금흘금 엿보며 긴장하게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있었다.

세사람에게 물을 권하기도 하고 공연히 불을 손질하기도 하며 식사를 하는동안은등 하던 분대장이 모자를 벗어들고 모표를 닦기 시작했다.

일시 동강났던 이야기가 계속되였다.

북행로상에서 길동무가 된 세사람은 생활경위나 떠난 목적이 서로 달랐다. 《대학생》이라는 청년의 동향이 꽤젊은편이였다. 외진 산골의 제입건사나하는 농사군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적부터 《봉선화》의 노래에 심취되었고 우리 나라의 이름난 음악가 흥난파를 숭배하여왔다. 대학시절 학우들속에서 돌아가는 좌익서적들을 읽게 되면서부터 그는 민족예술의 황무지로 전략된 남조선사회의 암담한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 전쟁을 앞두고 대대적인 병역징집소동이 벌어지자 그는 저주로운 남조선사회에 침을 뱉고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깊은 산속에서 뒤늦게 전쟁소식을 들은 그는

노도처럼 진격하는 인민군대의 공격앞에 갈팡질팡하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을 보면서 모순에 찬 상념을 털어버렸다. 스승들과 친구들로부터 《유토피아》의 세계와도 같은 공화국복반부소식을 듣게 된 그는 손때묻은 바이올린통을 들고 단연히 북행길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머리속엔 아직도 군대란 그가 어느편이든 살인자, 파괴자, 략탈자라는 구태의 연한 인식이 지워지지 않고있었다. 《대학생》은 그런 속심을 조심스럽게 나타내군했으나 가족잡바옷의 사나이는 천해보이리만치 겁이 많았다. 옆으로 돌아앉을 때 조차 배낭부터 손더듬질하군하는데 내가 무기를 잡고 일어서자 두눈을 홑뜨고 벌렁 넘어지는 시늉까지 했다. 전쟁관리관에 폭탄세례를 받아 집이 통채로 무너지고 그안에 있던 식구들이 모두 죽었다는것, 대구 《현대화학》회사 연구소에서 일해왔다는것, 이북의 옛 대학동창들이 간곡한 당부가 담긴 편지를 보내와서 그들을 찾아가는 등 아리송한 그의 뒤생활은 어쩐지 믿음이가지 않았다. 누구를 속일줄 모를듯한 원산사람은 무엇인가 자꾸 알고 싶어하면서도 왕창같은 말들을 꺼내군했다.

《저-인민군대어른, 미국놈들이 원자탄이라는걸 가지고있다는 소릴 들었수? 그걸 던지면 북조선 땅이 몽땅 재가루가 된다고들 하던데...》

입을 반쯤 벌린채 눈을 깜벅이기만 하던 분대장이 갑자기 통줄임통을 쳐들고 평평 두드렸다.

《이게 왜 소리가 요란스러운지 압니까? 허허허... 빈 깡통이기때문이지요.》

분대장을 따라 나도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다. 다들 큰소리로 웃었다. 원산사람은 한참이나 웃고나서 눈굽을 주먹으로 꺾꺾 찍어냈다.

《제발... 그 불한당놈들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애들이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할텐데. 집이, 우리 집이 무사하기나 한지? 어-허!...》

쿵쿵 웅글은 폭음이 들려왔다.

재빛하늘이 희벗해지면서 바람이 잦아들었다.

비발도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옷이 마르고 요기를 한 뒤라 기운이 솟구쳐다.

우리가 떠나려는 기미를 보이자 세사람들도 주섬주섬 일어섰다. 나는 그러는 그들을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았다. 왜들 이렇가? 혹시 이들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가뜰이나 늦어진 길인데 이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느라면 어느 하가에 부대를 찾아가간단 말인가.

나는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분대장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분대장은 이미 결심하고있은듯 세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같이 가기로 합시다. 명심할것은... 각자가 처신을 잘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출발합니다!》

분대장이 앞에 서고 내가 뒤에 서고... 《대오》는 길을 떠났다. 밋을듯싶던 비는 구질구질 내리고있었다. 고개 하나를 넘는 사이에 옷이며 신발이 흠뻑 젖어들었다. 두렵게 쌓인 락엽과 마구 뒤엎킨잡관목들을 헤치면서 길을 개척하는 분대장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걸음속도라도 빨랐으면 좋으련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듯하는 세사람의 행동거지를 보느라니 나는 속에서 불이 이는것 같았다.

(젠장, 우리가 무슨 빗을 졌다고 이 고생이란말인가?!)

앞에서 《어-어!-》 하는 외마디소리가 들려왔다. 발을 헛짚은 가족잡바옷의 사나이가 허공에 대고 팔을 흔들면서 그만에야 둔하게 넘어졌다. 데굴데굴 굴러내려 산중턱 바위우에 간신히 앉은 그는 무릎을 붙잡고 쿵쿵 잡자르고있었다.

모두들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했으나 미운 사람 고운데 없다고 나는 동정심은 커녕 쓰겁게 웃고말았다.

분대장이 날듯이 달려내려가 그를 일으켜 앉혔다.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이 무릎이 좀... 이거 정말 안됐습니다. 나는 여적 이런 산길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똥기적거리며 일어난 그는 겁에 질린 눈을 희빈덕거리면서 네발걸음으로 황급히 기여올라왔다.

자작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지팡이 비슷한것을 만든 분대장은 가족잡바옷의 사나이에게 그것을 주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인민군대 어른!...》

근엄한 안색으로 뒤사람들을 쭉 훑어본 분대장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었다.

고달픈 행군이였다. 한사람이 털썩 주저앉으면 할수 없이 휴식을 해야 했고 개울물을 건널 땐 거기서 또 다리섬을 해야 했다. 원산사람이 정견디기 힘들어 천천히 견자고 사정했으나 분대장의 걸음속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기운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등산길을 걷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우 고개 하나를 넘자 세사람은 신발끈을 고쳐매겠다느니, 배낭끈이 풀렸다느니, 뭐가 또 어떻게다느니 하며 별의별 구실을 다 만들어냈다. 잔뜩 속이 뒤틀린 나는 분통을 터뜨리고말았다.

《이건 량반노죽을 부리자는건가, 젠장!...》

그것은 분대장에 대한 불만이기도 했다. 늘 존경해오던 그에게 처음으로 품게 되는 감정이였다.

분대장의 엄한 눈길이 나의 얼굴에 와닿았다. 그 무언의 질책에 기가 죽은 나는 씹씹거리면서

참을성을 발휘할수밖에 없었다.

수립속엔 일찌기 어스름이 깃을 펴기 시작했다.

머루넝쿨이 보이는 으스스한 골짜기로 내려간 분대장이 좀 있어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나는 맥폴린 다리를 터벌터벌 옮겨짚었다.

《하루종일 비가 왔는데두 넝쿨안의 가랑잎엔 전기가 있소. <자연천막>이라고 할가.》

분대장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세사람의 얼굴엔 시름겨운 미소가 언저려졌다.

쫘넝쿨, 머루넝쿨들이 뒤엉키고 마른 잎새들이 지붕처럼 덮인 《자연천막》안은 바람도 가리우고 폭신평신허게 락엽이 깔려 제법 아늑한 감을 주었다. 세사람은 척척 드러누워 까딱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바가 없었다. 분대장만이 바깥쪽에 앉아 입김을 불어가며 열심히 모표를 닦고있었다. 여느때 심상하게 보아오던 그의 행동이었으나 이날만은 그저 레사롭게 안겨오지 않았다.

언젠가 야간행군을 하던중, 휴식참에 은하수 흐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분대장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이 모표에 왜 붉은 오각별을 새겨넣었는가?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빨찌산들의 녀를 이어받았기때문이요.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혁명의 붉은 녀를! 그러게 모표는 곧 군인의 정신상태라고 말할수 있지.》

그는 자기의 이 생각을 분대원들이 따를것을 요구했고 모표에 한점의 녹이라도 있는 대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군했다.

수립속에는 피피한 정적이 흐르고있었다.

(이러다 부대를 따라잡지 못하면 어떻게 할가? 식량도 없이... 이 사람들을 떼버릴수도 없는 노릇이구...)

나는 조심히 일어나 분대장에게로 다가갔다.

그런데 자는줄 알았던 세사람이 화닥닥 일어나 앉았다. 분대장이 일어서기만 하면 짐을 둘러메고 따라설판이었다. 호미난방이라더니, 마음씨 무뎠던 분대장덕에 고생보파리만 커진셈이었다.

(이건 막 들어붙어 안떨어지겠다는거군!)

남의 가슴은 바글바글 끓고있는데 분대장은 어느새 바이올린통을 부둥켜안고 가까이 다가왔은 《대학생》을 바라보며 팔자늘어진 소리를 했다.

《어참, 절간의 중들은 어떻게 사는지? <대학생>... 거 소리 해볼수 없겠소?》

《네?! 갑자기 무슨...》

《나도 한때 세상돌이를 할적에 바이올린소리 들어본적 있는데 거 참 좋더구만.》

원산사람이 《대학생》을 부추기였다.

《인민군대어른들을 위해 한번 해보게, 어서!》

나는 뜻밖의 일앞에서 아연해지기만 했다.

《대학생》이 동안에서 천으로 정성스레 감싼 바이올린을 꺼내들었다. 음정을 맞추어본 그는 이윽고 활을 굿기 시작했다.

슬픔에 잠긴 녀인의 애달픈 한숨소리같기도 하고 달빛어린 강변에 나란히 앉은 청춘남녀의 속삭임같기도 한... 세련된 기교와 짙은 정서가 흘러 넘치는 은은한 선율이 오래동안 지속되었다.

활을 멈추고 명상에 잠겨있던 《대학생》이 녀성적인 음성으로 말했다.

《홍란과선생의 <성불사의 밤>입니다. 창작<처녀혼>에서 대표작에 속하지요.》

《노래가 좋긴 한데... 너무 쓸쓸하구만.》

분대장의 소감은 그대로 나의 느낌이기도 했다.

《우리 민족의 감정이지요. 왜놈들의 계다짜에 짓밟히고 또다시 미국놈들의 군화발에 채워 눈물이 마를새 없는 민족... 아, 이 나라 산야엔 해마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곱게곱게 피건만 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언젠가면 따뜻한 봄빛이 흘러들겠는지...》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별 하나 없는 컴컴한 하늘가 멀리를 바라보았다.

《이북소식을 듣고 전 옛말속의 무릉도원을 그려보았지요. 그래서 떠난 결음인데... 참말로 선량한 마음들만 있고 악과 원쑤가 없는 천국의 이상세계가 이 땅우에 존재하고있는지?...》

분대장은 두툼한 눈섭을 꿈틀하고는 두손을 맞잡고 꺾꺾 주무르기만 했다.

나는 《대학생》의 지향이 리해되면서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때에 목가적인 감정에 빠져있는 그가 지어 경멸스럽기까지 했다.

《거 나도 한마디 하라오?》

분대장이 궁싹거리며 궁기침을 깃었다. 마른침을 꿀꺽 삼킨 그는 결결한 목청으로 노래를 불렀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에 빛난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그는 박자에 맞추어 주먹을 흔들면서 힘있게 노래를 불렀다. 바이올린소리가 이끌어온 쓸쓸한 분위기가 한결 풀리는듯싶었다. 노래의 2절이 한창 고조되어가고있을 때 《대학생》이 소리쳤다.

《가만! 그 노래 제목이 뭐니까?》

분대장이 몸을 뒤로 젖히며 꺾꺾 웃었다.

《노래가 어떻게? <조국보위의 노래>라고 하는데...》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좋습니다! 기백이 넘치는... 아주 훌륭합니다! 곡도 좋고...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줄수 없습니까?》

분대장은 그러는 《대학생》을 정찬 눈길로 한참 바라보더니 웅글고 저력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다시 불렀다.

노래를 듣던 《대학생》은 흥분을 건잡을수 없듯 품속에서 수첩과 연필을 꺼내 채보를 해나갔다. 원산사람도 힘이 나는듯한 눈치였고 바이올린소리를 들을 때는 침울한 얼굴로 배낭에 비스듬히 기대고있던 가족잡바웃의 사나이도 슬며시 일어나앉았다. 그는 무엇인가 물어보려는듯했으나 소심성이 앞서서인지 분대장의 다음말을 주의 깊게 기다리고있었다.

노래를 마친 분대장은 싱긋 웃으며 세사람을 둘러보았다.

《글쎄 난 <무릉도원>이요 <리상세계>요 하는 유식한 말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자네가 말하는그런 세상을 눈물로 부르지만 해서는 뭘하겠나. 자기 땀을 바쳐 세우고 자기 피를 바쳐 지켜야지. 그렇지 않나, <대학생>.

난 해방이 돼서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에 땅의 주인이 되고 천덕꾸러기신세를 면하구셔야 깨달았소. 제 땅, 내가 주인인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고 귀중한가를 말ियो.

도대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란 말ियो? 응?... 자네나 나 우리모두가 주인이 아니겠소. 그러니 제 집에 뛰여든 강도를 우리 주인들이 그냥 가만 두두겠는가. 장작을 패는것처럼 미국놈들의 대갈통을 짓조겨덜판이지.》

우측 일어난 분대장은 짹 틀어진 커다란 주먹을 내흔들었다.

《자, 이젠 떠납시다!》

《자연천막》을 떠나는것이 아쉬웠지만 누구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철혹같은 어둠속을 뚫고 행군은 계속됐다. 가족잡바웃의 사나이는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처럼머리를 수긋이하고 말없이 걸었고 《대학생》과 원산사람은 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퍼 들이대는것이였다. 북반부현실에 대하여, 전쟁에 대하여, 분대장에 대하여...

조상대대로 이어온 머슴살이신세를 면해보려고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난 분대장은 철길전설, 배전소심부름군, 탄광로동을 비롯하여 못해본 일이없었다. 배전소심부름군을 할 때 왜놈기술자가 뺨찌를 잘못주었다고 변대우에서 내리던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까무라친적도 있었다. 해방이 되어 흩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고달픈 뜨내기 생활과 리별을 하고 지옥같은 세월에 어데 가거나 쏘아부울곳이 없었던 가슴속의 정을 아버지이름으로 분여받은 땅에 고스란히 바치였다. 아낌없이 정성을 기울여온 산불이같은것들이 하도 소중하기에 그는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자 남먼저 군복을 입었다.

원산사람은 감심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생긴 얼굴상치인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구려. 그러게 남의 하정을 자기 일처럼 헤아리는것 이지...

이보라구, 저... **김일성장군**님께서 농사군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셨다니 우리 집도 받았을가?》

《반다뿐이겠습니까. 덩실한 기와집도 짓구 누렁황소도 사맷을겁니다.》

《황소까지? 원 저런!... 빨리 가자구, 빨리!》

뒤를 바싹 따라오던 가족잡바웃의 사나이가 어째서인지 긴숨을 후- 내쉬었다.

우리가 부대를 만나게 된 지점에 이른것은 동녘하늘이 희뽁히 밝아올무렵이였다.

폭이 퍼그나 넓어보이는 령진강기슭에는 부대의 도하흔적은 있으나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않았다. 뒤집힌 차량들, 폭탄구멍이들, 중간이 몽청 떨어져나간 다리... 적들의 항공타격이 남긴 피해상이다. 전선이 따로 없는, 언제 어느쪽에서 총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엄혹한 시기였다.

강기슭을 거닐던 분대장이 난감한 기색을 하고 돌아왔다.

《수심이 꽤 깊을것 같구만. 배는 없고... 떼를 무읍시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주변근처에서 통나무들을 구해오기로 했다.

분대장이 굵다란 통나무 두대를 맞붙여놓고 떼를 무을 차비를 서두르는 사이에 원산사람, 《대학생》 나는 겨우 한대씩 날라왔다. 분대장이 끊어진 다리에 가면 쓸만한 나무가 있다기에 우리는 그리로 달려갔다.

혼자서 어데 갔겠는지 가족잡바웃의 사나이는 맨 마지막에 나타났다. 그가 돌레메고온 참나무는 꼬불꼬불한데다가 길이가 짧고 가늘어서 내가 강물에 흘 집어던지고말았다. 그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했지만 어쨌든 떼는 무어졌다. 톱, 도끼가 없이 쇠바줄, 얇고 가는 쇠불이들을 주어다가 비끄러매고 두드려박아서 만든 띠목이였으나 일행이 강을 건스기엔 안성맞춤했다. 다들 일할 땀 손뼉처럼 구경만 하던 가족잡바웃의 사나이가 선참으로 떼에 올라 배낭과 지팡이를 안고 제일 안전한 중간에 자리를 잡았다.

더이상 참을수 없었다. 울컥 치미는 분기들 터치려던 나는 분대장이 팔을 와락 거머잡고 돌려세우는 바람에 미처 입을 벌리지도 못했다. 짐계에 물리운듯 팔이 저려났으나 엄살을 부릴새도 없이 그가 이끄는대로 끌려갔다. 모재비로 자빠진 군용트렁뒤에 이른 분대장은 상처자리가 두드러져 광대뼈가 볼록 뻐여져나온것 같은 불륜을 푸들푸들 떨었다.

《뭐야! 어찌자는거야, 엉?!》

지금껏 보지 못했던 분대장의 모습이였다. 그가 이럴 때도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눈앞이 뿌옇이 흐려왔다. 고막을 아프게 자극하는 분대장의 성깔스러운 목소리!...

《영호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그래도 복으로 간다는건 우리 편이라는것이 아닌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공화국의 영상이라는걸...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받는 공화국의 모습이라는걸 왜 모르는가 말이야!》

《분대장동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그렇다고 랭습한 땅에서 당장 알찬 열매를 기다릴수 없지 않나.》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있던 그는 나의 한쪽 어깨를 잡아흔들었다. 《영호, 다시는... 그래선 안돼!》

나는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지 아무래도 이해할수 없었다. 이해하지 못하고 명령처럼 받아들이는 분대장의 말이어서 강기슭에 와서는 가족잡바웃의 사나이를 쏘아보았다.

(흥, 저 배낭안에 금덩이라도 있는가?...)

나와 《대학생》이 앞에서 방향을 잡고 분대장과 원산사람은 긴 작대기로 떼를 밀었다.

재빛구름이 낮추 드리운 하늘, 짙은 안개, 습기를 머금은 차디찬 바람... 으스스 몸이 떨려왔다.

만들 땀 커보이던 떼목이 물속에선 장난감처럼 초라했다.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통나무들이 제각기 흔들흔들하는것이 금시 떼가 부서져 흩어질것만 같았다. 강복판으로 들어갈수록 상상외로 물살이 빨랐다.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보내며 강중심을 넘어섰을때 난데없이 불쑥 솟구친 농작비슷한 물건이 떼목앞머리를 통 때렸다. 그칠나에 나를 붙잡으려던 《대학생》이 《아, 저걸!》 하며 물속에 침범 뛰어들었다. 동동 떠가는 바이올린통을 잡은 그는 물속에 잠겼다 솟구쳤다 하면서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렸다.

분대장이 작대기를 내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대학생》에게로 다달은 그는 벌써 열댓미터. 밀려간 떼목을 향해 웨쳤다.

《떼를... 떼를 기슭으로- 오!》

어리둥절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던 떼우의 세사람이 목갈린 소리로 울부짖었으나 분대장은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강물을 헤가르며 기슭쪽으로 몸을 돌리었다. 사품치는 물속에 뛰어들려는 나를 원산사람이 와락 덮쳐안았다.

《안되오, 죽는단 말이요!》

《아아- 분대장동지!...》

차거운 감탕물이 넉넉 솟아올랐다가 떼목을 사정없이 후려갈긴다. 원산사람이 몸을 비틀고 입안의 물을 내뱉는다.

《기슭으로 나가자구, 어서!》

분대장과 《대학생》은 점점 멀어져 안개속에서 가늠해보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떼를 몰아갔다. 떼가 기슭에 채 닫기도전에 뛰어내린 나는 경황없이 내달렸다. 《대학생》을 돌쳐잡은 분대장이 강기슭으로 기어나와 감탕판 위에 폴썩 쓰러진다.

《분대장동지-이!...》

나를 본 그는 축 늘어져있는 《대학생》에게 눈짓을 했다. 《인공호흡...을... 빨리...》

나는 뒤미처 다달은 사람들과 함께 인사불성이 된 《대학생》을 소생시키느라고 들볶아쳤다. 기진한 신음소리를 내던 《대학생》이 《내...바이-올린...》 하고 웅얼거렸다. 그제야 손맥을 놓은 원산사람이 바이올린통을 두드리며 버럭 소리질렀다.

《정신이 쏙 빠졌군. 저승에 가서도 이 잘난 께깡이를 찾을텐가!》

나는 《대학생》을 업고 두사람은 분대장을 부축하고 맞은편 산기슭에 이른 우리는 휴식을 하게 되었다. 모닥불을 피웠다. 얼마 안되는 건빵을 털어내여 미움을 쏘었다. 《대학생》의 입에 미음을 떠넣어주던 원산사람이 울먹울먹하며 말했다.

《우린 참 행운스러운 사람들이요. 좋은 길동무들을 만났으니까.》

가족잡바웃의 사나이도 동감이라는듯 머리를 끄덕이었다.

원기를 회복한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다. 허나 갈수록 험산이라더니 《대학생》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일행은 어느 맹수의 안식처일지도 모를 이 자연동굴을 찾아 하루밤 묵게 되었다. 식량이 문제였다. 토의끝에 분대장과 가족잡바웃의 사나이가 길을 떠나기로 했다. 나와 병약한 원산사람이 환자간호를 위해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다가 부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 소대장동지람 기다릴텐데... 기다릴텐데...)

나는 불안스러운 생각을 좀처럼 지워버릴수 없었다. 원산사람이 물을 길어오겠다면서 군용밥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나는 보초도 설겆 분대장도 기다릴겸 기관단총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동녘하늘이 희뵤히 밝아올루뵤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의 수림속에서 인적이 가 났다. 분대장동지인가 아니면 혹시 적들이... 반가움과 경계심이 뒤엉키는속에 나는 어금이를 앙다물고 기관단총을 꼭 틀어잡았다.

드디어 수림속해서 가족잡바가 불쑥 나타났다. 그뒤로 낯선 사람들이 줄레줄레 따라섰다. 담가를 든 사람들도 보였다. 그런데 분대장동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분대장이 보이지 않았다.

왜서인지 겁이 덜컥 났다. 혹시...

나는 상서롭지 못한 생각을 털어버리며 그들에게로 구울듯 달려내려갔다. 가족잡바웃의 사나이는 나를 보자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주먹을 들어 눈굽을 닦았다.

그앞에 마주선 나는 다우쳐 물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동지는... 분대장동지는 왜 보이지 않는가요?》

《으흐흑!...》

가족잡바웃의 사나이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찌르고 풀썩 주저앉으며 오염을 터뜨렸다.

뒤따라선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그 짓눌린듯한 울음소리가 공명을 일으키며 순간 나의 귀전을 멍하게 했다. 나는 벌어진 일이 어떤것인가를 룩감으로 느끼었다. 머리가 텅 율린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빠져버리는듯 싶었다. 마비가 온것처럼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목안이 콕콕 조여드는것 같다. 입술은 이미 감각을 잃고... 나는 허청허청 걸어갔다. 생솔나무와 칙줄기로 어설프게 만든 담가우에 반듯이 누워있는 분대장이 눈에 띄었다. 믿어지지 않는, 믿고싶지 않은 현실앞에서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은 나는 쓰러지듯 담가앞에 어푸러졌다. 가슴을 짚어보았다. 축축한 감촉, 악몽과도 같은 공포... 잇달아 머리속을 픽 스치는것은 《죽음》이라는 두 글자였다.

《분대장동지!... 이게 웬일입니까? 예?! 눈을... 눈을 뜨십시오!》

누군가 불을 켜주었다. 분대장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눈을 꼭 감고 무슨 말을 하려는듯 입을 조금 벌리고... 나는 껴이꺼이 느껴올며 목메인 소리로 분대장을 불렀다.

《아!- 분대장동지!-...》

기적인가. 영영 열릴것 같지 않던 분대장의 두통한 입술이 움썩거렸다. 겨우, 그야말로 간신히 눈을 뜨고 나를 확인한 그는 손을 올리려다가 맥없이 도로 내리웠다. 가물기리는 의식을 붙잡으려고 힘을 쓴다는것이 얼굴의 상처자리가 약간 움직일뿐이었다.

《미-안하오... 영호...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장군님의 군대... 인민군대라는걸... 잊-지말구... 가는 길이 험치... 앓을거네. 그럼 부탁...》분대장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분대장동지! 분대장동지!- 이렇게 쓰러지면 나는 나는 어떻게 하랍니까? - 아-하- 아!-...》

나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분대장의 얼굴에 불을 비비며 몸부림쳤다. 목선 울부짖음이 애절한 호곡소리마냥 웅글은 메아리를 일으켰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산골짜기로 내려가던 분대장과 가족잡바웃의 사나이는 어슬넱아 자그마

한 농촌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에 이르러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철사로 결박한 여러명의 청장년들을 벼랑앞에 세워놓고 피뢰군놈들이 사격준비를 하고있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악귀같은놈들! 동족도 모르는...》

분대장이 두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가족잡바웃의 사나이는 이발을 딱딱 맞조으며 분대장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어쩔러구 그럼니까? 어쩔러구!...》

《저런놈들때문에 조선사람들이 값없이 피를 흘린단말요!》

가족잡바웃의 사나이가 어쩔사이도 없이 분대장은 비호같이 몸을 날렸다.

귀청이 터질듯한 자지러진 총소리가 산골짜기를 들었다놓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였는지... 풀숲에 머리를 구겨박고있던 가족잡바웃의 사나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는 물속같이 고요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그는 매캐한 화약냄새를 맡으며 속이 한줌만해가지고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철사 풀어진 사람들과 분대장이 서로 부둥켜안고 포옹하고 있었다.

안도감과 함께 자기 존재의 가공함을 뼈아프게 절감하며 그는 산골짜기로 후들거리는 다리를 옮겨짚었다.

기적적으로 구원된 사람들은 인민군대에 의해서 이곳이 해방된후 토지개혁사업에 발벗고 나섰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였다고 하여 놈들에게 붙잡혀 갇은 악형을 당하던 끝에 사형장까지 끌려나온 무고한 사람들이 었다.

이 근처에 적들의 한개 련대가 불시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분대장은 어서 산으로 오르라고 그들을 떠밀었다. 주변을 다시한번 둘러보고 분대장이 맨 마지막에 떠나려고 할 때 놈들의 시체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쪽에서 두방의 총소리가 울려왔다. 그중 한방의 총알이 분대장의 심장부위를 뚫고지나갔다.

...이름없는 심산속에 묘비도 세우지 못한 하나의 무덤이 생겨났다.

붉은 오각별이 새겨진 모표가 유난스레 반짝이는 병사모앞에 마가울의 하늬바람에도 스러지지 않은 청초한 들국화꽃뭉음을 놓고 우리는 분대장을 추모하여 오래오래 서있었다.

《대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바이올린으로 《조국보위의 노래》를 연주했다.

노래선율이 나의 가슴속에 비장하게 흘러들었다. 심장의 피를 끓게 했다.

전쟁이 끝나면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에서 보란듯이 농사를 짓겠다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 땅을 지켜, 조국의 존엄을 지켜,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참되고 숭고한것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분대장동지!

무덤가의 흙을 움켜쥐고 그냥 어깨 들먹이고있는 나에게로 가족잡바웃의 사나이가 다가왔다. 그는 분대장이 만들어준 지팡이를 아직도 쥐고있었다. 귀한 물건은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쓸어보던 그는 분대장의 모자를 바라보며 축축히 젖은 두눈을 습벽이었다.

《어느 시인이 쓰기를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밝게 비친다고 했소. 이 사람의 마음은 이 별속에 있소. 이 붉은 별속에!...》

그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여직껏 털어놓지 않고 있던 속마음을 뒤늦게나마 고백했다.

그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었다. 조국이 해방되고 시국이 변화되자 항간에 떠도는 풍설에 속히워, 왜놈들밑에서 기술자로 일해온 경력이 두려워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갔었다. 아무곳에서 누구한테 복무하든 과학에는 사상과 국경이 없다는것이 그의 《신조》였다. 그러나 차례진것은 굴욕과 멸시였고 처자를 잃은 가슴아픈 비극이었다. 북녘의 옛 대학동창생들의 편지를 통해 조국과 민족을 떠난 과학이란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그는 치욕스러운 과거에 대한 쓰라린 회오감을 안고 북행길에 올랐던것이다. 배낭속의 비밀도 애국심에 바탕을 둔 과학의 보물세계였다...

나는 주먹으로 눈굽을 닦고 분대장의 모자를, 어둠속에서 반짝이는 한점으로 불꽃같은 모표를 점도록 바라보았다.

이젠 어떻게 할가? 어떻게?...

때이른 나이에 익숙되지 못한 깊은 생각속에 잠겨있던 나는 은연중 벗어난 모자의 모표를 손등으로 닦았다. 그리고 기관단총부혁을 틀어잡고 분연히 머리를 쳐들었다.

모두의 눈길이 일시에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분대장이 구원한 사람들이 낮설어 보이지 않았다.

우리 공화국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여, 비록 놈들의 고문을 받아 상한 몸들이지만 강철처럼 굳세여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더욱더 믿음이었다.

나는 은근히 심신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아직 철부지라고밖에 볼수 없는 나의 모습에서 분대장을 보고있었다. 그에게서 감득했던 진실하고 참되고 역센 그 귀중한것들을 찾고있었다.

이전같았으면 분대장이 없어 허전하고 외로웠을것인데 나는 전혀 그런 감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 일행은 분대장의 봉분앞에서 깊이깊이 머리숙여 묵상하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기였다. 슬픔을 이겨내야 했다. 슬픔을 천백배의 복수로 바꾸어야 했다.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무슨 고생인들 없었으랴.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열다섯사람들의 눈빛, 그것은 나의 행동을 지켜보는 분대장의 눈길이기도 했다.

《장군님의 군대, 인민군대라는걸 잊지 말구...》

이들간 행군하여 이른아침의 붉은 노을속에 물든 산마루에 올라선 우리는 거기서 적후투쟁을 하는 부대를 만났다. 그날 나와 함께 온 사람들 모두가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전승의 축포가 오르던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나는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고 《대학생》은 인민군협주단의 재능있는 작곡가로, 원산사람은 로력영웅으로, 가족잡바웃의 사나이는 명성높은 교수, 박사로 성장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당과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충실히 사임하고있다.

우리 집에 있는 나의 서재우에는 지금도 분대장의 색날은 모자가 놓여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오각별이 반짝이는 모표를 볼 때마다 나는 분대장의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

그의 목소리를, 그의 부름소리를 듣곤 한다.

병사의 휘파람

리창식

다리우에 마지막 상관부채를 덮고
병사! 보란듯이 휘파람을 분다
휘파람 호이호이- 날려가는곳
하늘이 맑다
해빛이 눈부시다

무엇으로 안아온 병사의 위훈인가
무엇으로 들어올린 거대한 다리인가

무엇으로 마중할 완공의 시각인가
무엇으로 앞당길 최후의 승리인가

병사의 대답은 유쾌한 휘파람!
장군님 안겨주신 승리자의 랑만
돌과구를 열어제긴 의지의 강자
붉은기를 꽃아놓고 휘파람을 분다

사랑과 위훈

신용선

청천강기슭의 절벽과 계곡을 벗어난 렬차는 드넓은 벌을 안고 돌며 질풍같이 달렸다.

논벌에서 일하던 처녀들이 렬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차창가에 앉은 김영훈은 정답고 따뜻한 미소로 소박하고 수고많은 농장벌처녀들의 인사에 답례를 보냈다. 맞은편 결상에서 트레머리를 한 젊은 녀인의 무릎위에 앉아 무엇이랴 끝없이 조잘대고 있던 여섯살난 귀여운 총각에도 고사리같은 손을 까닥이며 농장벌에 인사를 보냈다.

반쯤 열어제친 차창으로 여름날의 훈향이 훗-훗- 끼쳐들어왔다.

창가림이 흔들렸다.

김영훈의 반백의 머리카락도 날렸다.

김영훈은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낮선 고장의 풍경들에서 줄곧 눈길을 떼지 못했다.

벼포기들이 줄기차게 아지를 치는 논벌이며 멀리 야산기슭의 과일밭이며 아담한 농장마을들이며 여물치는 내물이며, 최뚝가에 피어난 백일홍들이며... 시야에 안겨오는 그 모든것들에 빠짐없이 다함없는 애무의 눈길을 보내주었다.

아- 얼마나 좋은가!

내 조국의 품속에는 아름답고 소담하고 살뜰한 것이 그 얼마나 많은가! 저절 위해 싸웠지. 저처럼 소담하고 아름답고 살뜰한것, 진정 제 살점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것을 위해 이 나라 젊은이들이 흘린 피와 땀은 그 얼마였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인민군군인들의 다양한 생활을 보여주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위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바퀴의 고르로운 음향은 김영훈의 사색을 깊은곳으로 이끌어갔다.

피의 강 락동강, 땅의 세찬 몸부림, 물구름, 총폭탄의 울부짖음... 그 다음엔 웬 영문인지 9살에 부모를 잃고 만주광야를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온갖 박해와 수모를 당했던 어린 시절 추억이 파편조각처럼 가슴을 아프게 찢어놓았다.

그 시절의 김영훈은 사람이 아니였다.

사람들은 흔히 비참한 인간의 운명을 개에 비교하는데 김영훈의 운명은 개보다 못했다. 말그대로 버림받은, 피눈물속에서 연약하고 가냘픈

목숨을 겨우 부지해가는 고아였고 어린 노예였다.

낮설은 이국의 눈보라와 비바람도 차거웠지만 그보다 더 험악한것은 사람들이였다.

오늘은 아이보개, 래일은 샷빨래, 다음날엔 부억데기... 이렇게 팔려다니고 떠돌아다니는 어린 노예의 몸엔 하루에도 수없이 가혹한 채찍이 없혀지곤 하였다. 그런 까닭에 김영훈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을 무섭게 저주하였다.

김영훈이가 처음으로 자기도 인간이라는 감정과 정서, 삶에 대한 애착과 행복을 느낀것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였다.

해방된 조국은 고아의 설움으로 피멍이 들었던 그의 가슴을 봄눈처럼 말끔히 녹여주었다.

어제날의 어린 머슴군, 어린 노예에게 고마운 조국은 새 교복을 입혀주고 책가방을 메워주었다.

언제보나 상냥한 미소로 반겨주는 녀담임선생님은 때없이 김영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 손길은 살뜰하였다. 눈물겨웁도록 고마웠다. 그 눈물과 함께 김영훈은 밝게 웃었다. 아침에도 웃고 저녁에도 웃고 깊은 밤 꿈결에서조차 웃었다.

진정 구김살 한점 없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순정 그대로의 밝은 웃음속에서 김영훈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목숨보다 귀중한것, 그것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맹세를 바로 그 웃음속에서 심장에 새겼다.

이삭이 여물어가는 보리밭이, 푸른 하늘을 몹시 즐기는 소담한 들꽃들이 원썬놈들의 소이탄에 불다고 글소리 랑랑하던 새 학교가 폭탄에 맞아 무너질 때 김영훈의 눈에선 눈물이 아니라 불이 일었다.

처녀는 그 불을 가슴에 안고 전선으로 달려갔다....

실눈 지은 그의 눈길은 하늘과 땅이 맞붙은 지평선가에 멎었다.

파아란 하늘로는 흰구름송이들이 고요히 흘러간다. 포도송이 비슷한 구름떼들은 자기가 어디로 무엇하러 흘러가는지 아는상싶다. 이상하게 김영훈이도 그것을 몹시 알고싶었다. 참으로 야릇한 호기심이었다.

아마 맞은편 결상의 철없는 총각애가 아니였다라면 지꽃은 그 호기심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으

리라고 믿는다.

《할머니 로병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지요?》

김영훈의 새옷차림새와 가슴팍의 훈장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총각애녀석은 큰 발견이라도 한듯이 손뼉을 치며 물었다.

《넌 참 용쿠나. 그걸 어떻게 아니? 김영훈은 차안의 열기로 하여 두볼이 능금알처럼 익은 귀여운 어린것을 품에 담썩 안아주며 소리없이 밝게 웃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어제저녁에 훈장을 가득 달고 평양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할아버진 전쟁시기에 땅크를 몰았대요. 나도 이담에 커서 땅크병이 되어 미국놈들을 짓몽개버리겠어요. 그래서 할머니처럼 가슴에 훈장이 번쩍이는 용감한 군대가 될래요. 그런데 할머니 미국놈을 몇놈이나 잡았나요?》

《?!》

영똥한 질문이 김영훈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지어 그의 얼굴엔 다소 당황한 빛조차 비졌다.

《미국놈을 몇놈이나 잡았나요?》

총각애녀석은 재차 물었다. 새까만 눈동자는 졸곧 김영훈의 입언저리를 지켜보고있다.

그 눈동자는 대답을, 티끌만한 보람도 꾸밈도 없는 진실한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다.

김영훈은 마디굵은 손가락 두개를 펴보이며 말쑤지를 뻗었다.

《두놈을 잡았나.》

《애개개... 도재 두놈?!》

총각애의 해맑은 얼굴에 순간 질은 의혹과 커다란 실망의 그림자가 서로 엇바뀌었다.

《그럼 땅크를 까부셨나요?》

김영훈은 대답대신 천천히 도리질했다.

《리수복영웅아저씨처럼 화구들 막았나요?》

《할머니 화구도 막지 못했단다.》

김영훈은 정색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훈장과 메달들은 어떻게 땀나요?》

《...》

김영훈은 말문이 막였다. 훈장과 메달들을 놓고 하고싶은 말이 가슴속에 가득했으나 어찌선지 그것을 입밖에 번져놓을수 없었다.

그렇수밖에, 독자들도 김영훈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여섯살난 총각애조차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는 그 훈장과 메달들은 김영훈의 피와 땀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중한 도덕과 량심, 의리와 사랑의 결정체였던것이다.

그것을 말로써 읊긴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것은 오직 심장만이 잊지 않고 심장만이 대답할수 있는것이다.

김영훈은 오래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속에서 김영훈은 가슴팍의 훈장과 메달을 하나하나

눈여겨 굽어보았다.

차장으로 비치든 해빛에 훈장과 메달들은 유난히도 번쩍이었다. 하지만 옷단의 훈장과 메달들은 대체로 퇴색하고 낡았다. (김영훈은 훈장과 메달들을 급수가 아니라 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패용한다.)

그것들은 전쟁시기에 수여받은 훈장과 메달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전사영예훈장 2급은 김영훈이 맨 선참으로 탄 훈장이었다. 김영훈은 그 훈장을 제일 귀중하게 여긴다. 리유는 그가 수여받은 첫 훈장이라는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한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주체40(1951)년 7월중순 어느날 당시 전선간호장이었던 김영훈이 속한 위생소대는 수백여명의 부상병들을 금강군에 위치하고있는 야전병원으로 후송할데 대한 전투임무를 받았다.

적들의 끊임없는 폭격과 포격속에서 부상병들을 후송한다는것은 말그대로 어렵고 힘겨운 전투임무였다. 그중에서 금강천 도하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겹고 어려운 전투였다.

적들은 아군의 앞길을 막기 위해 금강천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다리들을 몽땅 끊어버렸다. 게다가 장마철 비로 무섭게 불어난 강물은 대오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강기슭에 도착한 간호원들과 부상병들은 아연하였다. 아무리 전쟁의 시련속에서 담을 키운 그들이었지만 부닥친 현실은 너무도 엄혹하였다. 평상시라면 성한 빈몸으로도 감히 들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강물은 사나웠다.

긋은 비는 그치지 않았고 질은 물안개로 하여 한치얌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적비행기들은 검질기게 머리우에서 맴돌며 폭탄을 퍼부어댔다. 하지만 그들에게엔 뒤로 물러설 한치의 땅도, 한시도 지체할 여유도 없었다. 오직 한길강을 도하하는 길밖에 없었다.

김영훈은 못사람들의 심장을 칠 선동이나 말 한마디 없이 부상병을 업고 맨 선참 강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다른 간호원들도 부상병들을 업고 김영훈의 뒤를 따랐다.

허리를 치는 강물은 김영훈이네 일행을 사정없이 강아래로 떠박질했다. 사뭇치는 물결에 휘말려 넘어지기도 수십번... 하지만 대오의 앞장에선 김영훈은 몸을 솟구며 기슭을 향해 물결을 헤쳐나갔다.

힘겨웠지만 첫 도하는 성공하였다.

기뻐다. 하늘을 날것처럼 무척 기뻐다. 그것은 부상병들을 무사히 도하시킬수 있다는 신심에서 오는 기쁨이였고 희열이었다. 온몸에선 새로운 힘이 솟솟음쳤다.

건너편 강대안으로 다시 넘어간 김영훈은 이번엔 두명의 부상병을 업고 부촉하면서 강물속에 들어섰다. 간호원들과 부상병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였다. 갓난애기도 아닌 구척같은 사내들

을 두명씩 이끌고 그것도 사품치는 강물속을 헤쳐나간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선 도저히 생각도 할수 없는일이었기때문이었다.

김영훈자신도 오늘까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났는지 알지 못하고있다. 하면서도 김영훈은 그때 일을 때없이 묻곤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난 체중이 76키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나를 <중땅크>라고 불렀답니다...》

물론 그 말은 옳다. 전선간호장시절 김영훈의 몸무게는 76키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전우들이 《중땅크》라고 부른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독자들이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힘이 우리 주인공 김영훈의 남다른 체격이나 중량에서 생겨났다고는 믿지 마시라.

그것은 다름아닌 전우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바로 그런 무비의 힘과 평시와 담력을 키워주었던것이다.

아마 전쟁만 아니었다라면 그가 장대한 부상병은 커녕 홀몸으로도 강물속에 들어서지 못했을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전쟁이었다. 다시는 노예로 살수 없는 소박하고 마음 어질고 충성스런 이 나라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 자기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전쟁시절이었다...

김영훈은 단번에 두명, 그것도 몸집이 좋은 부상병들을 이끌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그렇게 그는 하루에 수십번이나 금강천을 넘나들었다. 다만 마지막 선번째 이야기만 더 하려고 한다.

김영훈간호장이 선번째로 강을 다시 넘어왔을 때는 어둠의 장막이 두텁게 내려앉은 밤이었다. 강기슭에는 두 부상병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탄이 왼쪽다리를 관통한 중대장과 복부에 중상을 입은 그의 연락병이었다.

연락병은 코밑에 숨털이 까시시한 17살 애 어린 병사였다.

금시 쓰러질것만 같은 몸을 겨우 지탱하면서 강기슭에 이른 김영훈은 고막을 찡 울리는 중대장의 웨침소리에 끄떡 놀라며 문득 선자리에 굳어졌다.

《칠성이, 죽어선 안돼. 절대로 죽어선 안돼...》

그 웨침은 벌써 그 어떤 애원이나 소원이 아니라 사나이의 피타는 절규였고 울부짖음이었다.

김영훈은 정신없이 그들한테로 내달아갔다. 그리고는 숨져가는 자기 연락병의 두팔을 부둥켜잡고 몸부림치는 중대장을 사정없이 옆으로 비켜세우며 부상병의 얼굴을 살폈다.

심한 출혈로 하여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연락병은 의식을 잃은채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었다.

자기 손으로 수많은 전우들의 눈을 감겨준 영훈은 이제 몇분후면 연락병이 영영 숨을 거두리라하는것은 대뜸 짐작했다.

전선간호장은 연락병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것은 피였다. 전사는 지금 심한 출혈로 하여 생명을 위협당하고있었다.

김영훈은 빨간 십자표식이 그려진 위생가방속에서 주사기통을 끄집어냈다. 그리고는 놀랍도록 민첩하고 세련된 동작으로 자기 왼팔 혈관에 주사침을 꽂았다. 실로 눈깜박알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중대장은 급기야 눈을 크게 뜨고 간호장을 쳐다보기만 했다.

어느덧 체대가 굵은 주사기통에 피가 가득차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피를 뽑아 전우들에게 넣어준 그였지만 주저없이 연락병의 혈관속에 주사바늘을 꽂고 수혈하였다.

한방울 또 한방울 혈관속으로 피가 흘러들자 연락병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백지장같던 얼굴에도 한가닥의 혈조가 내비쳤다. 삶과 죽음의 경계점에서 방황하던 연락병은 감고있던 눈을 들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만형과도 같은 중대장과 전선간호장의 얼굴이 안겨오자 연락병은 모진 고통속에서도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그러다가 자기 팔에 꽂힌 주사기를 띄워보고는 무작정 오른손을 뻗쳐 주사침을 뽑으며 말했다.

《간호장누님, 난 일없어요, 우리 중대장동지부러...》

《칠성이, 지금 무슨 소릴 해...》

중대장은 펄쩍 놀라며 자기 연락병의 말을 중도에서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김영훈에게 절절하면서도 격한 음성으로 부탁했다.

《간호장동무, 그 피를 칠성이한테 넣어준 다음 내 피도 뽑아 수혈해주오. 내 피는 0형이요.》

《중대장동지, 안됩니다. 중대장동진 나보다 피를 더 흘렸습니다...》

가빠오르는 숨결로 하여 말을 잠간 그친 연락병은 김영훈이한테 눈길을 돌리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간호장누님, 우리 중대장동지한테 그 피를 넣어주십 시오...》

《칠성이, 명령이다. 어서 ,빨리 수혈을 받으라구!》

중대장은 격하게 부르짖으며 연락병의 팔을 꼭 움켜잡았다.

《간호장동무, 수혈을 계속해주오. 칠성이는 원쑤놈들한테 부모를 잃고 이 세상에 혼자 남았소.》

그것은 부탁이나 호소가 아니였다. 격렬한 부르짖음이었고 엄격한 명령이었다.

중대장의 두눈에선 섬광과도 같은것이 타끓어 번졌다.

김영훈의 두볼로 저도 모르게 뜨거운것이 줄지어 흘러 내렸다.

이처럼 고결한 사람들, 불보다 더 뜨거운 인간

미를 심장에 간직한 사람들앞에서 어찌 눈물을
쏟지 않을수 있으랴!

김영훈은 가슴속 밑창에서 마구 북받쳐오르는
흐느낌을 씹어삼키며 타일렀다.

《칠성동무, 수혈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부모를
학살한 원수놈들을 복수하고 장군님의 품으로
찾아갈수 있어요.》

《간호장동님, 나도 살고싶어요, 그리고 장군님
을 뵙고싶어요. 하지만 부탁해요. 그 피를 우리
중대장동진한테 넣어주세요. 나는 죽더라도 우리
중대장동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살아야 해요.
중대장동진 전승의 날에 장군님께 중대의 전투보
고를 올려야 할 지휘관이에요...》

련락병은 무슨 말인가 더 하려고 입술을 떴다
가 그만 기력이 진한듯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 순간에 김영훈은 련락병의 팔에 재차 주사
바늘을 찔렀다.

수혈을 끝낸 김영훈은 련락병을 등에 업고 중
대장을 부축하면서 강물속에 들어섰다. 했던만
몇발자국을 옮기지 못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
해졌다. 무수한 별씨들이 눈망울속에서 튀겨나왔
다. 동시에 그 어떤 우악스러운 손아귀에 틀어잡
혀 휘둘리우는듯 머리가 핑-핑 돌았다. 때로는
완전한 무의식상태와 모든것이 또렷하고 선명해
지는 정신상태가 서로 혼탁되어 교차되었다. 눈
동자에서 튀어나오던 별씨들이 별안간 거세찬 화
염으로 타번지기도 했다.

순간 김영훈은 등골로 내뻗치는 차거운 물줄기
와 함께 무서운 공포의식을 체험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강을 채 건느지 못한채 쓰러질수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 한순간의 느낌은 육체상 더는 지
탱할수 없었던 그에게 새로운 의지와 힘을 복돋
아주었다.

김영훈은 이발을 사러물고 한발자국 또 한발자
국... 천근보다 더 무겁게 온 육신을 짓누르는 두
부상병을 업고 부축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차츰 다시 힘이 진해갔다. 이제 도저히 단 한
발자국도 걸을수가 없었다. 건너편 강기슭은 멀
지 않는곳에 있었다. 도하 첫시각부터 방위관정
목표로 정한 강녘의 백양나무 우듬지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묵화처럼 보였다.

김영훈은 강 한복판에 뻘뻘히 솟아오른 바위
에 몸을 의지하고 가쁜숨을 몰아쉬며 건너편 강
기슭과 백양나무를 넋없이 바라보았다.

부상병들과 간호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제
라도 소리치면 금시 마중해 달려올듯싶다. 백양
나무는 어둠을 박차고 뛰어나와 그를 향해 달음
쳐오는가 하면 불시에 멀어지기도 하고 숨박꼭질
하듯 눈앞에 바투 다가왔다가는 또 아득히 벌어
진다. 의식도 점점 희미해졌다. 이제는 백양나무
가 한대 아니라 둘 셋 넷으로 겹쳐보이고 어떤
순간에는 뿌리채 뽑히어서 자기를 덮쳐누르는것
같은 환각에 몸서리치기도 했다.

순간순간 기력이 진해가고있는 참담한 육체의
허탈상태를 감촉할 때마다 김영훈은 연신 같은
말을 곱씹었다.

《꼭 붙잡아요. 날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있어
요.》

그 대답으로 역시 같은 말이 반복된다.

《간호장동부, 날 내려놓소. 날 내려놓소!》

울부짖음에 가까운 중대장의 피타는 호소였다.

《꼭 붙잡아요. 중대장동지!》

김영훈은 혼자말처럼 뇌이며 걸음을 옮기려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었다. 순간 몸은 어디론가
미끄러지고 깊고 깊은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굳고 탄탄한 그 무엇이 이마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와 동시에 이따금 물속 깊은곳에서 헤엄을
치는것 같은 자기를 보았으며 물의 세찬 흐름에
떠밀리워 아주 먼곳으로 떠내려가는것 같은 느낌
을 감촉했다. 입안으로 차거운것이 흘러들었다.

문득 김영훈은 자기가 강물속에 쓰러졌음을 느
꼈다. 그것은 분명 김영훈의 의식이 가장 밝고
또렷해진 순간이었다.

김영훈은 타성적으로 고개를 돌려 자기 잔등을
넘겨다보았다.

입술을 깨물고 흐느끼는 련락병의 얼굴이 보였
다. 하지만 중대장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칼이 일
시에 곤두서면서 심장이 무서운 의혹으로 뒤채이
는 순간 힘껏 나꾸어채는듯한 오른팔의 충격과
함께 중대장의 웨침소리가 귀전에 총알처럼 박혔
다.

《간호장동무, 이 손을 놓소!》

김영훈은 예리한 창끝에 심장을 찔리우는것 같
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비
록 무의식상태에 빠진 그 참담한 순간에도 중대
장의 손만은 놓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어데서 그
런힘이 생겼는지 김영훈은 야장간집게처럼 중대
장의 손을 더욱 힘껏 틀어잡았다. 뿌리치는 중대
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의 노력은 가뜰이나
힘하고 창백한 그의 얼굴을 무서울 정도로 이그
러뜨렸다.

《간호장동무, 내 손을 놓소, 이러다간 모두가
잘못될수 있소,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빨리 칠성
이를 업고 먼저 강을 건너가오!》

중대장은 재차 김영훈의 손을 뿌리치며 부르짖
었다.

《중대장동진 지휘관이 아니냐요. 나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복돋아줘야 할 지휘관이 아닌가 말
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철없는 애들처럼 행동하
면난 어떻게 하랍니까?》

김영훈의 말마디들은 북받쳐오르는 눈물에 잠
겨 몹시 떨리고 토막나고 가늘었다. 중대장은 주
먹으로 가슴을 치며 고개를 떨구었다.

칠성이와 함께 중대장을 다시 부축한 김영훈은
어떤 기적같은 힘에 떠받들리어 땅을 딛고 일어
섰다. 하늘이 돌고 땅이 끼우뚱거리며 흔들렸다.

백양나무는 그네를 휘듯 허공중에서 왔다갔다 했다.

김영훈은 몇발자국 내디디었다. 다리가 휘청거리며 몸이 앞으로 옆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등에 업힌, 자꾸만 아래로 흘러내리는 런락병을 추겨 올리며 어느정도 유지되는듯싶었다. 했지만 숨은 몇갑절 더 차올랐다. 김영훈은 또 몇발자국 내짚었다. 백양나무는 여전히 아득하게 먼곳 허공중에서 흔들거렸다. 문득 눈앞에 어린 시절, 노예처럼 팔려다니던 그 시절에 가차없이 온몸을 휘감던 무서운 체적이 얼른거렸다. 그 다음엔 상냥한 미소가 입가에서 사라질줄 모르는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민들레꽃이 곱게 핀 동독길을 달리며 부르던 노래소리가 귀전에 마쳐왔다. 그때문인지 김영훈은 이 순간 이상하게도 노래를 몹시 듣고싶고 또한 자신도 노래를 몹시 부르려고싶었다.

《중대장동지, 노래를 불러주세요. 노래…》

《?!》

한동안 그 부탁을 외면하듯 일체 반응이 없던 중대장의 갈린 걱정으로 하여 토막나고 음정이 서툰 노래소리가 울렸다.

김영훈이와 함께 칠성기도 노래를 따라불렀다.

세사람이 합쳐부르는 낮고 떨림이 강한 노래소리는 물결 세찬 강반의 소음을 누르며 서서히 울려 퍼졌다.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만주광야의 설한풍과 인간의 최고가치로 평가되는 값높은 희생의 비장함 그리고 삶과 투쟁의 환희가 분출하는듯한 노래소리는 어느덧 걱정의 회오리로 김영훈의 온몸과 넋을 휘감아버렸다.

김영훈은 그 노래소리에 이끌리우고 떠밀리우면서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걸음을 내디디었다.

백양나무는 점점 가까이 눈앞에 바투 다가섰다.…이렇게 강기슭에 도착한 김영훈은 드디어 쓰러졌다.…”

어설픔고 창백한 달빛이 그의 몸을 어루만졌다.

이따금 강바람이 불어칠 때마다 백양나무 잎사귀에 맺힌 비방울들이 김영훈의 얼굴과 군복우에 후두둑 떨어지곤하였다.

김영훈은 몇시간후에야 습하고 싱그러운 땅기운과 강반에 흐르는 밤기류의 차거운 감촉으로 천천히 눈을 떴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하였다. 김영훈은 그 별들을 눈앞에서 튕겨나오는 불꽃으로 착각하였다.

지꽃던 장마비도 멎었다. 무겁고 침침한 구름장들은 쫓기듯 어디론가 바빠 날아가고있었다. 물기를 채 털어버리지 못한 달과 별들이 구름장새썰로 얼굴을 내밀었다. 힘겹고 모진 고역을 치르고 난 텅 비고 허전한 온 우주에 달과 별들만 남아있는것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애뜻하고 즐기찬 삶의 노래는 멀고 가까운곳 그 어디서나 울리고있었다. 비방울이 구슬처럼 맺힌 나무잎

새와 풀덤불속에서 온갖 풀벌레들이 승벽내기로 울고 강물은 좌-좌-소리치며 흐르고 산너머 먼곳에선 귀에 익은, 적진을 들부시는 아군의 위력하고 믿음직한 포성이 간간이 울려왔다.

여기가 어딘가?! 김영훈은 손을 뻗쳐 백양나무 밑둥을 어루만져보았다. 비에 젖어 축축하고 미끄러운 촉감 이 온몸을 짜릿하게 파문지어갔다.

그 순간 그의 머리속에선 지금까지 아직 한번 체험해보지 못한 그토록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강반의 물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김영훈은 자기가 하늘의 별들을 착각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사랑하는 전우들인 전선간호원들의 품에 안겨있음을 깨달았다.

《간호장동지, 정신이 드세요?》

위생소대에선 제일 나 어린 간호원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그쳐 물었다.

김영훈은 상반신을 천천히 일으키며 머리를 끄

덕이었다. 그 다음엔 주위들 둘러보며 지치고 힘겨운 어조로 물었다.

《중대장동지와 런락병은 어떻게 됐어요?》

《야전병원으로 무사히 후송시켰어요.》

《…》

김영훈은 이마전에 흘러내린 젖은 머리카락들을 쓸어올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처녀만이 지을수 있는 맑고 깨끗한 미소였다.

하늘의 별들도 따라웃는듯 유난히 밝은 빛을 뿌렸다.…”

머칠후에 김영훈은 금강천도하에서 발휘한 전투적위훈으로 하여 전사영예훈장2급을 수여받았다. 첫 훈장이었다. 크나큰 흥분과 희열로 하여 심장은 세차게 동동쳤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선번째로 업고 건너온 두 부상병, 중대장과 칠성이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무거웠다.

김영훈이 그들을 것처럼 잊지 못해하는데는 또 하나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부상병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야전병원에 무사히 후송시킨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강변에 나가 세수를 하려고 군복상의 팔소매를 걷어붙이던 김영훈은 오른쪽팔 상박골 부근에서 이상한 자기도 여느 간호원들의 숨씨도 아닌 대단히 서투른 주사침자리를 발견하였다. 혈관을 찾아 찌르고 덧찌른, 무려 다섯번이나 찌른 주사침흔적은 김영훈의 의혹을 부쩍 돋구었다.

누가! 언제?! 살펴보고 또 볼수록 그것은 분명 경험이 부족한 사람의 숨씨였다.

치열한 격전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의 부상병들을 처치하고 주사를 놓아야 하는 전선간호원들은 불빛 한점 없는 깊은 밤에도 어김없이 혈관에 주사들을 찌르는 비상한 숨씨를 가지고있다. 그런 까닭에 김영훈은 자기 팔에 남긴 주사침흔적을 두고 커다란 의혹을 금하지 않을수 없

었다.

김영훈은 그 주사바늘자리를 내보이며 간호원들에게 물었다. 영문을 알지 못하고있는 간호원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자 김영훈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 자기 신상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자초지종 캐물었다.

먼저 강을 도하시킨 부상병들을 예정된 장소에까지 후송시킨 간호원들은 마지막 두 부상병을 위해 강을 건너간 김영훈간호장을 찾아 어둠이 깔린 강기슭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는 입에 손나팔을 해대고 목청껏 소리쳐 불렀다.

《간호장-동지!-》

소란스러운 강물소리는 그들의 목청을 삼켜버렸다.

《김영훈간호장동지?!-》

두번째 부름소리에 대답이 날아왔다.

《동무들, 여기에 있소!》

이것은 귀에 익은 간호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웅글고 갈린 마지막 기력을 짊그리 모으며 겨우 대답하는 남자의 목청이었다.

간호원들은 한달음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간호장은 전우들을 반겨 맞아주지 못했다. 의식을 잃고있었던것이다. 그대신 다리를 부상당한 류달리 얼굴이 창백한 중대장이 힘겹게 한마디 말을 던졌다.

《간호장을 부탁하오.》 하고는 중대장자신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자신의 혈관속으로는 지금 다른 사람의 피가 섞여 흐르고있다는것을 짐작한 김영훈의 마음은 조바심쳤다.

누구의 피가? 또한 그 누가 나한테 수혈을 했던 발인가?!

집요한 의혹은 김영훈의 뇌리를 짝 움켜잡고 쫓쳐럼 놓아주지 않았다. 동시에 동상밑에 받침돌이 놓여있듯이 지금 가슴우에서 빛나는 첫 훈장엔 자기가 바친 피와 땀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위훈도 깊이 습배여있다는것을 예순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잊지 않고있다.

×

전국로병대회가 열리기 전날 저녁식사이후에 시내구경을 하려고서관방을 나서던 김영훈은 행사조직일군의 안내를 받으며서관복도 휴식장을 찾아갔다.

안락의자와 팔걸이의자, 어항과 화분들이 주련이 놓여있는 휴식장에선 텔레비전화면을 통해 이미 낮을 익히고 친숙해진 너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로병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얼굴이 류달리 희고 코날이 상큼한 너기자는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로병들에게 전승경축행사와 로병대회에 참가하게 된 소감과 어느 전투에 참가하여 어떤 위훈을 세웠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를 묻기도 하고 그들

의 대답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던 너기자는 아직도 온몸에서 쫘은이다운 패기와 열정과 건강미가 넘쳐흐르는 어깨우에 소장의 견장을 단 장령한테 마이크를 옮기며 물었다.

《장령동진 어린 시절에 총을 잡았겠습니까?》

《17살때부터 총을 잡고 전선에서 싸웠지요.》

《17살 그 나이면 아직 부모님들 앞에서 응석도 부릴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용약 전선에 탄원하여 미제침략자들과 싸웠으니 정말 머리가 숙어 집니다.》

장령은 소리없는 웃음을 입가에 지으며 대답했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게 되면 그 누구보다 철이 일찍 든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잊지 못해하시면서 그토록 높이 내세워주는 리수복영웅도 18살 꽃나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서슴없이 바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영웅은 지금도 영생의 언덕우에 높이 서서 우 군인들과 청년들을 참된 삶과 위훈으로 부르고있습니다.》

《참으로 뜻이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기자는 아름다운 두눈에 깊은 감동을 담고 장령을 이윽도록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장령동지도 17살 어린 나이에 군복을 입고 전선에서 싸웠을뿐만아니라 앞가슴의 훈장들을 보니 위훈도 많이 세운것 같으신데 남달리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전투에 참가하던 때의 심정이라던가 아니면 위훈이라던가 그 무슨 이야기도 좋으니 우리 텔레비존시청자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장령은 너기자의 부탁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전선시절의 먼 추억을 불러오는듯 깊은 생각에 잠겨 서있기만 했다.

경험있고 로숙한 너기자는 장령을 독촉하지 않았다.

한참후에 장령은 버릇처럼 군복앞설킨을 바로 잡으며 마이크앞에 나섰다.

《저는 이자리에서 나의 전투경험이나 위훈보다도 잊을수 없는 한 간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를 누님 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뒤에 서있던 김영훈은 무엇인가 불시에 가슴을 차는것이 있어 마이크앞으로 다가서며 장령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장령은 이야기들 계속했다.

《그는 나뿐만아니라 우리 부상병들의 생명의 은인이였고 친누이였습니다. 아마 그 전선간호장이 아니었다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주체40(1951)년 7월중순 금강천기슭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때 간호장누이는 장마비로 무섭게 붙어난 금천강을 수십번이나 건너들면서 부상병들을 구원했습니다. 복부에 심한 부상을 입고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던 나도…》

장령은 크나큰 흥분과 열정을 담아 긴 말을 했으나 김영훈은 뒤말을 일체 듣지 못했다.

심장은 금시박으로 튀어나올듯 세차게 뛰고 온몸에선 뜨거운 열기가 뿜쳐올라 통 말귀를 알아들을수 없었다.

온 육신과 감정을 짱그리 틀어잡은 오직 한 생각- 그것은 바로 지금 마이크앞에서 이야길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아닌 련락병 칠성이라는 확신과 믿음밖에 없었다.

(칠성이다. 칠성이…)

김영훈은 삽시에 눈앞이 어지러워지면서 아래도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지나친 흥분과 기쁨으로부터 오는 일종의 현훈증이었다.

김영훈은 자신을 다잡기 위해 옆에 놓여있는 안락의자에 몸을 실었다.

장령은 이런 처녀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강한 호소로써 말을 마쳤다. 그러자 너기자라는 자기도 녀성이라는 공통된 심정때문인지 조국의 룡성과 번영을 위해 우리 녀성들이 쌓아올린 위훈과 업적에 대하여 힘있고 뜨거운 어조로 높이 찬양하였다.

텔레비죤좌담화는 끝났다.

로병들은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천천히 휴식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장령은 옆에 선 백발의 로병과 무슨 이야기인가 주고받으며 현관계쪽으로 걸어갔다.

김영훈은 그 어떤 충격에 의해 불시에 깨어난 사람처럼 쓰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저- 말 좀 물어시다.》

사람들은 일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뒤를 돌아다보며 김영훈이 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혹 련락병 칠성동무가 아닌지?!》

김영훈은 재차 물었다. 견잡할수 없는 흥분으로하여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장령의 얼굴빛은 삽시에 창백하였다.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듯싶었다.

금시 심장이 멎어버릴것만 같은 충격으로 하여 그는 몸을 가볍게 떨면서 웨쳤다.

《간호장누님!》

장령은 오랜 세월 헤어졌던 어린애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처럼 김영훈앞으로 어푸러지듯 마구 뛰여갔다.

《살아있었구만. 이렇게 살아…》

가슴속밀창에서 터져나오는 걱정으로 하여 김영훈은 말을 채 맺지 못했다.

《누님…!》

김영훈의 품에 와락 안긴 장령은 쏟아지는 눈물에 목이 꼭 메여 뒤말을 잊지 못했다.

두사람은 서로 부둥켜안은채 상대방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불같은 정으로 얹힌 눈빛들은 허공중에서 부딪쳤다. 섬광처럼 번쩍이는 두사람의 눈빛엔 이것이 꿈이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혹시나 하는 형언할길 없는 위구의 빛도 함께 비껴있었다.

로병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두 전우의 상봉을 축하해주었다. 너기자도 손수건으로 눈언저리를 닦으며 박수를 쳤다.

그들은 이들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있었다.

아낌없는 열렬한 박수갈채로 그들의 극적인 상봉을 축하해준 로병들과 너기자는 두 전우에게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줄 생각으로 자리를 뗐다.

수십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가슴속에 쌓이고 웅축된 감정을 견잡할수 없는 눈물로 대신한 김영훈은 서두르는 어조로, 하면서도 불안과 초조심이 비끼는 말투도 중대장의 안부를 조용히 물었다.

장령의 철색빛얼굴은 삽시에 근엄하게 굳어졌다. 불현듯 어금이를 깨물며 천정무리들을 지켜보는 그의 두눈에 물기가 내비치였다. 쓰라린 아픔이 가슴을 찢는 이 짧은 순간에 장령의 머리속에선 수많은 생각들이 번개처럼 스쳐지나갔다. 얼마나 많은 꿈, 래일에 대한 공상, 실현되지 못한 념원이 이 땅위에 묻혀있는가! 꿈을 그리며 념원하고 그래서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친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묻혔는가?

장령은 시간이 펴 흐른 한참후에야 힘겹게 말 꼭지를 뗐다.

《야전병원에서 부상을 완치한 중대장동진 그후 무명고지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셨습니다.…》

김영훈의 눈에선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눈물밖에는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다.

무척 오랜 침묵끝에 가까스레 눈물을 거둔 김영훈은 수십년동안 가슴속에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알고싶은, 다섯번이나 덧찌른 주사침 사연을 풀었다.

장령은 이번에도 인차 입을 열지 못했다.

창문가에 다가간 장령은 불야성 이룬 수도의 밤거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굳어져있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간호장누이 팔에 덧찌른 그 주사침자리는 우리 중대장동지 숨씨입니다.

지칠대로 지친데다가 나한테 피를 뽑아 수혈까지 해준 간호장누이는 우리 두 사람을 업고 강기슭에 도착하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창백한 얼굴색과 가쁘게 몰아쉬는 숨결을 미루어 보아 생명이 위급하다는것을 알게 된 중대장동진 간호장누이의 위생가방속에서 주사기를 끄집어

내어 자기 팔에 꽂았지요. 하지만 싸움판에선 펄펄나는 호랑이지만 주사기를 다루는데선 전혀 경험이 없는 중대장동진 여섯번만에야 드디어 혈관에 주사침을 꽂을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사기 한통가득 자기 피를 뽑아낸 중대장동진 간호장 누이 혈관속에 주사침을 꽂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도 뜻대로 주사바늘을 꽂지 못한 중대장동진은 다섯번만에야 수혈할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겠습니까!

후날 우리 중대장동진 자기가 난생처음으로 다루어보는 주사기로 어떻게 피를 뽑고 수혈을 했는지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우곤했답니다.

아마 간호장누이가 하루에 강을 수십번씩이나 넘나들면서 부상병들을 업고 건너온것 같은 기적이겠지요. 지금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통 믿으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제눈으로 목격한 내자신도 믿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명백히 말할수 있는것은 침략자 원수에 대한 무서운 증오가 그렇듯 뜨거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람이 또한 것처럼 믿기 어려운 기적과 위훈들을 창조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로병은 수도의 밤거리를 거닐며 끝없이 회포를 나누었다.

평양의 밤은 아름다웠다.

하늘도 땅도 강물도 온통 오색찬란한 불빛속에 휩싸여있다.

눈부시고 황홀한 평양의 밤은 하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

고마운 당과 고마운 조국에 대하여, 수도의 밤을 이처럼 아름답고, 황홀하게 가꾸어놓은 인간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대하여… 불현듯 눈앞에는 피의 강 락동강, 총폭탄의 울부짖음, 거대한 폭발이 일으킨 땅의 몸부림과 하늘을 찌ق 메운 불구름이 또다시 떠오른다. 그다음엔 웬 영문인지 열차칸에서 총각애가 묻던 말이 귀전에 다시 울려왔다.

《할머니, 그런데 훈장과 메달들은 어떻게 댔나요?》

그것은 실로 뜻밖에 상기된 물음이었다. 그때문에 푸르스름하고 우중충한 여름밤 대기에선 마치 그 어떤 비상히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라도 벌어진것만 같은 엄숙한 느낌이 감돌았다. 그 느낌과 함께 김영훈의 생각도 깊었다. 전쟁과 위훈, 훈장과 메달, 어제와 오늘, 래일을 두고 생각은 끝없이 아지를 쳐나갔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는 심장만이 잊지 않고 심장만이 말할수 있다고 여

겼던 그것들이 마치 생신한 바람을 맞은 불무지의 솟덩어리처럼 명백한 리치로써 머리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전쟁이란 파괴와 살육의 대명사라고… 그 말은 옳다. 전쟁이란 말그대로 전투기재와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유생력량을 소멸하는 최대의 파괴와 가장 가혹하고 무자비한 살육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전쟁과정에 우리 인민은 인류가 수천년동안 것처럼 바라고 기원해오던 가장 아름답고 신성하고 고상한 세계,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무비의 용맹으로 불러일으키는 그토록 위대하고 매혹적인 사랑의 세계를 창조하였던것이다.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상상할수 없고 그 어떤 총칼도 무색케 하는 이 사랑의 세계, 사람의 힘으로 우리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으며 당과 조국은 이 미덕을 위훈중의 최고위훈으로 값높이 사주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놈을 두놈밖에 소멸하지 못한 평범한 전선간호장의 앞가슴우에도 그렇게 많은 훈장과 메달들이 빛나고있는것이다.

김영훈은 철없는 총각애녀석을 다시 만나면 이 참다운 의미를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말해줄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눈지방으로 저도 모르게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김영훈은 옛 전우를 생각하며 눈굽을 훔치며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둥근 하늘엔 별들이 총총하였다.

불의앞에선 추호의 타협도 모르는 이 나라사람들의 깨끗한 눈동자처럼 남을 위해 자기를 서슴없이 바치는 선량하고 보석같은 마음씨인양 못별들은 대지에 밝은 빛을 아낌없이 뿌렸다.

김영훈은 밤하늘에서 오래동안 눈길을 떼지 못했다.

별빛은 에나제나 변함없었다.

금강천기슭의 백양나무밑에 누워서 바라보던 별들도 지금처럼 밝고 명랑하고 아름다웠다. 조국은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랍게 변모되는가!

눈에선 뜨거운것이 그냥 흘러넘쳤다. 샘처럼 자꾸만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이 땅위에 살고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그들모두를 영웅으로 키워주는 두분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에 대한 불같은 감사와 한없는 고마움에서 북받쳐오르는 눈물이었다.

영웅들 앞에서

김창조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
...

다 있구나 여기엔
빠짐없이 모두 와있구나
전승의 기념탑 드넓은 마당에

전승의 그날
하늘이 넘쳐나게 터져오르던
축포를 보지 못한 그들이였다

불타던 조국의 산과 들에서
아낌없이 생을 바친
이 나라의 참된 아들들이기에

세워주었거니 조국은
팔다리 없는 그 몸도 나무람없이

포연습벤 찢어진 옷차림 그대로

다만 그 손에 쥐여준것은
아직 식지 않은 기관단총, 수류탄...
피흘리며 넘겨받던 색깔은 공화국기

지금 그들이
다름아닌 내 나이로 영생하는 청춘들이
여기서 나를 부르며 가르치고있거니

아
불멸의 모습으로 빛나는 전승기념탑
여기는 그대로 영웅들의 빛나는 삶의 교단

아직은 오르지 않은 나의 모습
래일은 예서 찾게 되리라
그들처럼 총폭탄의 모습으로

그들처럼 총폭탄의 모습으로-

가사

내가 안고 걸으리

류영국

푸른 숲 설레이는 내 고향 언덕우에
이름없는 영웅들 고이 잠들었는가
전화의 날 목숨바친 인민군렬사들
잠들지 않았네 그 숨결을 나는 듣네

이름을 따로 새긴 비석은 예 없어도
포화속을 뚫고가던 그 모습을 모르랴

하나같이 렬사로 불리우는 그 이름
조국이 못잊네 내가 다시 불러보네

꽃뭉음 대돌우에 정히 놓고서
머리숙여 새겨안은 맹세는 무엇인가
수령님의 전사로 영생하는 그 숨결
장군님 전사로 내가 안고 걸으리

한마음

석유균

무릇 여행이란 즐거운것이지만 취재에서 취재에 이어서는 직업적타성으로 하여 여행의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때가 드문하다. 하지만 이번 취재길에서 체험하게 된 평범한 생활속에서 알게 된 우리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감명을 불러 일으키었다.

내가 8군에 도착한것은 중낮이 지났을 때였다. 취재자인 토산리로 가는 배스를 타자면 두시간 기다려야한다기에 나는 들길에 나섰다.

서늘러운 가을바람에 설레이는 누런 벼이삭이 무겁게 고개속인 들길은 걷고 걸어도 또 걷고만 싶었다. 다치면 터질듯 총알처럼 여문 논둑콩마저 재롱을 부리는 어린애마냥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눈길을 끈다.

저 앞산에 붉게 타는 단풍이며 눈썹리 아득하게 펼쳐진 황금벌판, 끝없이 출렁이는 저수지의 쪽빛물은 신비한 조화를 이루며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길손들의 걸음을 자주 멈추어 세운다. 멀리 논판에서 농장원들과 군대가 한데 어울려 일하는 모습이 안겨온다. 구수한 낱알향기 가슴벌게 마시며 절경을 이룬 산천경계에 눈을 주던 나는 문득 고개를 돌리었다.

《이보우 나그네, 담배나 한대 피우소. 이게 우리 고장 독초웨다. 아마 도회지사람들은 이런 독초맛 보기가 힘들거웨다.》

인심 후한 로인의 권고에 나는 자리에 앉았다. 기골이 장대한 늙은이의 눈정기가 예없이 밝은것을 보면 몸도 마음도 혈기가 왕성한것이 분명했다. 제방쪽에 여라문마리 염소를 풀어놓은채 한가로이 풀을 베고있었다.

어지간히 애연가인 나도 숨이 꺾 막히게 독한 담배였다. 감미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 맛이 별미였다. 하지만 로인과 말을 나누면서 독초 못지않게 구수한것은 그의 이야기였다. 자연히 화제는 올해 농사이야기로 기울어졌다.

《사실 이 고장에 태를 묻은 내가 60여년을 살아왔습니다만 올해처럼 날씨가 번덕스럽기는 처음이지요. 가물에 룡칠월 염천이 어찌나 지독한지 개구리마저 한껏 더워진 도랑물에서 기여나와 헐떡거리며 그늘을 찾아 풀밭을 헤맸으니까요. 날씨가 얼마나 고약한지 8월장마에 저 제방쪽까지 씻겨내렸으니까. 옛날같으면 왕가물에 큰 장마가 겹쳐 흉년이 들어 온 마을이 폐죽음난다고 했을

거웨다.》

《그러니 풍만한 가을은 자연이 가져다준것이 아니군요.》

《아무렴요. 전기를 내다보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올해에 또다시 군대까지 보내주시여 농사를 짓게하시었으니 결국은 이 가을도 인덕으로 마련된것이지요.》

《허, 듣고보니 뜻이 깊은 말입니다.》

그의 흥그러운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 나는 죽을 췌다.

《실지가 그렇지요. 모판에 씨를 뿌릴 때부터 모내기며 김매기... 오만가지 농사일을 막히는데 없이 실농군못지 않게 알짚있게 해내는 우리 군대가 있기에 가물도 이겨냈고 팔월 장마두 이겨냈지요. 참, 말이 난김에 이번 장마때 이야기를 하나 하겠수다.》

성품이 너그러운 그는 수더분한 눈길은 들어 제방쪽을 지켜보면서 뒤말을 이었다.

런 사흘 내리던 비가 멎고 하늘이 열리었다.

염소무리를 산중턱에 매놓고난 아버이는 재방으로 내려왔다. 산골물이 삽시에 모여들면 무슨 일을 칠지 몰라 안심치 않았던것이다. 관리위원회에 알려 제방을 보강해야겠다고 생각한 그가 마을길로 내려오는데 어느새 군대들이 줄을 지어 제방으로 오르고있었다.

《아썬싸, 주인이 또 한걸음 뒤졌군.》

자책에 쫓기운 그는 서둘렀다.

뒤늦게 올라온 농장원들은 군대들과 손을 맞잡고 제방보강공사를 다그쳤다. 시간이 다르게 일자리가 폭폭 났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심술궂은 날씨는 또다시 비발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그제서야 염소생각이 난 아버이는 로친네를 찾아 산턱으로 보냈다.

얼마후 로친네가 울상이 되여 나타났다. 봄에 난 새끼염소 한마리를 종시 차지 못했다는것이다. 이제는 날까지 어두워졌으니... 일은 더 꼬이기만 했다.

《아바이가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기 인은 격정 마시구요.》

옆에서 삼질하던 분대장이 불뭉치를 쥐여주며 아버이의 등을 밀었다.

비발이 점점 더 굵어졌다. 하지만 아버이는 제

염소를 찾겠다고 공사장을 떠날수 없었다.

곳곳에서 해불이 어둠을 밝히는 제방공사장은 말그대로 전투장을 방불케 했다. 산타를 꺼내어 흙과 돌을 날라다 제방을 보강하다보니 모두가 흙범벅이 되었지만 그에는 아랑곳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발이 점점 더 깊어지자 농장원들은 내려가보라고 군대들의 등을 밀었다.

《우리가 주인구실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임자들 고생을 시키누만. 이젠 우리끼리 해두 뒤서너시간이면 끝낼것 같으니 먼저 내려가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저 끝내겠으나 먼저 내려가보십시오.》

《허, 그러면 우리가 주인구실을 못하네...》

《아바이, 오늘의 1211 고지는 농업전선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저희들을 농업전선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말아야지요.》

그 말을 듣는 농장원들 모두의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몽쿨하였다.

손과 마음이 서로 하나로 합쳐져 일하니 성수가 났다. 일은 밤이 깊어서야 끝났다. 온몸은 비물에 젖었으나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가쁜하였다.

따끈한 아래목에 등을 지지는 아바이는 몸도 마음도 무거웠다. 새끼염소를 잃어버린것이 마음에 걸렸던것이다. (이제 나가봐야 비가 역수로 쏟아지는 산판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날이 밝으면 첫새벽에 나가봐야지.)

혼자 생각을 굴리며 술깃이 잠이 들었던 아바이는 누군가 밖에서 찾는 소리에 깨어났다. 문을 열고 나간 아바이는 그만 깜짝 놀라 못박힌듯 서버렸다. 분대장과 전사가 새끼염소를 비웃에 싸안고 들어서는것이였다. 온몸이 비에 화락하니 젖은채...

《이사람들아, 염소 한마리가 뭐길래 그렇게 힘들게 일하구두 모자라서 이 비를 맞으며 산판을 헤맸나. 제일처럼 농사일을 실속있게 해주는것만 해두 고맙기 그지없는데...》

아바이는 불쑥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일은 돌이켜보는 아바이의 눈시울이 불길하게 피여올랐다.

《우리가 또다시 군인들과 한해 농사를 함께 짓

고보니 배운것이 정말 많다. 우리 장군님께서 온 사회가 따라배우도록 하여주신 안변청년발전소 청년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깊이 알게되었다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결사옹위하고 그이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그 기풍이 있기에 이런 수확을 마련해놓은것이 아니겠수...》

진정어린 아바이의 말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저 멀리 내려다보이는 큰길에 읍에서 오는 뺨스가 와닿았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노상 큰길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아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채양을 하며 뺨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눈여겨 살피었다.

《우리두 내려가봅시다. 우리 막내딸이 온것 같은데...》

사연인즉 읍에 나갔던 막내딸이 60돐 생일상에 오를 물건들을 준비해가지고 내려온다는것이였다.

2년전부터 자식들이 60돐 생일상을 준비하겠다는것을 부디 말리여오던 아바이는 올해 가을에는 끝내 수궁하고말았던것이다.

《진술이 몇벌 있으니 아예 옷같은건 생각말고 상이나 소박하게 차리라곤 했지요. 60돐 생일상을 받고 기념이 되게 사진이나 한장 찍으면 그만이지요. 실은 수고가 많은 분대장이랑 우리 군대들을 대접하려고 하지요. 예로부터 60돐 생일상 음식은 몰래 채서라도 먹는다고 하지 않았수. 그걸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말이지요. 하여튼 내 성의니 받아주겠지요.》

그 말에 나는 유쾌한 마음으로 크게 웃었다.

참으로 로상에서 담배 한대 피우며 나눈 그 아바이의 말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우선 분대장과 이곳 군인들을 만나보고싶었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진다는 말이 있듯이 평범한 생활의 갈피속에 피여나는 우리 시대인간들의 진정이야말로 우리 사회 진면모의 축도라고 할수 있다.

군민일치! 진정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니 오늘의 1211고지인 농업전선은 굳건히 지켜지고있는것이다. 그러고보면 이미 로상에서 시작된 나의 취재 역시 풍만한 열매로 기약되고 있었다.

《리로운 봉변》

60년대중엽 어느해 여름이었다.

경치 아름다운 동해바다가 어느 휴양소 가까이
에 펼쳐진 백사장에서 바다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자기의 옷이며 모자를 손짓하며 《아니 저거, 저
기.》 하며 어쩔바를 몰라하는 사람이 있었다.

목에다는 땀에 젖은 수건을 걸치고 맨몸에 땀
찌만 입고 서서 애타하는 그가 조선의 문호 리기
영일줄이야...

그날 아침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휴양
생활을 하던 강량옥, 정로식, 리기영은 바다가에
나기 조개구이를 하기로 했다.

해변가에 나온 그들은 뜨거운 해빛에 못견디여
옷들을 훌훌 벗어 모래판에 던지었다.

그런데 얼마후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제일 우
에 있던 리기영의 옷가지들이 바다물가운데로 훌
날려갔던것이다.

조개구이에 여념이 없었던 리기영은 한참후에
야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즐거운 휴양생활을 하던 그가 뜻밖
에 이런 봉변을 당할줄이야.

《우린 먼저 갑시다요.》

《예. 그렇게 합시다.》

담소자락하며 지금껏 함께 조개구이를 하던 강
량옥과 정로식이 아닌보살하고 옷을 주섬주섬 주
어 입기 시작하였다.

《아니 먼저 가다니. 그럼 내혼자 이꼴로 있으
라우?》

《그럼 어찌라우?》

강량옥과 정로식은 연방 약을 올리었다.

《여보, 지금 몇시요?》

《한시반이 다 되었소.》

《한시반이라. 여긴, 빨리 가야 할 사람은 당신
들이 아니라 나요.》

리기영은 금방 팔을 끼려는 강량옥의 와이샤쓰
를 와락 잡아당기었다.

《아니 이거 왜 이러우? 이거야 내것이 아니
요.》

《아무개거면 대수요. 난 빨리 가서 방송을 들
어야 한단 말이요.》

《아니 옷건질 생각은 않고 똥판지같이 방송은
또 무슨 방송이요?》

《이제 20분후에 해방후 우리 당의 농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방송이 있단 말이요.》

정신없이 헤덤비며 자기의 옷을 가로채는 리기

영을 어이없이 바라보던 강량옥은 할수 없다는듯
자기의 와이샤쓰를 벗어주었다.

그것을 얼른 받아입고난 리기영은 애절한 표정
속에 아래도리를 가리울것을 부탁했다.

《아니 그럼 아래우 한벌 그쵸나게 달란 말이
요!》

《그러지 말고 어서... 시간이 급하다지 않소.》

《참 답답도 하군. 바지를 두개 입고 다니는 사
람이 어디 있소.》

정로식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계속 빈정거리였
다.

《아니 그것.》

리기영은 정로식의 잠옷바지를 눈짓했다.

《이거말이요.》

정로식은 할수 없다는듯 잠옷바지를 벗어주었
다.

숙소로 돌아오는 리기영은 사람들의 눈에 띄이
지 않게 승용차 뒤좌석가운데 앉았다.

《여보, 대문호의 꼴이 이게 뭐요. 항상 봐야 리
기영선생은 덜통하단 말이요.》

강량옥의 충고에 지금껏 말이 없던 리기영이
항변이나 하듯 입을 열었다.

《내가 조개구이를 하면서도 내 생각은 <땅>에
가있었소. 얼마전 위대한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면서 저더러 장편소설 <땅>의 후편
을 써야겠다고 교시하시었소. 그래서 얼마전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소. 빨리 가서 방송을 듣고 농
사문제, 농촌문제와 관련한 당정책적인 선을 명
백히 세워야 하오.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
니겠소.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아 그랬됐군요!》

리기영의 말을 듣고난 강량옥과 정로식은 감격
을 금치 못해하며 연방 고개를 끄덕이었다.

《여보. 운전사동무, 차를 좀 더 빨리 몰수는 없
겠소?》

《아니 왜 그리십니까?》

《방송청취시간이 늦을가봐 그러오.》

그러는 리기영은 오늘 당한 봉변은 당초에 생
각도 않은듯했다. 아니 리로운 봉변으로 생각하
는듯했다.

방승록

넋을 찾으라

박장광

1

이십대 젊은 시절의 랑만과 포부, 빈민과 슬픔의 자취가 어려있는 기이반도 미나베땅을 나는 머리가 희끗해진 인생의 황혼기가 다되어서야 다시 밝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이고장을 떠난후 세월은 아득히 멀리로 흘러갔다.

조국의 부름을 따라 희뿌연 이국의 하늘아래서 총련의 2세역군으로 보람찬 청춘의 나날을 보내온 이 지방은 나에게 있어서 수많은 추억을 남겨놓은 뜻깊은 곳이었다.

오래간만에 여기로 오게 된 어느 하루 내 걸음이 한 묘소로 향하게 되었다.

한줌의 흙이 되어 절간뒤산의 공동묘지에서 고이 잠들고있는 고인은 총련결성의 다난한 초창기에 내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너인이었다.

내가 사연깊은 추억에 잠겨 홀로 고개길을 넘어갔을 때는 매화꽃들이 한참 망울을 터치려는 무렵이었다.

노을빛을 받아 산기슭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바다 수평선 멀리로는 뽕양계 서린 안개속에서 시고구섬이 한폭의 묵화처럼 바라보이였다.

바람소리 한점 들리지 않는 한적한 산간에는 못새의 울음소리만 유난스럽다.

아룻하게 갈마드는 회오속에서 나는 묘소로 통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오랜 세월의 년륜을 말해주는듯 고색창연한 담장에는 푸른 이끼가 뒤덮였고 본당의 넓은 마당에 즐비하게 서있는 묘소들에서는 금시 향내가 풍기는듯했다.

그전에 찾아왔던 행적을 더듬으며 한동안 헤매던 나는 한 묘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주선화의 묘였다. 꿈꿨던 한 처녀의 아름다운 넋을 고이 간직한채 수십년세월을 보내왔으나 묘비에 새겨진 그 이름은 예전 그대로였다.

석양의 빛을 받아 한층 선명한 광채를 발산하는 《주선화》라는 글발이 나의 눈부리를 아프게 찼었다.

순간 선화에 대한 그리움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나는 저도 모르게 《선화!》하고 옛시절에 늘 입에 올리곤하던 그의 이름을 가만히 외워보았다.

세월은 흘러 세대가 바뀌어가고있었으나 망각속에 묻을수가 없었다.

선화와 묘소앞에서 자기생각에 묻혀있던 나며

지 한 젊은이가 나의 곁에 와있는것도 미처 알지 못했다.

젊은이는 잠시 주춤거리다가 꽃묶음을 들고있는 나에게 공손히 물었다.

《누구신지요?》

나는 그제야 자기로 돌아와 상대방을 곧바로 바라보았다. 키가 흰칠하고 몸이 다부지게 생긴 청년이었다.

준수한 얼굴에 유독 영채도는 고운 눈매가 전에 어디서 본듯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호기심을 안은채 젊은이에게 미소를 보냈다.

《나는 총련에서 일하오. 헌데 군은 고인과 어떤사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의 이모입니다.》

청년은 친근감을 드러내며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주선화가 그의 이모라면 고인의 언니의 아들이 분명했다.

어디서 본듯한 인상을 준것은 이 젊은이가 선화의 모상을 닮은데서 온것이였다. 나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이거 참 반갑소! 어머니는 그사이 안녕하오?》

《예, 건강합니다. 저의 이모를 잘 아시는분 같은데 혹 윤선생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소. 내가 윤석민이요. 그걸 어떻게 알고...》

나는 놀라운 기색을 지으며 젊은이를 주시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길 들었습니다. 저도 조청원입니다.》

《어머니한테서?》

나는 어지간히 짐작이 갔다.

이윽고 나는 주선화의 비석앞에 꽃묶음을 놓고 잠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청년도 상돌우에 무엇인가 놓고 레를 갖추었다.

나는 청년의 뒤에 서있다가 상돌우에 놓여있는 한개의 자기꽃병을 발견하고 금시 두눈이 빛났다.

주위에 부드럽고 힘찬 광채를 뿌리며 빛나고있는 그 꽃병은 주선화가 생존시 만들어 시제품으로 내놓았던 미완성자기와 신통히도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꽃병을 뜯어보니 그 옛 미완성자기보다 모든 점에서 세련되고 우월했다.

이때 나는 어떤 기대와 예감이 언뜻 머리를 스치자 젊은이를 돌아보며 은근히 물었다.

《저 자기는 왜거요?》

《실은 이모가 연구하던걸 제가 이번에 조국에 가서 완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가슴이 후터워져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이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 젊은이가 자기를 가지고 묘소로 찾아왔단 말인가! 나는 도자기에 깃든 지난날의 사연을 아는티이라 그의 기특한 소행에 사뭇 감동되었다.

나는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상돌우의 자기꽃병을 두손으로 거머쥐고 한동안 놓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이모가 선생님의 방조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있던 일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저의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회에 젖어 도자기를 바라보는 나의 심중을 헤아린듯 젊은이는 절절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간청해나섰다.

나는 그의 청에 선뜻 응하기로 했다.

《내 방조란 별로 없소만 이모의 뒤를 이어 훌륭한 도자기공예가가 되려는 군을 위해서 오늘은 과거사를 말해야 하겠군.》

우리는 어느덧 절간밖으로 나와 송림의 알맞춤 한곳에 자리를 정하고 서로 마주하고 앉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내가 처음 선화를 알게 된것은 이미 사십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러가 버린 청년시절이었다. 그날 나는 도묘에 있는 총련학원에서 단기강습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다.

어스름한 달빛속에서 낮익은 센슈평야의 밋밋한 야산들과 생긋하니 코를 찌르는 무연한 옥파밭들이 언뜻언뜻 스쳐지나갔다.

어느덧 열차는 험한 산줄기를 따라 끝없이 설레이는 울창한 숲지대를 가로질러 협곡에 들어섰다. 차창밖에 펼쳐지는 전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나의 머리에는 지난 나날들이 언뜻언뜻 떠올랐다.

무어진지 두해밖에 안되었던 총련이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였다. 총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일본우익반동들은 우리 조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그들은 재일동포들의 민족단합사업을 방해하는데 선차적인 썩기를 박았다.

적지 않은 동포들이 그들의 회유기만과 강압에 못이겨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고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였다. 이는 장차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할수 있는 위협으로 되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앞으로 자기앞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나는 저절로 어깨가 무거워졌다.

나는 무거운 상념을 털어버리려고 머리를 들었다. 순간 앞좌석에 앉아있는 미모의 젊은 여인과

시선이 부딪쳤다. 그 여인은 진작부터 나를 지켜 보고있었던 모양이었다.

정갈하고 우아한 갈색코트를 입은 단정한 옷차림이나 술많은 긴 눈섭아래 고요히 빛나는 두눈에는 사색질은 정기는 탐구심 많은 녀대생같은 인상을 주었다.

차창으로 흘러드는 시원한 바람이 그의 얼굴이며 이마를 스칠 때마다 함함이 내려덮인 머리칼이 물결쳤다.

나는 자기앞에 객전무가 다가서는것도 모르고 있었다.

《손님! 차표를 봅시다.》

《예?》나는 급히 호주머니에서 차표를 찾다가 그만 《아차!》 하고 가벼운 신음소리를 냈다. 어제 직통차표를 떼고 도묘역을 떠나 타고 오던 도중 오사까역에서 내려 다시 차를 갈아타느라 너무 서둘던 나머지 개찰구에 차표를 놓고 그냥 온것이 생각났던것이다.

전무는 내가 난처해하는 기색을 보자 대뜸 말투가 사나워졌다.

《무임승차군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뭐요? 차표도 없이...》

《실은...》

《알만합니다.》 전무는 눈을 흘기고나서 대뜸 벌금을 요구했다.

나는 저으기 난처하였다. 도묘에서 여기까지의 벌금은 상당한 액수였다. 나에게는 그것을 물돈이 없었다.

《자, 내겠소, 안내겠소?》

열차전무의 불같은 독촉앞에 나는 진땀이 났다.

《그럼 공안경찰에 넘기라우?》 거듭되는 전무의 위협앞에서 내가 난감해있을 때 앞좌석의 처녀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자기 가방속에서 돈을 꺼내어 《저 이거면 되겠지요?》하고 전무앞에 내밀었다. 전무는 현금을 보자 삼시에 태도가 일변하여 군말없이 전표를 떼놓고 다음칸으로 사라져갔다.

본의 아닌 실수로 겪게 된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해준 처녀에 대한 고마움이 컸던지라 나는 진정으로 사례를 표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초면에 그런 부담까지 끼쳐서...》

《아이 괜찮습니다.》 처녀는 스스럼없이 응대하며 얼굴을 살짝 붉혔다. 송구해하는 나의 심정을 풀어주려고 일부러 명랑하게 대해주는 처녀의 진정앞에서 나의 웅색한 기분은 사라졌다.

《그런데 실례입니다만 당신은 대학생같은데 방학으로 집에 가는 길입니까?》

《아니예요. 전 이번에 교토에서 열린 도자기전람회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는 내심 기뻐다. 일찍부터 도자기에 대한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있던 나로서는 뜻밖에도 전문가와 자리를 같이하며 여행하게 된것이 여간 반갑지 않았던것이다.

《그래 전람회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 특색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겠지요?》

《예.》 처녀는 아직도 거기서 받은 감흥이 채 사라지지 않은듯 나직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국각지의 이름있는 자기생산지들에서 출품된 도자기들을 보면서 처녀는 느낀바가 자못 컸다고 한다. 특히 이번 전람회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에도막부시대에 만들어진 《이만리야끼》였다. 정교하고 치밀한 기법에 놀라왔거니와 정결하고 품위있는 색조의 은근한 음영이 그를 매혹케 하였다. 처녀는 려차에 몸을 싣고서도 그 도자기가 발산하던 무게있는 색깔이 눈앞에 어른거려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듯싶었다.

《바로 그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려자기의 영향으로...》

의아한 시선으로 나를 지켜보던 처녀는 저으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그럼 선생님은...》

《예, 난 조선사람입니다. 윤석민이라고 총련 현 본부에서 일합니다.》

《그랬겠군요. 저도 어쩐지...》

한순간 그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착잡한 그늘이 비졌다. 처녀는 서늘한 눈길에 미소를 담으며 몇해전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공예를 전공한지 얼마 안된다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선생님! 전 이번 전람회에서 조선에서 건너왔다는 <고려차완>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만리야끼와 신통히도 같더군요. 형태나 문양까지도... 그래서 열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가 하는 말이 <고려차완>이 천하일품으로 된 까닭은 일본사람들이 그것을 차도에 사용하게 되면서 그 미적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뭔가 의문이 실린 눈길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였다.

《<고려차완>이라...》

나는 그의 말을 되받고나서 리조분장자기의 려력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 자기가 일본자기 발전과 차도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크다. 근대 일본자기의 발전은 이 분장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차완》으로 불리우는 고려청자나 리조백자는 당시 일본사람들의 눈에 진귀한 보물로 보이게 되어 후에는 도꾸가와막부의 하사품으로까지 리용되었던것이다.

《글쎄, 분장자기가 일본에서 차도와 함께 발전한것만은 사실인것 같소. 하지만 도자기의 아름다움은 어디까지나 <고려차완>이 가지고있는 우수성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할거요.》

《그건 왜서나요?》

《난 반대로 분장자기가 가지고있는 듬직한 형태미와 깊이있는 색조가 차도에서 주장하는 감정과 취미에 융화되기때문에 일본의 차도가 높은 경지에서 발전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자기의 전통이 모두 <고려차완>에서 비롯된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대 일본자기발전의 토대를 닦은 아리다야끼를 개척한 사람도 우리 조선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실증하고있지요.》

처녀는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은듯 심중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서둘러 물었다.

《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아이참, 선생님도...》

처녀는 가벼운 웃음으로 흘러보냈으나 표정은 여전히 의혹에 젖어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선의 장공인들이 임진왜란때 일본에 끌려와서도 고국에서와 같이 다른 도자기에서 찾아볼수 없는 독특하고 참신한 색깔을 얻어내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는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조선의 장공인들이 만든 도자기가 얼마나 값진것인가 하는것은 봉건령주들이 <고려차완> 한 개를 쌀 만석이나 성 하나와 맞바꿀만큼 비싼 값을 지불했다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도자기력사를 더듬어보면 도자기가 가지고있는 비밀을 얻기 위하여 일본의 장공인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이 나라 력사는 그런 비사들을 하 많이 전하고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도자기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그리 조예가 깊으세요?》

《글쎄... 나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자기에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뉘를 보면서 커다란 긍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순간 처녀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 선조들이 이역의 땅속에 묻혀 한줌의 흙이 되였어도 그들이 남긴 고결한 정신적유산은 살아 숨쉬고있습니다. 나는 민족의 뉘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것을 그 도자기를 대할 때마다 깊이 느끼곤하지요.》

《민족의 뉘...》 처녀는 입속으로 조용히 외우며 웬일인지 나직이 한숨을 토했다.

렬차가 기적을 울리며 도래굴이를 돌자 파도소리 높은 바다기슭이 펼쳐지면서 봉긋이 드러난 야산이 다가왔다. 나는 저도 모르게 엉거주춤 반신을 일으키며 혼자소리로 부르짖었다.

《가라꼬야마...》

그러나 그 산은 삼시간에 나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선생님! 방금 지나온 산이 가라꼬산이지요?》

《당신도 그 산을 압니까?》

처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재작년 가을에

그곳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그는 가라꼬야마에서 본 가마터와 사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백토는 아마 그곳에서 30리가량 산속으로 더 들어가야 있을 겁니다.》

나는 그곳에서 백토를 채취하기가 여간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고마워요. 선생님, 많은 것을 알려주어서...》

처녀는 두눈을 빛내면서 무언가 더 말하려다 말고 갑자기 신중한 안색을 지었다.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 처녀는 서운한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2

내가 마나베에서 민족단합사업에 착수한 것은 그로부터 몇달후였다. 읍거리 안침한곳에 자리잡은 2층건물은 뒤마당에 자그마한 정원까지 붙어 있어 한결 그윽한 정서를 자아냈다. 분회장을 통해 이곳 실태를 알아보니 예견했던바대로 평온지 않았다. 동포들의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제일 장애로 되는 것이 자기소를 경영하는 무라야마일가라고 하였다. 무라야마는 몇해전에 죽고 지금은 그의 맏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기소를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부친은 동포들과 련계가 전혀 없지 않았으나 맏딸이 주인으로 되자부터 동포들과의 접촉을 아예 단절하고 찾아가도 만나 주기는커녕 문전에도 들여놓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의 영향하에 있는 동포들이 우려되어 한시도 수수방관할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전화로 무라야마자기소주인을 찾았다.

《무라야마입니다. 누굴 찾으세요?》

상냥한 녀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주인님 계시면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주인 무라야마 기미코입니다. 무슨 일때문에 그러 시나요?》

《전화로 실례합니다. 전 면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한번 당신과 만나 상론할 일이 있어 그러는데 만날수 있겠는지요?》

《현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럼 어느쪽분이신가요?》

《예?...》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국토는 비록 분단되어 있어도 이국땅에 와서까지 한피줄을 이은 동족을 남이요, 북이요 하면서 경원해야 한다니 실로 억이 막힐 노릇이었다. 내가 잠시 머뭇거리는데 전화는 끊어졌다.

이튿날 나는 녀주인과 직접 상면하리라 결심하고 일찌감치 산기슭에 자리잡은 자기소로 찾아갔다. 하녀인듯한 녀자가 나와 맞이해주었다. 찾아온 용건을 말하자 그는 잠시 들어갔다 나오더니 의외에도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나를 안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갓가지 꽃들이 피어있는 뜰안을 지나던 나는 그만 우뚝 굳어지고말았다. 정원가운데서 물을 주고있던 처녀와 시선이 마주쳤기때문이었다.

《아이 선생님이 어떻게?》 그는 반색하여 물통을 놓더니 나에게로 총총히 다가왔다.

《아니?!...》

실로 천만뜻밖의 일이었다. 렬차칸에서 낮을 익혔던 처녀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줄이야...

(이 처녀가 조선사람이었던 말인가?)

그때 서로 헤어지면서 처녀가 자기의 거처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었다.

이제 와서야 그 까닭이 짚여졌다. 내앞에서 자신을 밝히기가 괴로웠던 것이다.

선화는 어리둥절해서 서있는 나를 친절히 응접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계시는지 알수가 있어야지요.》

선화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가져다놓았다.

나는 어제 그의 언니로부터 전화에서 뽕대받던 일이 되살아나 심사가 개운치 않았다.

《어서 차를 드세요.》 선화는 진한 록차를 담은 차그릇을 나에게로 권했다. 이윽고 기다리던 그의 언니가 방안에 나타났다. 첫눈에 세련된 녀인이라는 것이 한눈에 감촉되었다.

선화는 나를 소개하려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 녀인은 동생을 말없이 제지하며 나의 앞에 곧장 다가왔다. 그의 아릿다운 자태에서는 쌀쌀한 랭기가 풍기고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녀인의 꾀꾀한 태도와는 달리 인사치레부터 했다.

《어제 전화를 거신분이시지요?》

《예.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실례입니다만 전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상관없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 사업상 이외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하고 선화의 언니는 나의 말문을 막고나서 표연히 방에서 사라졌다. 누구보다도 당황한것은 선화였다.

언니의 무례하고 랭정한 처사에 어쩔바를 모르고 허둥거렸다. 그의 안타까움에 바재이는 모습을 보자 도리어 나 자신이 민망하게 여겨져 가만히 있을수 없었다. 이윽고 머리를 쳐든 그의 두눈에는 눈물이 가랑하니 피어있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언니도 우리를 이해할 날이 있을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남겨놓고 선화의 바래움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걸음이 무거웠다. 나의 눈앞에는 그 녀주인의 얼굴이 자꾸만 확대되어 안겨와 망막을 자극했

다.

그로부터 며칠후였다. 사무실에서 한창 글을 쓰고있었는데 나의 앞에 선화가 꽃을 수놓은 일본옷차림으로 손에 가방까지 들고 불쑥 나타났다.

이렇게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를 맞이했다.

《요전에 정말 미안했어요.》

《그 일이라면 마음놓고 어서 앉으시오.》

《고마워요.》

선화는 자리에 앉자 한동안 내가 쓰던 문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마 처음 보게 되는 우리 글에 매혹된듯싶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선화는 도도룩한 입술을 방싯 열었다.

《실은 제가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것은 언니의 일도 있고 또 몇가지 문의할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전 가라꼬야마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때문인가요?》

《제가 새로 탐구하고있는 도자기에서 색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 요전번 렐차안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생각되는것이 많았어요.》 하고 그는 자신이 겪고있는 고충에 대하여 죄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연구하는 새 자기창작에 가라꼬야마자기가 가지고있는 비법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긴채 선화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도자기에서 색창조는 칭작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았다. 하물며 가라꼬야마야끼(자기)는 리조분장자기의 전통을 자랑하는 자기였고 공예예술 역시 정신의 산물일진대 그 비법을 탐구하고 터득하려면 그 자신이 응당 자기 근본을 되찾고 알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나는 혼자 생각을 굴리던끝에 선화에게 은근히 물어봤다.

《아버님께서 생존시 단군신을 믿지 않았습니까?》

《어마나, 선생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선화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나를 주시했다.

《예로부터 조선의 장공인은 단군신을 숭상해왔다고 합니다. 아버님과 같이 한생을 자기에 바친 장인들이 자기 보호신을 가지고있는것은 본분이 아닙니까?》

선화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탄식이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그의 언니에 의해서 무라야마자기소에 안치하고있었던 단군신이 일본신과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나도 이미 알고있는터였다.

《전 미처 그런것까지 몰랐습니다.》

《그렇수 있겠지요. 속담에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도 님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아무

리 훌륭한 부처를 만들어도 그것을 만든 장인이 님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 부처는 아무 맥도 못추는 한갓 허수아비일 따름이지요.》

《전 선생님이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하고 선화는 말끝을 도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마 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 못하고 무엇인가 오해를 하는것 같았다. 나는 어차피 그가 납득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가라꼬야마는 조선의 장인 리석해에 의하여 개척되고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만들어낸 이름높은 자기산이었다. 그들 역시 자기 민족의 전통에 따라 단군신을 숭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명치유신의 개혁과 함께 《천황》중심의 새 정부가 수립되고 《정한론》이 국시로 되자 일본곳곳에서는 조선적인것이 모두 탄압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단군신도 종당에는 헐리워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빛을 뿌려온 가라꼬야마야끼는 폐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제까지 묵묵히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선화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며 서글피 묻는것이였다.

《그후 그들은 어찌 되었는가요?》

《리석해의 후손들은 명치정부의 박해에 항거하다가 깊은 산속으로 피신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종적을 누구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깊은 사연을 안고있었군요.》 못내 가슴아픈듯 선화는 물기어린 눈으로 어둠이 짙어가는 하늘을 이윽도록 내다보고 말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가라꼬야마의 비참한 운명을 놓고보면 도자기는 결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재능과 령혼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증견자라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요.》

《력사의 증견자?》

어느덧 선화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의 그림자가 짙게 어리였다.

이날 그와 헤어질 때 내가 학창시절 가라꼬야마에서 얻고 소중히 보관해온 자그마한 자기단지(가라꼬야마야끼그릇)를 선화에게 선사했다.

그것은 흐름무늬의 분장자기로서 우아하고 기품있는 보기드문 리조분장자기였다.

선화가 그것을 곁에 두고 자기 민족을 잊지 않을 바라는 나의 간절한 희망에서였다.

그후 선화가 겪은 사연을 알게 된것은 퍼그나 날자가 지난 뒤였다.

그날 서로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선화가 2층에 있는 자기 방 층계를 막 올라서려는데 응접실에서 자기소 상무들과 무슨 의논을 하고있던 언니가 그를 멈춰세웠다.

《어릴 잤다 이제 오니. 이리 좀 내려무나.》

선화가 방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에서 나왔다.

언니는 탁상우에 널려져있는 서류들을 주섬주섬 거두고나서 선화를 마뜩지 않은 눈길로 보다가 이마를 찌프렸다.

선화는 언니의 기분을 눅눅히려고 손에 든 보자기를 펴보이며 《이게 뭐나 맞춰보세요.》 하고 어리광을 피우듯 말했다. 언니는 보자기속에서 나온 도자기를 보자 금시 두눈이 휘둥그래져서 환성을 질렀다.

《아니 이젠 옛날 도자기가 아니냐? 정말 색도 무늬도 곱고... 진품이구나!》

《16세기에 만든 자기에요.》

《그게 정말이냐? 이런걸 어디서 샀니?》

《선물받았어요.》

《네가? 누구한테서?》

선화는 얼른 대답이 안나갔다. 언니앞에 사실을 까뻐할수 없는것 이 안타까웠다.

《너 혹시 그 사람에게서 받은것이 아니냐?》 언니는 대뜸 따지고들었다. 그의 입에서 석민의 말이 나온 이상 선화는 숨길수 없어 그와 알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솔직히 털어놓았다.

표표한 안색으로 동생이 하는 말을 다 듣고난 그는 별안간 눈섭을 치프며 어성을 높였다.

《너 정신이 있니? 이 언니가 왜 그네들과 격을 두는지 그래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

《그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것 같지만 우리가 이걸 절대로 받아선 안된다. 어서 도로 가져다 돌려주거라.》

언니의 태도는 강경했다. 그의 이런 완고한 고집에 부딪치자 선화는 이제껏 참았던 울화를 터치고말았다.

《언니는 너무해요! 그분이 어쩔다고 자꾸만 야단이에요?》

선화는 안타까이 부르짖으며 언니의 소매를 붙들고 발을 굴렀다. 그러자 언니는 잠시후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달래듯 차근차근 말해나섰다.

《넌 언제 가야 철이 들겠니? 우리가 이 자기소를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아버지가 지켜냈는지 벌써 잊었니? 우린 처지가 달라. 네가 철딱서니없이 그 사람들과 상종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날에는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겠니? 당장 망하고 말어...》

입술을 깨물며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는 동생을 지켜보던 그는 한층 어성을 높여 말했다.

《이 사회에선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만 살아갈수있어. 공연한 유혹에 빠졌다간 다야. 인정이란 미리 떼야지 정이 들면 떼기가 어렵다는걸 말이야...》

선화의 귀에는 언니의 말이 더는 들리지 않았다. 종잡을수 없는 감정이 그의 온 심혼을 뒤흔어놓았다. 야속하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이 몸을 휩쓸던것이다.

택시는 쾌속으로 달렸다. 차창밖에는 진한 록색으로 물든 골나무숲들이 온 산을 뒤덮으며 설레이고있었다. 멀리서 파르릉! 하고 우뢰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좌석에 앉아 련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다가 먹장구름이 밀려드는 하늘가에 불안한 눈길을 던진채 재촉하였다.

《운전수아바이, 좀 더 빨리 몰수 없습니까?》

《성미가 꽤나 급하구만. 시속이 70이네.》

나이지긋한 운전수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산길에서 더이상 속도를 낸다는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다시 등받이에 몸을 묻었으나 여전히 초조감을 누를수가 없었다. 선화와 약속시간을 어긴채 길을 떠난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였다. 오늘 선화와 가라신사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었던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에서 급한 용무로 지체되다보니 부득이 약속한 시간을 어기게 되었다.

이 몇달 나는 선화에게 우리 조직의 영향을 주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왔다. 그런속에서 선화는 나날이 달라져갔다.

언니가 그토록 질책하며 반대해나서는것도 무릅쓰고 그는 내가 강사로 출연하는 청년학교에 매일과 같이 나와서는 우리 말과 글을 열성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강습생들과 어울려 노래도 즐기 불렀다.

이런 새 삶에서 보람을 느낀듯 선화는 나날이 명랑해졌다. 더우기 나하고도 교제가 자연히 깊어지면서 때로는 자기의 진정도 서슴없이 나누었다.

오늘아침도 내가 현에 용무가 있어 간다는것을 안 선화는 자기도 백토를 채취하러 가는 길이라고 동행하자고 나섰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한렬차를 타고오다가 그는 삼봉마뜨역에서 내리고 나는 곧장 현으로 갔다. 그때 헤어지며 서로 약속한것이 공교롭게도 시간을 어기게 될줄이야...

《젊은이, 저기 가라신사가 보이누만!》

운전수의 말소리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나 고개를 쳐들었다. 낮익은 울창한 숲이 다가오는것이 보이였다.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있는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택시는 그들앞에서 멈추어섰다.

나는 차문을 열고 내리자 바람으로 선화부터 찾았다. 그러나 사람들속에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않았다.

산으로 먼저 오르게 분명했다. 나는 학창시절에 그곳에서 겪은 일이 생각키워 신화의 신변이 걱정되었다. 나무숲이 뻗뻗이 들어찬 골짜기, 거부기잔등처럼 울퉁불퉁한 바위산, 가파로운 벼랑과 그밑으로 사뭇쳐흐르는 강물, 어둠이 깃든 숲속에서 승냥이의 울음소리... 그 모든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였다. 끝없이 밀려드는 먹구름에 휩싸여 산은 절반나마 가리웠다. 나는 급히 산락으로 올라갔다. 좌-아 하고 숲을 누비며 소나기가 쏟아져내렸다. 사위는 갑자기 뽀얀 물안개로 온통 뒤덮였다.

《선화-》

나는 두손을 입에 대고 큰소리로 부르며 사방을 헤매이면서 찾았다.

그러나 어디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한층 불안해졌다. 지곶은 날씨와 어둠에 덮인 험산에서 선화의 신변이 몹시 걱정되었다.

시간이 퍼그나 흐른 뒤였다. 나는 지척에서 나는 가냘픈 소리를 언뜻 듣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귀를 강구니 녀인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였다. 나는 황망히 뛰쳐가며 거듭 불렀다.

《선화-어디 있소?》

거뿔한 웅덩이속에서 선화의 목청이 울려왔다.

《아이, 여기, 여기 있어요!》

나는 흠칫 놀랐다. 선화가 깊은 함정속에 빠져기를 쓰며 허우적거리고있지 않는가.

나는 경황없이 곁에서 미출한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들고 함정속으로 내리드리웠다. 선화는 그것을 붙들고 간신히 땅우에 올라왔다. 웃이며 얼굴이 온통 흙탕물에 게발려 누군지 가려보기 어려웠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나는 놀라움에 못이겨 성급히 물었다. 선화는 오히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무하였다.

《전 선생님이 이렇게 와주리라고 믿었어요.》

자칫하면 생명도 잃을수 있는 위험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태연할수 있단말인가? 나는 선화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날씨가 시시각각으로 사나와지는것이 우려되어 나는 한시바삐 자리를 뜨려고 서둘렀다.

《자. 머물거릴새가 없소. 어서 갑시다!》

《가다니요, 어디로요?》

《어디긴 산을 내려가야지.》

《전 싫어요!》

《뭐요? 정신나갔소? 저기 밀려오는 비구름을 못보우. 저게 터지는 날엔 우린 이 산을 내려가지도 못하오!》

《그래도 싫어요. 전 백토를 찾기전에는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어요.》

선화의 태도는 단호하였다.

백토가 있는곳은 이 고장에서도 제일 험하다고 하는 스즈코고개를 넘어야 한다. 현대 그 깊은산속을 시시각각으로 험악해지는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기어이 가겠다는것이다.

《전 선생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저를 위해 그러신다는걸. 하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귀중한 자기를 선사한것이 단순히 집안의 장식물이나 관상용으로 리용하라고 한것이 아니겠지요? 저는 저절 받아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보았어요. 인간으로서 참답게 살자면 자기 본색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절절하게 울리는 선화의 어조에는 진정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 산에서 나오는 백토에 우리 자기소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언니는 지금 특색있는 질 좋은 새로운 자기를 개척하여 판로난에 빠진 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애쓰고있어요. 그 해결책으로 그는 리조분장자기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재생시켜보려고 달라붙었어요. 언니는 아직은 선생님을 다 리해 못하고있어요. 하지만 언니도 달라질 때가 있을거예요. 그런 언니를 위해서 제가 어찌 빈손으로 돌아갈수 있겠어요?》

순간 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새삼스러운 눈길로 선화를 바라보았다. 나는 선화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산을 오릅시다.》

우리가 험한 길을 헤치며 비바람이 부는 속을 돌아치던끝에 끝내 백토를 찾아가지고 산을 내려강가에 이르렀을 때는 사위가 어둠에 싸여 지척도 분간하기어려웠다. 나는 우뢰가 치고 번개가 이는 폭우속을 선화를 부축하여 다리목까지 왔다.

강진너 10여리 떨어진 간이역까지 부지런히 걸어가서 막차를 잡아타려던 우리의 마지막기대는 허물어지고말았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나무다리가 떠내려갔던것이다. 갈길이 막혀 하는수 없이 의지할곳을 찾았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다니던끝에 다행히 비를 그을수 있는 폐사로 된 양우리를 발견하였다. 우등불을 피우자 선화는 젖은 머리칼과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선생님, 미안해요. 저때문에 이런 고생까지...》

그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하여온 백토꾸레미를 우등불곁에 놓으며 속삭이였다.

《아니 괜찮소. 고생이야 선화가 많았지.》

밖에서는 바람이 기승을 부리며 마구 휘몰아쳤다. 그럴 때마다 우등불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피로에 지친 선화는 나의 어깨에 몸을 기대여 사그라져가는 불꽃을 시름겨이 바라보고있었다.

날이 썰녘이 되자 싸늘한 랭기가 우리안으로 스며들었다.

《선생님...》

선화가 조용히 눈을 뜨며 느닷없이 물었다.

《선생님은 저를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사실 전 선생님처럼 조국을 깊이 알지 못하고 살아온 불행한 여자예요.》

《그것이 어찌 선화씨의 죄겠소?》

《그럼 누구의 탓이겠어요? 저는 이미 벼꽃이 되어버린 몸이에요. 그러니 동족을 배반한 여자가 아닙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소. 아무리 성을 바꾸었다 한들 몸에는 우리 민족의 순결한 피가 흐르고있는거요.》

《사실 전 그래서 수많은 사연을 남기고 사라진 그 자기의 전통도 살리고 사그라져가는 내 녀도 다시 찾자고 오늘 힘든 걸음을 한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선화 생각이 장하오. 나도 돕겠으니 더 힘을 내오.》 나의 고무에 그는 한층 힘을 얻은듯 그윽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 언니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래는 그런 물건정하고 매정한 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회의 생활환경이 우리 자매를 서로 멀리 밀어놓은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고 보세요. 제가 새 자기들 만드는데 성공하면 우리 자기소는 부흥하고... 그때 가면 언니도 우릴 리해할거예요.》

그는 천진스러울 정도로 밝게 웃었다.

이제 보니 선화는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다정다감한 처녀였다. 그의 웃음속에는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었고 그의 눈물속에는 외로움만이 아닌 의로운것을 위해 몸바칠 숭고한 헌신성이 배어있었다. 나는 그의 사람됨을 한층 깊이 알게 된것이 정녕 기뻐다.

4

우리 조직의 보다 확대강화와 관련한 강습소로 도표에 올라가있던 나는 돌아오자바람으로 무라야마자기소부터 찾아갔다.

그러지 않아도 선화의 새 자기생산도입을 앞두고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어야 할 시기에 자리를 뜨게 된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있었던터였다.

강습기간 한시도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현대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나를 기다릴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수없었다. 너무도 충격이 컸다. 그토록 자기근본을 찾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며 깨끗이 살아가던 처녀가 갑자기 죽다니 통설하고 참을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선화를 마지막으로 만난것은 도표로 강습을 떠나기 며칠전이었다.

전날 폭풍우 휘몰아치던 밤에 함께 백토를 캐고 돌아오다 역두에서 내가 그의 언니로부터 당한 일이 마음에 걸려 찾아온듯싶었다.

그날 우리가 첫차를 타고 역에 내렸을 때 뜻밖에도 개찰구앞에는 선화의 언니가 나와있었다. 밤새 돌아오지 않는 동생이 걱정되어 기다리다 못해 나온 모양이었다.

그는 선화와 나란히 서서 나오는 나에게로 다가오더니 《부탁이에요! 제발 우리 동생만을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내뱉듯이 한마디 남기고 선화의 손목을 이끌고 황황히 사라졌던것이다.

나는 얼없이 서서 멀어져가는 그들 자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역에서 동생을 앞세워 걸어가면서 언니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선화는 그것이 더 화가동하여 먼저 말을 건넸다.

《언니, 우리 자기소일을 도와주는분이에요.》

《너 환장했구나! 그만치 타일렀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구...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성까지 갈고 귀화했겠느냐?》

《그때는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지만... 전 그분의 진심을 믿고싶어요.》

《뭘라구? 진심... 너 혹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둔거나 아니냐?》

《언니...》

선화는 복받치는 설움을 참지 못해 흐느끼었다. 언니가 그렇듯 매몰스럽고 지각이 없는 목석처럼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언니는 제 무릎에 고개를 묻은채 어깨를 들먹이는 선화의 등을 쓰다듬어주었다.

《내가 널 놀래웠으면 용서해라. 사실 각박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너만이라도 고이 키우고싶은것이 내 소망이다.

이젠 너두 다 컸으니 무얼 숨기겠니. 우리 기업이 잘되어나가는것으로 안다면 그건 다 거짓이다 자, 이걸 봐라. 이게 다 이달을 넘기지 말아야 할 세금고지서와 빚독촉장이다.》

선화는 고개를 들고 언니의 손에 쥐여진 종이장들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귀화하던 때보다 일은 더 힘악해졌다. 이런 불경기때 먼저 녹아나는건 우리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냐. 난 이를 사려물고라도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자기소를 지켜내련다. 귀화해서라도 자기소를 부흥시키려는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걸 아버지가 오래동안 피눈물을 뿌리며 실패의 쓴맛을 본 뒤끝에 찾은 유일한 출로였다. 남을 생각해줄것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것도 없다. 오직 믿을건 제 힘밖에 없어. 그래두 우리가 귀화했으니 이만큼이라도 지령해냈지 그렇지 않다가는 그 어디서건 단 한푼도 용자해주지 않는다. 힘악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마음을 모질게 먹는것밖에 없다. 내가 너 하나를 위하지 못한다면 먼저 가신 부모님들에게 두벌죄를 짓는것 아니냐.》

언니의 진정을 알게 된 선화는 그의 품에 안겼다.

《언니, 너무 걱정말아요. 일이 다 잘될거예요...》

언니앞에서 말은 혼연히 했으나 자기소가 겪는 경영난을 비로소 알게 된 선화로서는 앞이 캄캄해졌다. 창황중에 강변으로 나온 선화는 강물위에 떠내려가는 락엽을 이윽히 바라보며 생각을 더듬었다. 왜서인지 나에게 모든것을 의지하고 싶은 선화였다. 이렇게 하여 그의 걸음은 나에게로 향하게 되었던것이다.

선화가 안타까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나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피로와하는 그를 보니련민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선화를 진정시키고나서 그새 궁금하게 여겨오던 새 도자기 연구에 착수했는가 물었다.

선화는 조용히 들고 온 가방에서 단지를 하나 꺼내어 나의 앞에 내놓았다.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나는 얼른 그것을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산뜻한 색깔의 조금도 손색이 없는 현대분장자기였다.

《아주 기막힌 자기로군. 이걸 어디서 만든거요?》

《맞춰보세요. 어디 한번.》

나는 유명한 자기산지이름을 연방 섬겨냈다. 선화는 그런 나를 장난기어린 눈매로 잠시 지켜보다가 정색하며 말했다.

《선생님, 이걸 제가 이번에 만든 시제품이에요.》

《그게 정말이요?》

나는 손에 든 단지와 선화를 번갈아보며 부르짖듯하였다. 사실이 그렇다면 선화의 피어린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었던 말인가?

《성공을 축하하오!》

나는 진심으로 기뻐해마지 않았다. 그러는 나에게 선화는 눈시울에 맺힌 맑은 눈물을 닦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다 선생님이 저를 도와준 덕분이예요.》

《아니요. 이걸 자기 본분을 되찾으려고 정력을 기울인 당신의 깨끗한 마음이 낳은 산물이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

선화는 나의 입에서 자기 부친에 대한 소리가 나오자 아래입술을 깨물며 울먹일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 뒤울안으로 나와 벗어나무밀을 따라 다정히 거닐었다. 가을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삼라만상이 무르녹는 풍요한 계절의 생리가 나를 무척 충동질했다.

《선화!》

나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는 고운 두눈을 들어 말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내 청을 하나 들어주겠소?》

《뭔데요?》

《난 오늘 어쩐지 선화씨의 노래소릴 한번 듣고싶구만.》

선화는 공연히 낯을 붉히며 아무 응대도 없었다.

《여직껏 당신의 노래를 듣지 못했는데 조선민요곡집을 선사한 그 값을 이젠 치를 때가 되지 않았을가?》

그제야 선화는 상기된 얼굴을 쳐들고 조용히 웃었다.

《전 청이 끊지 못해요. 피아노를 치든가 시를 읊으라면 몰라도...》

《시? 아무거나 좋소.》

내가 선뜻 받아나서자 어느새 랑랑한 목소리가 풀려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가신후 열두해 너달

한번 가신후 오실줄 모르니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몸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아 어머니 나의 따사로운 품

당신은 나의 모든것

사람과 운명의 수호신

나는 당신없는 세상에서 못살아요...

죽어도 못살아요 못살아요...

그의 심장의 박동인듯 절절히 외우는 시의 구절구절은 나를 감동시켰다. 선화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승엄한 시세계가 남긴 여운에 온 심혼이 젖어있는듯 두눈에 이슬이 담뿍 고여있었다.

《참 좋은 시요.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더 값높고 사랑넘친 이름이 또 어디 있겠소!》

나는 승화된 선화의 심중을 눈치채고 내쳐 갔을 달았다.

《당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며 그 시를 읊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란 자기를 낳아준 품만 이르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참다운 삶을 지켜주며 이끌어주는 품이 바로 조국의 품 아니겠소!》

선화는 나의 말에 불깃하게 홍조비긴 얼굴을 들어 심취된듯 눈을 빛내었다. 나는 선화의 그 아름다운 눈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헌데 그날이 선화와의 마지막상봉으로 될줄을 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무라야마자기소를 찾아가는 나의 걸음은 사뭇 무거웠다. 어서 한시바삐 그의 언니를 만나 불상사의 모든것을 알아야 했다.

나는 비감에 싸인채 자기소를 찾아갔다.

뜻밖에도 낯설은 텃석부리가 얼굴을 쑥 내밀었다.

《누굴 찾으슈?》

《저 기미표주인을 좀 만날가 해서요.》

《기미표?》

텃석부리는 통명스럽게 되뇌이였다.

《잘못왔소. 주인이 바뀔걸 모르누만.》

《뭐 주인이 바뀌었다고?...》 나는 어정쩡해졌다. 불현듯 아까 분회장이 일러주던것이 상기되였다. 그제야 자기소가 파산하여 이곳을 떠났다는것이 현실로 안겨왔다. 나는 경황없이 텃석부리가 일러준대로 거리 한끝에 있는 한 점방으로 갔다.

선화의 언니 군자는 불쑥 나타난 나를 마치 처음 대하는 사람이거나 한듯 한동안 우두커니 지켜보다가 급기야 마음을 수습하고 허둥거리며 달려나왔다.

《운선생님이 끝내 찾아오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어요.》 전날의 쌀쌀한 태도가 일변하여 나를 귀한 손님이라도 맞이한듯 대해주었다.

나는 그가 이끄는대로 점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아담하고 탐탁해 보이는 미술상점이었다.

매대우에는 여러가지 모양과 색깔의 도자기들과 꽃병, 그림들이 진열되어있었고 몇명의 손님들이 애어린 점원처녀를 둘러싸고 저마다 물품을 흥정하고있었다.

군자는 상점과 잇닿은 사무실 겸 살림방으로 쓰는 방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이제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너무나 엄청난 변화에 커다란 의혹을 금치 못해 먼저 물었다.

《모든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군자는 내앞에 다과그릇을 내놓으며 서글피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책과 비감에 젖은 어조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나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선화는 내내 흥분에 들떠있었다고 한다.

거울앞에도 자주 서있었고 몸단장에도 전에 없이 신경을 쓰며 지어 조선옷을 입고싶다고 조르기도 하였다. 군자는 녀성의 촉감으로 동생의 거동이 마음에 거슬려 힐난하였다.

지금 우리 형편에선 사랑에 들떠있을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어떻게해서나 아버지가 한생을 바쳐 마련한 자기소를 지키는 길만이 유일한 삶의 출로라는것을 애타게 일러주었다. 더우기 자금난으로 일본자기생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실패를 겪고있는 처지였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할 방도란 오직 새형의 도자기를 하루속히 만들어내여 경쟁자를 물리치는것이다.

그러나 군자의 힘으로 도저히 타개할수 없었다.

동생의 도움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다. 현재 선화가 하는 새 자기의 성공만이 기울어가는 기업을 살릴수 있는 한가닥의 길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주변의 자기업체들속에서는 선화가 하는 일을 어떻게 냄새맡았는지 근간에 걸핏하면 전화가 걸려오군한다.

《당신네, 그 도자기가 언제쯤 나오오?!...》

《혼자 독점말구 우리에게도 넘겨주면 고맙겠소. 값은 후하게 치르겠으니...》

《고려자기라구? 거 대단합니다. 성공을 바랍니다.》 이러한 야유투의 공손치 못한 소리들이었다.

그속에서도 유독 교야마자기소주인은 하루건너 뻔질나게 전화로 물어왔다.

황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서로 누르고 득세하려는것이 레사로운 일이었으나 군자는 그들의 시샘이 장차 무슨 변을 일으킬지 아직은 막연하기만 하였다.

이렇듯 갈팡질팡 허덕여온 군자는 동생을 불렀고 애타게 하소하였다.

일찌기 어머니들 여의고 외로와하는 자기를 따 뜻이 안아키워온 언니를 생각하며 선화는 일심전력 분장자기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시제품이 나왔다. 이제 그것을 생산에 도입한 하면 성공은 확정적이었다.

그러나 자금이 문제였다.

설비를 교체하고 자재를 구입할 길이 없었다. 군자는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동분서주하였다.

《아무리 사정해도 은행에서는 귀화인이라는 이유로 융자해주지 않았어요. 가짜 일본인이라는것이지요. 제기 어리석었지요. 결국 우리는 종에...》

피를 토할듯 그 모든 사연을 전하였다. 그는 수건으로 눈굽을 훔치며 목메인 소리로 말을 하였다.

《그날 선화는 온종일 상심에 잠겨 안절부절하던 저녁때 슬그머니 외출복을 갈아입는게 아니겠어요. 나는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랜 잠간 바람을 쏘이고싶어 그런다기에 제하고 싶은대로 두었어요. 헌데 집을 나간 그애가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 밤새 뜬눈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다 운선생님이 계시는데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으나 선생은 도표에 출장중이라 하더군요. 정말 도무지 행처를 알수가 없었습니다.》

군자는 그날밤 자꾸만 엄습하는 불안으로 하여 잠을 이룰수 없었다.

새벽녘에 전화종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군자는 경황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동생이 중태에 빠져있다는 병원측의 뜻밖의 연락이었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군자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동생은 이미 마지막숨을 톹으며 림중에 처해있었다. 군자는 신화를 부동켜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

《그날밤 선화는 시시에 사는 동창의 집에 가서 유약을 얻어가지고 막차로 도착했지요. 먼길을 갔다오다나니 얼마나 지쳤겠어서요. 도중 그만 자동차와 맞닥들었는데 선화가 피하는 족족 차는 그냥 그의 뒤를 쫓는통에 선화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벼랑끝에서 굴러떨어졌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그의 의식이 없었다지 않아요. 그래도 내 손을 꼭 쥐고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숨을 톹으면서 <언니, 그 운전수는 교야마의 아들이였어요. 아-> 하고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군자는 림종의 그 처절한 시각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을 듣자 저절로 몸서리쳤다.

《아, 그놈들이 나의 동생을...》 하고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선화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악독한 경쟁자의 손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는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사랑하는 동생을 앗아간 놈들에 대한 불같은 증오와 함께 군자는 지기의 커다란 자책감으로 하여 모질게 가슴을 쳤다.

《그러니 선화가 이 언니를 오죽이나 원망했겠습니까. 사실 그날로 경찰에 달려가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뜻밖에도 증거불명이라면서 사건을 기각시켜버리고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귀화한 가짜 일본인이라는것으로하여 그렇게 나왔던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노릇입니까. 결국 그애는 저 때문에...》

군자는 애처로이 말하다가 말고 세차게 어깨를 떨며 오열을 터뜨렸다.

나는 이런 마당에서 그를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진정하십시오. 이것이 어찌 당신의 탓이라고 만하겠습니까?》

군자는 조용히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명주천의 하얀 손수건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얼른 펴보았다. 조선지도가 새겨진 하얀 바탕에 연한 붉은색으로 두송이의 진달래꽃을 수놓은 손수건이었다.

두송이의 진달래꽃을 보는 순간 나는 이름할수 없는 크나큰 격정에 사로잡혔다.

언제나 그것을 소중히 품고 다니며 살아온 선화의 그 뜨거운 마음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나는 그 처녀를 잃은 한없는 애석함을 더욱 극할수가 없었다.

모진 심뇌와 속박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는 군자를 보기가 안타깝고 괴로왔다.

재산이나 명예는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조상대대로 맥맥히 이어오는 민족의 혈통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수 없으며 인위적으로 이루어질수도 없는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에 와서야 빠져린 회오속해서 절감한듯 군자는 침통히 말을 이었다.

《전 선생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진심으로 우리 자기소를 위해주는줄도 모르고... 선화가 생전에 이미 말했답니다. 사람이 근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구요.》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생존을 희롱하는 사회가 그런 참을수 없는 비극을 들춰냈습니다. 사람이 근본을 저버릴 때 제아무리 부를 안고있다 해도 그것은 한갓 허울에 지나지 않을따름이지요.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살아야 사람답게 살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격양된 감정에 못이겨 음성이 높아지는것도 몰랐다. 무언가 더 말하고싶었으나 이때 군자가 의미심장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해 나서기에 나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알겠어요. 저도 인젠 조선사람답게 뗏뗏이 살아가려고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일깨워주십시오.》

새 결의에 충만한 그의 두눈은 여느때없이 광채를 뿜으며 빛나고있었다.

나는 그후 군자의 변한 모습에서 언제나 잊을수없는 선화의 아릿다운 얼굴이 무시로 련상되면서 자기앞에 부과된 민족단합사업을 위하여 한층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다...

시종 엄숙한 표정으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난 청년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 어머니에게서 대체로 들었지만 것처럼 가슴아픈 사연들이 있었다는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의 음성은 흥분에 겨워 떨고있었다.

어찌 청년이 자기집이 걸어온 불우한 운명을 두고 무심할수 있단 말인가.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했다.

《어머니와 이모가 겪은 지난날을 잊어서는 안되오. 군도 아다실이 지금 반동놈들이 어떻게 나오오. <참정권>의 울가미로 우리 동포들을 묶어매려고 날뛰고있지 않소. 이런 때 청년들이 그걸 저지시키지 않으면 장차 우리 동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오. 부디 앞장서주기 바라오.》

나의 이 당부에 청년은 결연히 말해나섰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가정이 겪은 과거사가 동포들속에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견결히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님의 죽음을 잊지 말라고...》

그의 억척스런 결심이 나의 심장을 한껏 부풀게하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세대는 바뀌어도 이 젊은이와 같이 총련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미더운 3세, 4세들이 얼마나 굳건히 자라고있는가! 이렇듯 우리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오늘도 줄기차게 계속되고있는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사랑의 정치가 활짝 꽃피있는 조국이 하도 귀중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버릴수 없는 민족의 뉘이 더없이 소중하기에...

이윽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늘을 우러렀다. 저 멀리 숲너머 조국의 하늘과 잇닿은 무한대한 공간이 펼쳐진 장미빛 노을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비껴들었다.

조국과 더불어

최영선

전우들에 대한 추억이 한결같은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의 삶이 기억속에서 아름답게 재생되고 어떻게 빛내인 생이 먼 후날에도 승고하게 찬미되는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느라니 문득 나의 눈앞에 9월의 명절이, 수도의 광장이 떠오른다.

그날 뜻깊은 명절을 성대하게 기념하던 수도의 광장에서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즐거운 경축야회가 노래속에 펼쳐지고있었다.

꽃물결인양 춤바다로 설레이는 광장, 밤하늘가를 찬란하게 수놓아가던 축포, 웅장화려한 천지는 황홀경을 이루었다.

터놓고말해서 우리들, 군복을 입고사는 군인들에게는 명절의 밤이면 수도의 하늘가에 끝없이 터져오르는 축포가 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남모르게 간직된 사연이 못견디게 가슴을 흔들어놓기때문이다.

나의 경우도 다를바없다. 하기에 나는 그날도 오래도록 강반에 서있었다.

밤하늘을 오색찬란한 꽃불로 물들이는 축포를 지켜보던 한 로병이 혼자소리처럼 말하는것이였다.

《이런 날이면 여기로 함께 오지 못한 전우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구만...》

군인들의 심리는 이다지도 공통된것일가.

기쁘면 기뻐서 더욱 그리워지고 즐거우면 즐거워 가슴을 치며 추억하는 전우들, 오늘의 이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서로가 축포에 마음을 얹은채 말없이 서있었다.

불현듯 파도처럼 밀려오는 추억에 이끌려 나의 눈앞이 흐려진다.

사실 흘러간 생활의 길에서 얼핏 만났다 헤어진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다 기억하랴만 나에게서는 때없이 추억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 전우가 있었다.

아마도 살아있다면 내 생활의 주인공으로도 될수 있었던 녀전우...

그의 이름은 경애, 나이는 24살, 그때 그는 이미 제대명령을 받은 사관이였다.

고향이 평양인 그는 대학추천을 받았었다. 그는 뜻밖의 정황이 생겼을 때 자기를 먼저 생각했

더라면 모름지기 지금쯤 교원이 되어 교단에 서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뜻밖의 정황으로 소대병실이 불에 잠기자 그는 서슴없이 화염이 솟구치는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화독처럼 달아오른 벽가를 한치 한치 손으로 더듬어가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초상화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 순간 녀전사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후날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의 모습은 말그대로 불사신이였다고 한다. 불길에 단발머리가 그슬리고 군복에도 불꽃이 달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두번세번 불길속에 뛰어들어 동지들을 구원하였던것이다.

희생된후 불에 반나마 타버린 그의 군복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수첩이 나졌다. 바로 거기에 써여있는 글발, 그것은 너무도 낮은 리수복영웅의 시였다.

...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문노니, 리수복영웅의 시를 수첩의 첫페이지에 또박또박 적어넣은 녀전사의 가슴속엔 과연 무엇이 맥박치고있었는가.

내가 알고있는 학창시절의 그는 퍼그나 조용한 성미였다. 동창생들앞에서도 시웁기를 주저하던 내성적인 처녀였다.

군복을 입기 며칠전 우리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었다. 그때 그도 함께 갔었는데 군대에 나가면 무엇이 되겠는가고 묻는 선생님의 물음에 그가 겨우한다는 말이 《간호원이 되었으면...》라고 말하여 폭소를 터뜨렸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였다.

이왕이면 통신병, 고사총수 같은 군대다운 병

종을 선택할줄 알았는데 고작해서 간호원이 희망이라니 내내 남의 뒤시중이나 하겠다는 말같아서 웃고말았던것이다.

후에 거리에서 군관이 된 나를 만난 그의 어머니가 《글쎄 우리 애가 해안초병이 되었구만. 초소근무도 선대...》하며 대견해서 하던 말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 동무들의 웃음을 스쳐보내지 않고 간호원이 되겠다던 자기 희망을 해안초병으로 바꾼 그 동무. 그의 장한 모습을 그려보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난뒤 내가 취재차로 바다가에 자리잡은 그의 구분대로 찾아갔을 때였다.

오래간만에 나를 만나 못내 반가와하면서도 동무들앞에 나서길 주저하는 그를 지켜보면서 학창시절의 모습이 여전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때 지휘관들과 처녀병사들이 숨돌릴 틈도 없이 그에 대한 자랑을 연발사격하듯 풀어헤쳤다.

《우리 중대에 이 동무와 같은 사람이 한명만 더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문에 우리 부소대장동지를 소개해주십시오. 사진까지 받쳐서...》

그들은 자기네 부소대장이 심고 애지중지 가꾸었다는 한그루의 나무앞에 나를 이끌어갔다. 이제는 퍼그나 자라 제법 우듬지에서 푸른 잎새가 설레이는 나무였다.

그밑에서 나는 생각했다.

조국위한 복무, 우리의 군사복무가 애어린 싹을 대목으로 키워놓았다고...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청춘시절에 우리는 덤불우거진 전호속에서 그리고 눈섭마저 무거운 행군길에서 자기를 알고 동지를 알며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절감하면서 어엿한 병사로 자라났다.

나의 전우 그 역시 무수히 이어진 군무생활의 낮과 밤들에 조국과 병사의 의미를 두고 가슴을 불태웠으리라. 그리고 우리 선렬들 모두가 그러했듯이 조국은 피더운 심장으로 위해야 하는것이고 병사는 조국위한 성전에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비쳐야 하는것임을 가슴속에 비문을 쏴아박듯 새겨갔으리라.

하기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자기 한몸을 그릇듯 서슴없이 바친것이 아니겠는가.

보람찬 병사시절의 나날에 그는 리수복영웅의

시를 더욱더 사랑했고 그 과정에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조국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그래서 조국위한 성스런 길에 자기의 청춘도 희망도 행복도 웃으며 깡그리 바칠수 있었던것이다.

어머니조국에 바친 심장은 멎지 않는다.

오늘도 잊지 못할 바다가초소에 가면 단발머리 녀병사들의 미더운 대오앞에는 그의 이름을 새긴 소대기발이 바다바람에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조국은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금별메달과 함께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세워주고 그의 생을 빛내여주고있는것이다.

사연많은 그 기발을 보며 병사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것인가.

비록 짧게 살았어도 조국을 위해 고귀한 청춘을 바친 이름없는 한 녀병사에게 위대한 어머니당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거니,

목숨보다 더 귀중한 조국을 위해 바친 청춘의 희망과 미래, 행복도 영원히 꽃피준다는 우리 삶의 법칙과도 같은 이 진리를 가슴속에 새겨안으며 우리 군인들은 자기 삶을 충성으로 빛내여가는것이다.

오늘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높이 평가하시며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는 리수복영웅만이 아닌 김광철, 길영조 영웅들... 그 무수한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이 바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청동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모두를 영웅적위훈으로 부르고있는것 이 아닌가.

경축의 노래소리 하늘가 멀리 메아리치는 명절의 야밤, 밤하늘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축포의 꽃바다속에 우렁이 안겨오는 성스러운 모습들, 아니나는 그 아름다운 축포의 꽃보라속에서 처녀병사가 바라던 조국의 번영할 래일도 그려보았다.

그들처럼 나도 이 한몸바쳐 강성대국으로 더욱 부강번영할 조국의 성벽이 되리라.

우리모두가 그토록 궁지높이 사랑하는 그 성스러운 조국은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이거니.

그 품을 위해, 우리 삶의 요람이고 터전인 내 조국을 위해 피도 숨결도 깡그리 바칠줄 아는 평범한 인생들로 하여 조국은 더욱더 굳세고 부강할것이며 부강조국과 더불어 그들의 생은 영원히 빛나는것이다.

시대와 생활을 대하는 작가의 탐구적 자세를 두고

박애숙

우리 시대 작가의 붓은 마땅히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전투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고무줄 줄수 있는 작품, 삶과 투쟁의 길라잡이가 될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데로 힘있게 지향되어야 할 것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문학은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이며 작가는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이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단편소설 《행복의 방아》(리성식 《조선문학》 주체87(1998)년 1호)는 바로 우리 시대와 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창작적 자세와 립장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데 긍정적시사를 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고나면 《고난의 행군》에 펼쳐나선 어려운속에서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더 좋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해나가는 주인공들의 밝고 명랑한 생활로 하여 마음이 흐뭇해지고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소설은 고향농촌에 뿌리내린 곱고 이악하기로 소문난 송경심반장과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현실체험을 내려온 립성철이란 청년과의 인간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있습니다.

소설에 설정된 기본사건은 온통 모래투성이여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막틀이》라는 세정보반이나되는 비경지를 안전한 농경지로 만들어 거기에 낱알을 심어 풍년을 가져오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사막틀이》라는 비경지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과정에 송경심반장과 성철이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작품의 기본세부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을 읽고나서 총체적으로 안겨오는 인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설을 읽고나면 밝고 명랑하며 희열에 넘친 낭만적인 우리 농촌의 현대생활이 생동하게 안겨옵니다.

생활을 파장과 분식이 없이 소박하면서도 생동하게 그린것으로 하여 소설을 읽고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농촌생활에 대한 애착을 더 뜨겁게 가게 됩니다.

모든것이 어려운 오늘 농촌생활을 그리면서 밝고 명랑하고 희망에 넘쳐있으며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확신하는 주인공들의 세계를 그린다는것은 확실히 붓을 든 우리 작가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무엇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낙관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것이겠습니까.

우선 현실묘사와 인간성격들을 형상함에 있어서 작가가 밝고 명랑하게 보고 그렇게 처리한것입니다.

작가가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그 색깔도 규정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단편소설 《행복의 방아》에서 좋은것은 농촌현실을 밝고 명랑하게 보고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낙관에 넘쳐 투쟁해나가는 주인공들의 생활을 그린것입니다.

작품의 주제와 주인공 송경심의 지향세계를 암시해주는 첫머리부분의 이야기, 즉 송경심이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은 행복의 흰쌀방아를 쥘는 엄마토끼와 아빠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부터 독자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생활의 아름다움을 예감하게 됩니다.

특히 송경심이 자기가 하다가 췌버렸던 《사막틀이》를 다시 개간하려는 성철의 발기에 적극 호응해나서는것이라든가 현실체험을 내려와 일하지만 그 땅을 제 땅처럼 귀중히 여기고 영예군인의 불편한 몸으로 일하다 쓰러졌다가도 주저하지않고 다시 일어나 일하는 장면의 묘사는 농사일에 대한 열렬한 애착과 땅에 대한 사람의 꾸밈없는 감정을 잘 드러내고있습니다.

그 애착과 사랑- 그것은 바로 자기 수렁에 대한 충실성이고 자기 조국에 대한 헌신성에서 나오는것일것입니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현실과 주인공들의 지향세계를 그리면서 그들의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인 깨끗한 사랑의 세계를 그리고있습니다.

작가는 그들의 사랑을 이 땅의 모든것을 위하여 자신들의 창조의 열정과 땀을 아낌없이 비쳐나가는 삶과 투쟁의 한길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인간들의 사랑으로 그리고있습니다.

선아봉에 삭도기등을 세우러 올라갔다가 벼랑에 떨어져 다친 성철을 부축하여 내려오는 경심이와 성철이가 나누는 대화장면과 현실체험을 하

고 성철이 도에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미 가슴 속에 사랑의 감정이 싹터 오른 두 청춘남녀가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와 그들의 감정세계를 그린 장면들이 다 그려합니다.

특히 자기는 농업전선에서 일생을 보낼 결심이라고 하면서 식량이야말로 오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내 조국을 지키는 《총포알》이라고 하는 성철의 대사는 오늘 우리 시대 젊은 세대들의 지향세계를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간직한 주인공들이기에 그들의 사랑도 뜨겁고 그지없이 깨끗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 좋은것은 농촌생활을 전반적으로 아담하고 밝게 보여준것입니다.

작가는 《사막들이》를 경작지로 만드는 과정에 어려운 난관이 수없이 제기되고있지만 그 모든 생활을 그려주면서도 어둡고 칙칙한 구석을 그린것이 아니라 농촌근로자들의 낙관적이고 량만적인 생활로 잘 그렸습니다.

봄을 사랑하는 처녀 송경심의 가슴속에 몸과 함께 찾아든 다감하고 아름다운 세계,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움트는 벼이삭, 푸르러지는 들, 하늘에선 종달새가 노래하고 전야에선 프락포르 달리는 향촌, 또 거기서 풍겨오는 꽃향기... 그 모든 자연묘사를 주인공의 다감한 심리와 결부시켜 그려준 대목은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것입니까.

그리고 《사막들이》에 강냉이파종하는 장면도 아주 기름진 장면입니다.

농사일을 처음 해보는것으로 하여 일이 서툰 성철을 남모르게 도와주는 송경심반장의 행동이며 그러한 두 청춘남녀에 대해 리해해주며 즐거운 룡담으로 일을 힘들어하는 성철을 고무해주고 위해 주려고 은근히 마음쓰는 분조원들의 세계는 얼마나 아담하고 깨끗합니까.

그러한 분조원들을 위하여 봉이 김선달에 대한 옛말을 들려주어 농사일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성철의 세계도 참으로 아담합니다.

비속에서 감기 걸릴가봐 성철을 위해 경심이 자기의 푸른 비옷을 벗어주는 세부도 좋습니다.

이러한 세부들을 통하여 밝고 량만에 넘친 우리 농촌생활에 대해 그리고있는데 이 소설이 읽을 맛이 있고 읽어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 어려움 자체를 그릴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주인공들의 밝고 희망에 찬 생활을 잘 선택하여 그려주어야 소설이 교양적의무를 다 수행

할수있을것입니다.

소설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작품이 도식화되지 않은것입니다.

그것은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림성철이지만 그와 경심을 다같이 사랑이 가게 그린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이것은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소설의 서두에서부터 송경심의 성격에 매력을 느끼게 되며 그의 지향세계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어릴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직했던 소박한 꿈을 고향땅을 가꾸는 일에서 꽃피워가는 처녀의 아름다운 지향, 일이 힘들 때마다 오히려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밝은 웃음과 실천행동으로 반원들을 이끌어가는 송경심의 일본새, 림성철에 대한 리기심없는 깨끗한 사랑의 감정- 이 모든것은 확실히 그가 우리 시대 청년의 전형임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림성철의 성격을 통해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단 1년간 일하다가 떠나갈 고장이지만 그 땅을 위해 자기의 로동의 땀을 성실하게 바쳐가는 림성철의 투쟁이 모두 그러하지만 군사복무하면서 부상당한 영예군인이라는것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몸으로 농장원들의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여주는 그의 성격이 얼마나 아담합니까.

작가는 이런 주인공들의 성격을 도식적인 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활세부를 잘 안반침하여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있습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밝고 희망에 찬 생활을 통하여 우리 농촌, 나아가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보게되며 마음이 흐뭇해지게 됩니다.

작품의 이러한 감화력은 오늘의 시대에 붓을 쥔 작가는 그 어떤 글을 쓰든지 우리 시대에 대한 긍정의 감정을 가지고 희망과 낙관에 넘친 전형적인 생활을 잘 그릴 때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생활을 들여다보는 작가의 자세와 관점이 중요 합니다.

우리 생활의 본질을 잘 꿰뚫어보고 사회주의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고무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신심이 되는 글을 써내는 작가야말로 시대적의무를 자각한 작가이며 참다운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가는 우리 사회의 옹호자가 되어야하며 그 누구보다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배나무집》 이야기

김호군

이리딩굴 저리딩굴
새집이 너무 좋아
빙글빙글 웃으며 덩굴던 령감님
억수로 쏟아지는 비줄기에
잔걱정이 꿈틀대는 몸을 일으키네

마음은 그래도 든든해
여유있게 앉아있던 령감님
천반을 지꾸 올려다보다
주섬주섬 비옷을 입네

-애그, 《우리 초소》 군인들이 지은 집인데
어련할려구요
부엌동자질속에 들리는 소리
-그래두 그렇지 않아

비는 피붓네 더 억수로
토방을 깨칠듯 쭈룩쭈룩-
도랑이 넘쳐날듯 썉썉-
허나 령감님은
지붕부터 살펴보네

손자같은 철이가 없은
고마루의 기와도 살펴보고
셋째사위같은 중대장이 없은
처마의 기와도 들춰보네
아무리 밝아도 드물지 앓을 지붕을

서로 굳게 팔을 깐듯
가지런히 곧게 누운 기와는

어쩌면 하나같은가
마치 정렬한 병사들처럼...
마치 다정한 형제들처럼...

탕탕 비발치네
지붕우에서 모자우에서
그 무엇 깨치려는듯
그때라야 령감님 알은게지
그전엔 미처 다 몰랐던 말인가
《군민일치》란...

비옷을 벗었네 령감님
그 찬비가 오히려 뜨거워
그리곤 웨치듯 말하네
토방우에 우뚝 올라서서
산너머 《우리 초소》 병사들 듣게
-여보 로친네
불비가 쏟아져도
끄떡없을 내 집이네 허허허...

땡- 한점친 시계추에서
애기곰은 그냥 덩굴딩굴
밤비는 그냥 쭈룩쭈룩
허나 령감님은 꿈만해서
원호상자에 글을 쓰네
다시는 안떠내려갈 처마아래서
- 《우리 초소》 아들들에게
《새 배나무집》 령감로친으로부터